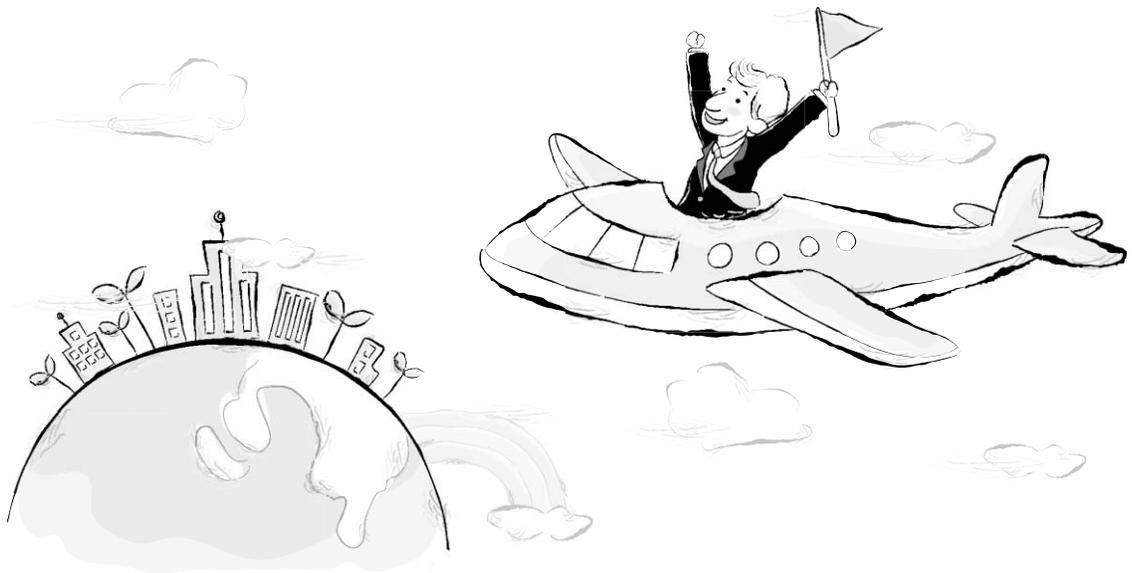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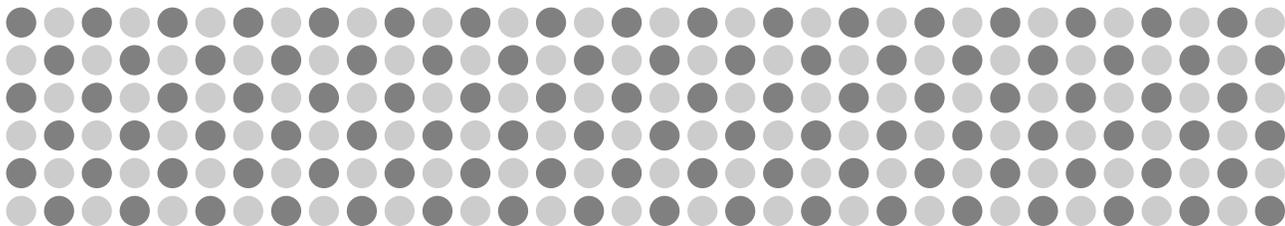
CDI 자료집 2008-16

# 2008 해외출장 보고서

2008. 11







## 목 차

<b>Part 1.</b>	선진 도서·낙후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연구 윤 정 미 _ 지역정책연구팀 책임연구원 ..... 1
<b>Part 2.</b>	창의적 지역개발 모델 및 해외운하 운영 조사 김 용 응 _ 충남발전연구원장 ..... 17
<b>Part 3.</b>	실용과 첨단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서유럽 공중화장실 권 영 현 _ 산업디자인팀 연구위원 ..... 33
<b>Part 4.</b>	농어촌 뉴타운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일본 사례 연구 유 학 열 _ 도시계획연구팀 책임연구원 ..... 55
<b>Part 5.</b>	독일 공공디자인 워크숍을 다녀와서 이 충 훈 _ 산업디자인팀 연구위원 ..... 67
<b>Part 6.</b>	일본 지역재생사업 실태조사 유 학 열 _ 도시계획연구팀 책임연구원 ..... 89
<b>Part 7.</b>	지역개발사업 통합추진을 위한 사례 연구 김 용 응 _ 충남발전연구원장 ..... 103





# Part 1.

선진 도서·낙후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연구

윤 정 미 \_ 지역정책연구팀 책임연구원





# Part 1.

## 선진 도서·낙후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연구

윤정미 | 지역정책연구팀 책임연구원

### 1. 개요

#### 1. 조사 개요

##### 1) 목적

- 선진외국의 정책사례 수집과 현장견학을 통한 선진도서개발 등 낙후지역개발 기법 습득
- 외국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역할 및 자원배분 등을 벤치마킹하여 지역 개발의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 2) 개요

- 연수기간 : 2008. 4. 21(월) ~ 5. 1(목) (10박 11일)
- 대상국가 : 유럽 5개국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독일, 네델란드)
  - 이탈리아 : 로마, 베니스, 밀라노
  - 스위스 : 루체른
  - 프랑스 : 파리
  - 독일 : 프랑크푸르트
  - 네델란드 : 암스테르담
- 방문기관 : 파리 라데팡스, 네델란드 화훼단지
- 출 장 자 : 윤정미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외 15명

#### 2. 조사 내용

- 다양한 낙후지역개발 우수 및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 선진외국의 우수제도 및 정책추진현황을 파악
- 지역의 특성과 향토자원을 활용한 지역자원 정책

## 1) 방문국가

국 가 명	특징 및 방문 목적
이탈리아	○ 이탈리아는 기존 도시의 역사적·문화적 유산을 보전하여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있기에 역사문화 관광화 조사목적으로 방문
스위스	○ 지속가능한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을 보존 ○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원도출 및 관광 상품화
프랑스	○ 프랑스는 관광대국으로 들어서기 위하여 오랜 역사속에서 자연을 통한 풍경가꾸기와 체험할 수 있는 자연환경과 문화를 보유하고 있기에 이에 관한 조사목적으로 방문
독일	○ 독일의 농촌관광산업은 공간적, 행정적 범위를 초월하여 공동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하고 신속한 정보를 통한 홍보사업과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형성
네델란드	○ 구체적인 도시성장전략 수립 ○ 세계적 수준의 도시환경 조성

## 2) 방문기관

기 관 명	방문 목적
라데팡스 개발공사	○ 지역개발 차원에서 차별화된 테마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실현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등 벤치마킹
네델란드 큐켄호프	○ 큐켄호프 공원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수출 주 종목인 구근화훼류를 세계적으로 알려 네델란드의 대표적 산업인 화훼산업을 발전 시키는데 이바지하였기에 조사목적 방문

## II. 방문지 주요조사 및 활동결과

### 1. 이탈리아

#### 1) 일반 현황

- 수도 : 로마
- 인구 : 5,814만명
- 면적 : 301,230km<sup>2</sup>
- 북쪽으로 프랑스 · 스위스 · 오스트리아 · 슬로베니아 등과 이웃하고, 동쪽으로 아드리아 해를 사이에 두고 발칸 반도와, 남쪽으로는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북아프리카와 마주 보고 있음
- 산지가 많은 편이어서 700m 이상의 산지가 35%를 차지하며 구릉지대가 42%, 나머지 23% 정도가 평지를 이룸

#### 2) 방문지역 현황

##### (1) 로마

- 로마는 인구 265만 5,970명, 면적 1,285km<sup>2</sup>으로, 이탈리아 정치 · 문화의 중심지이며, 도시전체가 살아있는 커다란 박물관임. 르네상스와 바로코의 걸작들이 공존하는 옛 유적을 그대로 보존한 채 현대 문명과 멋진 조화를 이룸
- 로마의 주요산업은 관광업으로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방문

##### (2) 밀라노

- 해발 122m의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의 주도로 예로부터 경제의 중심지로 현재도 19세기 후반에 발전하기 시작한 근대공업으로 북이탈리아 공업지대의 중심도시로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
- 2002년 조사결과 31만 개의 사업체에 150만 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국내총생산(GDP)의 10%가 생산되며, 첨단산업 고용이 국가 전체의 약 20%, 제조업은 특히 국가 전체의 1/3정도를 차지

##### (3) 베니스

- 이탈리아 베네토주(州)의 주도(州都)이자, 베네치아현(縣)의 주도(主都)이며, 2000년 기준으로 인구는 27만 5,368명이 살고 있음
- 아드리아 바다의 인공섬으로 118개의 섬들이 약 400개의 다리로 이어져 있기도 하며, 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섬과 섬 사이의 수로가 중요한 교통로가 되어 독특한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음



〈그림 1〉 베니스 지도

### 3) 주요 정책추진 현황

#### (1) 로마 도시계획

- 신전과 전쟁 영웅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 기법
- 전쟁과 군을 위한 도로 건설 등의 도시계획 기법
- 광장 및 원형 경기장 등을 통한 도시의 상징화 기법 극대화

#### (2) 밀라노 도시 및 산업

- 밀라노 도시내부의 개발한계로 주변 8개 신도시를 개발하여 주거문제 해소
- 다원화, 다각화된 산업구조, 특히 고차 생산자서비스의 균형적 발전과 이를 통한 제조업과 상호 시너지의 창출은 중장기적으로 혁신시스템 구축
- 연구개발시스템을 산업시스템 전반에 적절히 적용시켜 중소기업과 연구개발기관과의 원활한 교류 및 협력 시스템을 활성화

#### (3) 베니스 도시 및 산업

- 운하의 도시 물의 도시라는 명칭과 어울리게 S자형의 대운하가 시가지 중앙을 관통하고 있음
- 인공섬 건설을 통한 도시개발 성공 사례
- 상하수도 정비 등 인프라 노후화로 인한 부분적 도시 이미지 실추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평균 400년이 넘는 건물의 역사성과 고유성, 문화가치의 우수성 견비

### 4) 기타 자료 및 시사점

#### (1) 문화 관광도시로서의 성공요인

- 다양한 문화유산의 보전 및 발굴
-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 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활용

#### (2) 시사점

- 이탈리아는 기존 도시의 역사적·문화적 유산을 보전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적 유산보다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는데 주력하고 있음
- 특히, 베네치아의 경우, 인공섬 건설을 통한 도시개발 성공 사례이며 400년이 넘는 건물의 역사성과 고유성, 문화가치의 우수성 견비

## 2. 스위스

### 1) 일반 현황

- 수도 : 베른 (Bern, 12,9만명)
- 인구 : 약 733만 6,000명
- 면적 : 41,285km<sup>2</sup> (한반도의 1/5)
- 취업인구는 3,974천명으로 1차산업(농업) 3.7%, 2차산업(공업) 23.7%, 3차산업(무역, 관광, 은행, 보험 등) 72.6%
- 스위스는 산이 많고 농지가 협소하여 천연자원이 빈약하나 1인당 국민소득 3만 6,442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
-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에 위치하여 인터라켄 · 체르마트 · 생모리츠 · 루체른 · 다보스 · 로카르노 등 많은 곳이 스위스의 경치를 대표하며 관광객을 모으고 있음. 즉 스위스 관광은 <보이지 않는 수출>임

### 2) 방문지역 현황

#### (1) 루체른

- 루체른은 인구 7만 명의 소도시로써 전형적인 스위스 풍경과 주위를 둘러싼 리기, 티틀리스, 필라투스 등 알프스 고봉이 있는 지역임. 8세기 이후 지중해 지역과의 무역을 중계하며 급속한 발전을 이룬 루체른은 현재 기계, 금세공, 섬유업이 도시를 견인하는 근간
- 중세의 문화와 자연미, 통일성과 20세기의 문명의 이기가 잘 결합되어 있는 도시. 알프스와 피어발트슈테터 호수를 배경으로 위치

### 3) 주요 정책추진 현황

#### (1) 스위스 지역계획 전개과정

- 1972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및 개발에 따른 자연훼손을 막기 위해 긴급법령을 제정되었으며, 향후 1979년 공간개발계획에 관한 연방법(Federal Law on Spatial Planning)으로 대체되어 1980년 시행
- 직주불일치에 따른 원거리성, 교통문제, 소음문제, 대기오염 등 심각한 도시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한 도시와 인근지역간의 갈등 악화

#### (2) 계획의 목표 및 수립원칙

- 공간계획의 수립 목적은 대지의 임의적 이용과 합리적인 정주체계 확립하는데 있음
- 계획의 주요 목표로서 토지의 경제적 이용, 바람직한 개발이 보장되는 정주패턴, 자연환경의 고려, 주민의 요구와 경제성 고려를 주요 목표로 제시
- 공간계획의 수립원칙은 농촌 주변지역의 보존, 도시화의 억제와 도시설계 실시, 건축물과 인프라 시설간의 적절한 입지

〈표 1〉 공간계획의 수립원칙

기본 원칙	세 부 사 항
농촌주변지역의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을 위해 토양 함양이 가능하도록 함</li> <li>• 주거지와 풍치가 조화를 이루는 경관미의 조성</li> <li>• 강기슭과 호수 주변지역에 대한 일반인 접근 가능성 제고</li> <li>• 자연경관과 휴양지역의 보존</li> <li>• 숲의 기능 유지</li> </ul>
도시화의 억제와 도시설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지와 직장이 공공교통수단으로 연결 가능토록 함</li> <li>• 오염, 소음, 진동으로부터 주거지가 보호 가능토록 함</li> <li>• 자전거도로와 보행로의 유지 및 신설</li> <li>• 상품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양호한 조건 고려</li> </ul>
건축물과 공공 혹은 공익을 위한 인프라 시설간의 적절한 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적 필요의 고려와 불균형 감소방안 고려</li> <li>• 학교 휴양센터 공공서비스시설 접근의 용이성</li> <li>• 자연환경, 거주자와 관련 경제시스템에 관한 해악의 최소화</li> </ul>

#### 4) 기타자료 및 시사점

- 공간을 계획함에 있어, 무분별한 개발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 (자연경관 보존, 숲 기능 보존 등 농촌 주변지역의 보존)
- 또한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 등을 통해 교통, 소음, 대기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진행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원도출 및 관광 상품화

### 3. 프랑스

#### 1) 일반 현황

- 수도 : 파리
- 인구 : 약 6,358만 명 (2006년 추정치)
- 면 적 : 551,602km<sup>2</sup> (한반도의 2.5배)
-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프랑스는 세계 4위의 경제대국임
- 1997년 1,734억 프랑(289억 \$)의 대외무역 흑자를 기록한 프랑스는 세계 제 4위의 재화(특히 설비재) 수출국이며 서비스, 농업(특히 곡물과 농식료품 산업)에 있어서는 세계 2위, 유럽 제 1의 농업생산국이자 수출국임

## 2) 방문지역 현황

### (1) 라데팡스 사업 개요

- 위치 : 파리 서북쪽 6km 지점
- 면적 : 7,400,000㎡ (2,250,600坪)
- 계획개요 : 업무용 빌딩 1,400,000㎡ (26동)  
                   상업용 빌딩 140,000㎡ (7동)  
                   주택 6,000호, 고용인구 80,000인
- 개발기간 : 1958 ~ 1989 <A지구 (31년 소요)>, B지구는 시행중



〈그림 2〉 라데팡스 담당 공무원과 연수자

### (2) 라데팡스 개발

- 1960년 수도권계획 수립 (파리 시내 금융, 업무시설 용량초과, 인구분산)
- 파리의 중심축 연장선상 국제적 수준의 업무지구 조성
- 사업주체 : 라데팡스개발공사 (EPAD)
- 개발방법 수용방식 (보상 15년 소요)

### (3) 라데팡스 개발 특징

- 단계적 사업진행 (중심지구인 A지구 개발 후 B지구 개발)
- 다기능 복합도시개발 (오피스, 주거, 기타 등 3개 지역으로 구분, 계획)
- 입체교통시스템 (인공지반 도입과 다층구조 교통여건)
- 보행자동선 완전분리로 안전한 보행활동 공간 제공
- 신규건물 건축시 경합 유도 (높은 가격 유지로 투자 회수에 유리)
- 역사성과 상징성 고려 (직선가로의 역사축 설정)
- 개발방법 수용방식 (보상 15년 소요)

### (4) 라데팡스 토지이용계획

- A지구(154ha) 상업업무중심, B지구(590ha) 주택공원 중심-단계별 개발
- A지구 : 업무용빌딩 26개동, 주택 7개동 및 철도와 도로, 보행자를 위한 인공지반 등
- B지구 : 주택위주의 재개발이며 원통형으로 특이한 창문과 외관의 고층아파트로 구성

#### (5) 라데팡스 성공요인

- 자연적인 여건 : 1950년대 시기적 봄 조성, 좋은 장소 선정
- 사회적인 여건 : 파리 내 업무, 사업시설 입지 부족
- 계획적인 여건 : 효율적이고 세부적인 Master plan, 교통처리

### 3) 주요 정책추진 현황

#### (1) 프랑스 관광정책

- 프랑스의 관광정책은 프랑스 국민과 전 세계인이 관광을 통하여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의 보장
- 전 세계를 위한 평화산업이며, '장애자를 포함하여 프랑스의 모든 국민이 바캉스(4박 이상의 휴가)를 갈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해 나가는 사회복지 관광정책
- 국가관광기구 : 프랑스 관광공사(Maison de la France)
  - 1987년도에 설립된 관광청(Secretariat d'Etat au Tourisme) 산하기관으로 마케팅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전담
  - 2010년도 외국관광객 9천만 명 유치 및 관광수입 450억 유로 획득 목표

#### (2) 프랑스 관광정책의 특징

- 첫째, 민관의 관광협력
- 둘째, 지속적인 이벤트 발굴
- 셋째, 완벽한 관광기반시설
- 넷째, 고부가가치 문화상품의 개발

### 4) 기타자료 및 시사점

#### (1) 프랑스 관광정책

- 프랑스는 관광대국으로 들어서기 위하여 오랜 역사속에서 자연을 통한 풍경가꾸기와 도시계획에 대한 많은 노력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자연환경과 문화를 보유
- 우리나라 낙후도시개발을 위해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을 유발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 개발 및 방문객을 유치해야 하며, 이는 민-관의 협력을 통해 가능하며, 손을 뻗어 미칠 수 있는 영역부터 시작해야 함
- 실현할 수 있는 가시적 실천모형을 실행으로 옮겨보는 작업이 중요

## 4. 독 일

### 1) 일반 현황

- 수도 : 베를린
- 인구 : 8,237만 명
- 면적 : 357,021km<sup>2</sup> (한반도의 1.5배)

- 프랑크푸르트는 은행과 금융의 중심지이며, 함부르크는 무역, 뮌헨은 신흥 산업과 사교·예술의 중심지, 뒤셀도르프-도르트문트-에센은 중공업의 중심지
- 주요 산업으로 농림·수산업 중요성은 낮아지고 있으나 생산성이 7.5배 증가. 농업은 EU와 정책면에서 직결되어 있어 잉여량이 많아 생산쿼터제가 실시되며, 농가 소득이 낮아 50%가 부업에 종사

## 2) 방문지역 현황

### (1) 프랑크푸르트

- '뱅크푸르트(Bankfurt)'라고 불리는 프랑크푸르트는 금융과 상업의 도시로 독일 최대 공항이 있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즐비한 도시
- 신성로마제국의 52명의 실물크기 초상화가 벽에 장식되어 있는 구시청 건물 뢰머(Romer)와 오페라하우스가 인상적
- 매년 많은 세미나와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등 독일 최대 컨벤션 센터인 프랑크푸르트는 유명한 도서전시회(Book Fair)가 열림

## 3) 주요 정책추진 현황

### (1) 독일의 농촌 관광정책 개요

- 독일의 농촌정책은 경제, 사회적 범주 뿐 아니라 환경적 측면까지를 고려한 정책 추구
- 농촌 관광산업은 주로 경제부처와 건설부가 중심이 되어 각 주의 해당관청과 밀접하게 공동으로 추진하는 형태를 취함
- 독일의 농촌관광산업은 공간적, 행정적 범위를 초월하여 공동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하고 신속한 정보를 통한 홍보사업과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네트워크 형성

### (2) 농촌 관광정책 주요 내용

- 독일농업협회
  - 독일농업협회(Deutsche Landwirtschaft-Gesellschaft e.V., DLG)는 1885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서 중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사무실을 두고 있음. 독일농업협회는 농촌의 생활과 농가의 수입을 개선하는 것을 주된 활동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근래 농업 관련 전시회를 폭넓게 운영
  - 독일농업협회는 '농가에서 휴가' 사업(농촌관광활성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의 숙박시설 운영과 품질기준에 대해 지도
  - 품질보증마크 인증제도의 실시
  - 우수 민박 및 농촌호텔 경연대회
- 농촌휴가센터(Zentrale fuer den Landurlaub)
  - 농촌휴가센터는 란트슈리프트 출판사 소속의 농가민박의 활성화를 위한 상업적 목적의 민간기구이며 독일을 비롯한 오스트리아, 이태리,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 스위스, 스페인 등에서의 농촌휴가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여행안내서 출판
- 농촌휴가센터의 가장 큰 기능은 농가민박 종사자와 소비자를 중개하기 위한 온라인 서비스로서 체계적인 농가민박 및 농촌관광 데이터베이스를 운영

#### 4) 시사점

- 독일 농촌계획은 관련부서가 통합적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음. 우리나라도 각 분야별 상호 협력적 관계를 보완한 상황에서 계획 추진 필요
- 우리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관광자원화 할 것인지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 도출하여야 함
- 또한 계획을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농촌지역의 인재를 육성 및 전문 지원 운영기관 필요
- 각 농촌의 차별화된 자원 활용을 통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관광객 유치
-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특산물 발굴 및 신선하게 제공할 수 있는 농업기술 개발 필요
- 이러한 노력을 IT강국의 기술력으로 홍보·마케팅을 한다면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가능

### 5.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 1) 일반 현황

- 면적 : 637km<sup>2</sup>
- 인구 : 약 74만 명
- 유럽 4대 공항중 하나인 스킵홀공항(Amsterdam Airport Schiphol) 위치
- 전체 인구의 약 48%가 외국출신으로 구성된 국제교류도시
- 암스테르담 입주 외국 기업수 : 1,300여개 (미국 : 650, 유럽 : 350, 아시아 : 300)

#### 2) 방문지역 현황

##### (1) 화훼주제공원 큐켄호프

- 네델란드 리세(Lisse)에 위치하고 있는 큐켄호프 공원은 면적 280,000m<sup>2</sup>(약85,000평)에 매년 봄 3월말에서부터 5월 중순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구근 화훼류의 전시



〈그림 3〉 큐켄호프 배치도

- 큐켄호프 공원은 1949년에 당시의 리세 시장이 구근 재배농가와 수출업자의 도움으로 전시정원(show garden)을 만들고자하는 아이디어를 실현한데서 시작
- 개장 당시는 23만 명이 다녀갔고 최근에는 1년에 80~90만 명에 달하는 관람객이 방문하며, 3월에 개장하여 5월에 폐장
- 큐켄호프 공원은 공원과 전시이벤트가 결합된 꽃 축제(flower show)의 형태로 볼 수 있으며 내용적인 측면에서 수출 주 종목인 구근화훼류를 세계적으로 알려 네덜란드의 대표적 산업인 화훼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 주목



〈그림 4〉 연구자와 큐켄호프 담당자

## (2) 이스턴 도크랜드(Eastern Dockland)

### (가) 개요

- 암스테르담 중앙역에서 도심 반대편 오른쪽으로 동쪽 부두 지역(Eastern Dockland)
- 도크랜드 일대는 17세기 대내외 무역의 성장으로 항만과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해 온 지역
-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재건이 활발해 지면서 물류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선박의 대형화로 인해 기존 설비로는 더 이상 항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점차 슬럼화 됨
- 195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주택수요가 급증하여 주택난이 가중됨에 따라 주택지로의 재개발이 진행

### (나) 개발계획

- 이스턴 도크랜드의 재개발은 크게 5개의 프로젝트로 나뉘며 엔터포트 웨스트(Entrepot-West), 케이엔에스엠 아일랜드(KNSM Island), 자바 아일랜드(Java Island), 보르네오 스포렌버그(Borneo Sporenburg), 라이트란덴(Rietlanden) 이 바로 그것으로, 현재 모든 사업이 끝나 입주가 완료된 상태

- 이스턴 도크랜드는 재개발 사업의 타산성을 맞추기 위해 고밀도로 진행되었으나 (1헥타르 당 100가구의 주택 건설) 암스테르담의 전통적인 도시경관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건물들을 5층 이하로 건설함으로써 '저층 고밀개발'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음

### 3) 주요 정책추진 현황

#### (1) 도시계획 현황

- 암스테르담의 도시구조는 중세시대 항구를 바탕으로 생성된 구시가지(현재의 도심지역)를 중심으로 한 방사형 구조
- 암스테르담항과 스키폴공항은 중심지역에 위치한 도심부와 함께 삼각구도를 이루며 각각으로의 원활한 접근성을 제공
- 도심부를 중심으로 한 순환고속도로망이 건설되어 시내 교통망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순환고속도로망을 시점으로 네덜란드의 각 지역 및 인접 국가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망이 방사형으로 구축되어 있음

#### (2) 발전구상

- 암스테르담 도시계획의 주요과제는 날로 가중되고 있는 주택난의 해소와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공간의 확대임
- 주택난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5만 가구의 신규건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토지자원의 한계에 따라 노후화된 항만지역의 재개발(Eastern Dockland) 및 매립지 조성에 의한 신규택지 조성을 통한 주택공급을 추진 중

### 4) 기타 자료 및 시사점

- 구체적인 도시성장전략 수립
  - 암스테르담은 전후 50여 년간 장기적 도시계획 비전을 바탕으로 현재의 도시구조를 형성하였으며, 지금도 2030년까지의 도시성장을 위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실현화 하고 있음
  - 현재의 도시문제를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 도시성장을 위한 핵심과제(주택공급량 확대 / 업무지구 확충)를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개발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
  - 또한, 구체화된 각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고,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사업의 실현성을 높임
- 세계적 수준의 도시환경 조성
  - 도심지역은 시가지를 그물망과 같이 둘러싸고 있는 운하와 17세기 고풍스러운 건축물들이 어우러져 역사와 자연이 함께하는 도시경관을 연출
  - 시내 각지의 주거지들은 시골풍의 단독주택부터 실험정신이 가미된 현대식 공동 주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주택유형이 분포함으로써 다채로운 도시이미지를 형성하며 광범위한 선택의 폭을 제공
- 수요자 위주 마인드 계획
  - 대량공급을 통한 주택난 해소라는 목표로 획일화된 주택대량공급에 급급하지 않고,

- 주택 유형과 건물형태, 거주평면의 세분화를 촉진시키고, 더 이상 공급자 위주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 인식하여 많은 거주자 입주
- 향후 낙후 도시 재개발을 시도할 때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위주의 계획 마인드 필요

### III. 시사점 및 정책제언

#### 1.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보전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

- 이탈리아는 기존 도시의 역사적·문화적 유산을 보전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있음
- 건물을 보수를 할 경우 건물 사진을 촬영하여 파손시 참조
- 베네치아의 경우 인공섬 건설을 통한 도시개발 성공 사례이며, 400년이 넘는 건물의 역사성과 고유성, 문화가치의 우수성 견비

#### 2. 지속가능한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보존 및 지역특성 고려

- 공간을 계획함에 있어, 무분별한 개발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자연경관 및 숲 기능 등 농촌 주변지역의 보존)
- 또한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 등을 통해 교통, 소음, 대기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진행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원도출 및 관광 상품화

#### 3. 지역의 이미지 차별화

-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룬 건축형태 및 자재활용을 통해 지역이미지를 차별화함으로써 지역 이미지 재정립 가능
- 지역개발 차원에서 라데팡스는 차별화된 테마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실현

#### 4. 민관의 협력을 통한 실천 모형

- 우리나라 낙후도시개발을 위해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을 유발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 개발 및 방문객을 유치하여야 하며, 이는 민관의 협력을 통해 가능
- 실현할 수 있는 가시적 실천모형을 실행으로 옮겨보는 작업이 중요

#### 5. 지역을 연고로 기업의 참여 적극 지원

- 지역을 연고로 하는 기업의 도시개발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부족한 재정뿐만

- 아니라 활동인구의 확보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
- 이전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 구체화된 각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사업의 실현성을 높임

## 6. 관련부서의 통합적 운영체계 및 인재육성

- 독일 농촌계획은 관련부서가 통합적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어, 각 분야별 상호 협력적 관계를 보완한 상황에서 계획 추진
- 계획을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농촌지역의 인재를 육성 및 전문 지원 운영
-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의 장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성 및 운영

## 7. 구체적인 도시성장전략 수립

- 암스테르담은 전후 50여 년간 장기적 도시계획 비전을 바탕으로 현재의 도시구조를 형성하였으며, 지금도 2030년까지의 도시성장을 위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실현화하고 있음
- 현재의 도시문제를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 도시성장을 위한 핵심과제(주택공급량 확대 / 업무지구 확충)를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개발 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

### 참 · 고 · 문 · 헌

1. 김기호, 김대성, 2002,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전략과 기법에 관한 연구".
2. 차미숙, 2001, "EU의 공간개발구상과 시책, 국토 12월호, 국토연구원.
3. 한중수, 2006, 유럽 주요도시의 경쟁력 강화 전략과 서울특별시시의 시사점, 시정개발연구원
4. 김광익, 2003, "유럽의 지역개념과 지역정책 변화", 국토 통권 260호, 국토연구원.
5. 계기석, 1998, "중세와 현대가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 국토 통권 205호, 국토연구원.
6. 고용석, 박인권, 변세일, 이성수, 2004, "유럽의 국토계획과 시사점", 국토 통권 278호, 국토연구원
7. 박경, 2003, "상향식 농촌개발전략의 도입방안: 유럽 및 일본의 경험을 중심으로", 국토 통권 258호, 국토연구원.
8. 이수욱, 1997, "스위스의 공간계획", 국토 통권 188호, 국토연구원.
9. 이현주, 2004, "프랑스 수도권의 다핵구조화: TGV 역세권 개발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토 통권 272호, 국토연구원.
10. 정진규, 2002, "유럽 선진도시의 광역교통정책: 런던, 마드리드, 파리를 중심으로, 국토 통권 253호, 국토연구원
11. <http://ubin.krihs.re.kr/wurban/amsterdam.html>



## Part 2.

### 창의적 지역개발 모델 및 해외운하 운영 조사

김 용 응 \_ 충남발전연구원장





## Part 2.

### 창의적 지역개발 모델 및 해외운하 운영 조사

김 용 용 | 충남발전연구원장

#### 예의연수 개요

1. 목 적 : 창의적 지역개발 모델 및 해외운하운영 사례 공동조사 · 정책연구 활용
2. 기 간 : 2008. 5. 16 ~ 5. 24
3. 방 문 국 : 아랍에미리트(두바이), 이집트, 그리스
4. 방문기관 : 5개 기관(전문가 6명 면담) / 7개 사례 지역
5. 연 수 자 : 전국시도연구원장 등 24명
6. 주 관 :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사무국 - 경기개발연구원)

## I. 주요 방문기관 및 사례지역

### 1. 창의적 도시 · 지역개발기관 및 사례 지역

#### ① 「뉴-카이로 신도시」 개발기관(시행사) 방문

- Ms. Gihan A. Badawi, Relationship Officer  
DAMAC Properties, Egypt S.A.E.

Park Avenue Office-Kilo 26, Cairo-Alex Desert Road, Egypt

e-mail: gihan.badawi@damacgroup.com

www.damacproperties.com

- Mr. Tamer Ashour, Property Consultant  
DAMAC Properties



〈그림 1〉 DAMAC Properties 방문

## ② 「두바이 국제아카데미 시티(DIAC)」 관리청

- Mr. Abdullah Ahmed, Account Co-ordinator  
Partner Support Services  
Dubai International Academic City / [www.diacedu.ae](http://www.diacedu.ae)
- French Fashion University / Heriot-Watt University/Michigan State University / Manchester Business School / The British University 등  
총 26개 대학 10,000명 학사, 디플롬, 석사, 박사과정

## ③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방문

- Ms. Roula Omran, Client Relations Officer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DIFC)  
Government of Dubai  
e-mail: [roula.omran@difc.ae](mailto:roula.omran@difc.ae) / [www.difc.ae](http://www.difc.ae)



〈그림 2〉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전경 및 세미나 모습

- 두바이정부기관 : 아랍 13개국 역외금융 서비스 담당, 1,000여명 근무
- 국제금융재판소/국제금융서비스/기업지원서비스/자산관리 및 투자/역외금융규제 업무

## ④ 「두바이 개발공사」 및 지식도시개발 현장

- Mr. Chadi Bechara, Sales Executive  
Dubai Properties, A member of Dubai Holding  
P.O. Box 500272  
Dubai, United Arab Emirates  
e-mail: [chadi.bechara@dubai-properties.ae](mailto:chadi.bechara@dubai-properties.ae) / [www.dubai-properties.ae](http://www.dubai-properties.ae)
- Knowledge Village (200만m<sup>2</sup>, 33억 달러 / 2012년 완공)  
금융, 건설, 물류, 미디어, 관광, 경영 등, American University 등 15개국 명문대학,  
150개 교육기관 등 6,000여명 학생
- Media City : CNN, 로이터 통신, CNBC 등 850개 15,000명
- Internet City :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HP, IBM, Cannon, Cisco 등 700개사  
14,000명

⑤ 「사디얏 섬 문화도시 개발계획」 전시회 방문  
(Cultural District, Saadiyat Island, Abu Dhabi, United Arab Emirates)

- Saadiyat Island and TDIC (Tourism Development & Investment Company,  
www.saadiyat.ae, www.tdic.ae)

- Guggenheim Abu Dhabi Museum By Frank Gehry  
41,000m<sup>2</sup>/16,000m<sup>2</sup> exhibition space
- Louvre Abu Dhabi By Jean Nouvel
- Maritime Museum By Tadao Ando
- Performing Arts Center By Zaha Hadid

※ 세계최고의 건축 디자인, 시설, 수집품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국제적 명성이 높은 대학의 집중유치로 문화도시 건설

## 2. 해외 운하 운영사례

### ① 「수에즈 운하」 현장 답사

- 1859 ~ 1869년 건설 프랑스 레셉스 건축

지중해와 홍해 연결 : 길이 190Km, 폭 300m, 깊이 22.1m

연간 1,400척 통과, 연간 19억 불 수입



〈그림 3〉 수에즈운하의 위치와 사진

### ② 「코린트 운하」 현장 답사

- Mr. Dimitris Roussis, "Canal Vista" Sales Manager

Periandros S.A. subsidiary of sea containers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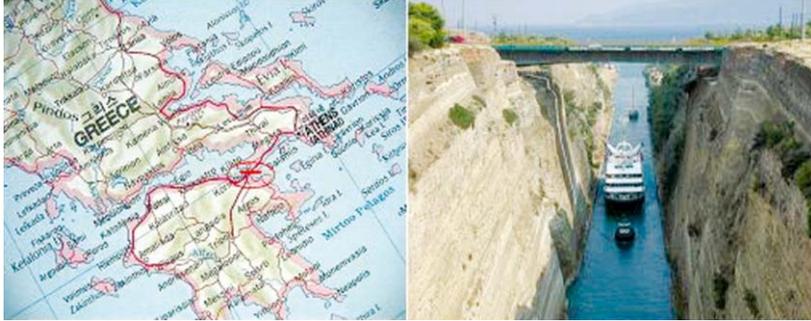
Isthmia Corinthias, 201 00, Greece

e-mail: canalvista@periandros.gr / www.corinthcanal.com

- 1881 ~ 1893년 프랑스 기술진 건설

에게해와 이오니아해 연결 : 길이 6.34Km, 폭 21m, 깊이 8~10m

총 460Km 단축, 다리 높이 50~70m, 연간 12,000척 통과  
(폭 19m, 5,000톤급, 20톤 컨테이너 20개, 6~4,000유로/척)



〈그림 4〉 코린트운하 위치와 사진

### 3. 기타 지역개발사례

#### ① 「카이로 도시」 개발실태 사례

- 도시 모지 내 주거지, 도시 쓰레기 수집 빈민주거지구
- 미완의 확장형 주택 및 도시 개발의 특징적 사례 발견
- 카이로 사막지대의 대규모 신도시건설 추진  
(exclusive high quality property development projects)

#### ② 「아테네 도시 경영」 사례

- 도심 혼잡방지 위한 승용차 2부제 (가구당 차량 2대 부작용)
- 도심 통행세 징수 특정 노선에서 전 구간 확대를 위한 자동 톨게이트 건설 중이며 고속 도로 중간에 철도 건설 효율적 간선 네트워크 형성
- 매 2년 선박 박람회 “포세이돈” 매년 개최로 관광객 유치
- 스카이라인 및 건물 경관 관리 철저

#### ③ 「창의적 지역개발사례」 현장 답사

- 버즈 알 아랍 7성 호텔/에미리트 쇼핑몰 및 실내 스키장(Ski Dubai)
- 버즈 두바이(160층) 건설 현장 및 Du Bai Land 계획지구 등
- 아부다비 아랍 에미리트 팰리스 8성 호텔 답사

※ 도시 랜드마크를 형성할 세계적 규모와 상징성이 있는 건물군을 조성하고 건물마다 독특한 디자인 개념 도입

## II. 방문사례지역의 특성과 교훈

### 1. 창의적 도시·지역개발기관 및 사례 방문

- ① 자기만의 매력과 개성을 갖추어야 한다.
  - 대부분의 창의적 개발사례는 다른 사례를 답습하지 않고 자기만의 개성과 매력을 추구하고 있다.
  - 두바이의 도시 건축물은 같은 형태가 거의 없고 건물별 개별적인 상징성과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
- ② 세계 초일류를 지향하는 개발전략 필요하다.
  - 단순한 기능적 시설이나 보편적 시설물의 양산을 지향하고 소규모 개발이라 하더라도 세계최고를 지향해야 한다.
  - 계획, 설계, 건설 및 마케팅 차원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과 전문가를 동원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 ③ 상상력을 만족할 디자인과 시설물 건설에 치중해야 한다.
  - 도시건축이나 시설물의 건축에 있어 상상력을 자극할 Design, 개발의 품격을 결정할 Detail과 완벽한 시공(Workmanship)에 치중해야 한다.
- ④ 도시 및 지역개발은 토지개발방식에서 벗어나 부동산 투자를 동시에 병행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두바이 개발에 있어 개발청은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핵심적인 부동산을 직접 건설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토지개발방식의 도시 및 지역개발은 개발효과의 가시화가 늦어지고 추가적인 투자 유치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 ⑤ 대규모 도시개발의 경우에는 완결성을 갖춘 소규모 단위 거점식 도시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대규모 도시 및 지역개발의 경우 전체지역을 하나의 통합 지역으로 개발하기 보다는 몇 개의 완결성을 갖춘 거점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여 도시개발투자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
  - 두바이의 경우 5개의 거점지역별로 완결형 도시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전체 도시지역이 완성되기 이전부터 완전한 도시기능이 가능하도록 하고, 추가적 도시개발의 투자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 ⑥ 무제한의 투자와 투기적 수요에 의존하는 두바이형 지역개발모형을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 두바이의 개발은 무제한의 오일 자금을 투입하여 세계 최대의 호텔, 위락시설, 금융 및 국제 업무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하는 모델이다.
- 앞으로도 무제한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많은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는 매우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했다. 그러나 도시개발투자가 완료된 이후의 두바이의 미래는 보장하기 어렵다.
-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구적 자원 고갈 등 초장기적 환경변화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 2. 해외 운하 운영사례

- ① 운하 건설은 확실한 사회적 편익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 수에즈 운하와 코린트 운하는 약 100년 전에 건설되었으나 건설 당시 운하 건설로 인한 확실한 사회적 편익 증대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 건설이 가능했다.
- ② 운하는 아직도 물류 및 지역개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운하는 100년 전에 비하여 상대적 역할은 축소되었으나 아직까지도 물류 및 지역 개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③ 운하건설 후 관리 운영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 운하건설에는 막대한 자본과 토목 기술이 요구되어 장기적인 기간이 요구되는 반면, 건설 후 관리와 운영에도 매우 큰 비용과 시간이 요구된다.
  - 코린트 운하의 경우 7일 기준 1일은 낙석회수 등 운하관리를 위해 운하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

## 3. 기타 지역개발사례

- ① 상징적 랜드 마크 도시개발에 치중해야 한다.
  - 도시와 지역의 이미지 및 마케팅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상징적인 건축 및 시설물 유치에 치중해야 한다.
- ② 투자유치를 위한 특혜 부여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 세계적인 대학의 유치나 학과 개설을 위해 주최국은 초기에 학교시설 및 건축물을 제공하고 수익금의 송금 보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유치도시와 지역의 이미지와 명성을 높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나 대학의 유치를 위해서는 과감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이 있다.

### ③ 교육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오픈 캠퍼스 건설이 필요하다.

- 국내외 명성 있는 대학 유치는 단과대학과 학과 중심으로 특화하고 오픈 캠퍼스를 건설하여 건축비 부담 없이 이전이 가능토록 할 필요가 있다.
- 오픈 캠퍼스 내 유관 기업과 업체의 입주를 허용하여 산-학 연계를 촉진하고, Food Center 및 Student Union 등과 같은 대학촌 공동 시설 건설을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개발전략이 필요하다.

### ④ 도시와 지역개발은 양보다 질로 승부해야 한다.

- 도시와 지역개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설투자에 치중하는 전략을 계획과 설계, 마케팅 전문 서비스분야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의 채택이 필요하다.
- 도시 및 지역개발 투자비의 5~10% 등 일정비율 이상을 소프트 분야에 배분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 도시개발의 질은 수준 높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세부적 부대시설 및 내부 장식물 등 Detail과 Workmanship(시공마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 ■ 창의적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정보와 지식기반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와 제도적 역량 강화에 치중해야 한다.

- 창의적 지역개발 아이디어, 계획수립과 집행 그리고 마케팅 등 지역개발투자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전문기관 육성과 소프트 분야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다.
- 향후 지역개발 프로젝트 투자비의 5~10% 등 일정비율을 반드시 지식과 정보 및 연구 분야의 제도적 역량 강화에 투자토록 하는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 ■ 두바이의 성공요인은 세계 초일류를 지향하는 창의적인 지역개발에 대한 비전과 아이디어 및 확고한 국가적 의지와 리더십의 역량, 그리고 막대한 투자자금의 동원 능력이라 할 수 있다.

- 그러나 이 같은 성공은 왕실 산하 2,000여명에 달하는 유능한 싱크탱크의 뒷받침이 있어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 III. 두바이 참고 자료

#### 1. 두바이 주요 개발 특성

- ① 두바이는 총 면적 3,885Km<sup>2</sup>로 제주도의 2.1배이고 인구는 약 200만 명 (현지인 30만 명 및 기타 외국인. 이는 아랍 에미리트 400만 명의 50%)
- ② 두바이 개발 전략 : 세계 일류 및 초호화 초특급 투자전략 / 부자 마케팅 치중 (Speculative Market 형성)
  - 두바이 내 호주 오페라 하우스, 파리 에펠탑, 영국 타워 브리지,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등 세계 제일, 또는 일류 상징의 랜드마크 형성 전략 추진
  - 2018년까지 연간 관광객 1억 명 유치 등 야심찬 계획과 비전
  - 세계 최고와 최대 투자 프로젝트 추진으로 오일 달러 및 세계 부동산 자금 및 기업 유치
    - 세계 최고 높이의 버즈 두바이, 세계 유일의 7성(星) 호텔인 버즈 알 아랍 호텔, 팜 아일랜드라 불리는 3개의 인공섬 프로젝트 (건설 중), 두바이 스키, 해저 호텔인 하이드로 폴리스, 디즈니랜드의 6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 두바이 랜드 (추진 중), 두바이 스키
    - 세계금융 및 물류 허브 조성 : 무세금, 무제한 외환 거래, 100% 소유권 부여, 사우디와 러시아 등 산유국 오일 달러 유치

#### 2. 두바이 개발 9대 프로젝트

##### ① 버즈 두바이(Burj Dubai)

- 2005년 1월 착공 2008년 12월 준공 예정 / 계획 건설비 8억 7,600만 달러 (실제 10억 달러 예상)
- 정확한 높이는 비밀이며 약 160층 높이 800m (63빌딩 249m보다 3배 이상 높음) / 층당 3일 공사, 첩탑 리프트업 공법 피크 타임 관리 150명, 노동력 3,500~4,000명
- 대지면적 3만 2,000평, 연 건평 15만 평 (서울 코엑스몰 36,000평의 4배)
- 1~39층 호텔, 40~108층 고급 아파트, 109층 이상 사무실과 전망대 (현 100% 분양 상태)
- 설계사 미국 SOM, 시공 리딩 컴퍼니 삼성
- 주변에는 인공호수와 첨단 주거 쇼핑 시설 건설
  - 18만평의 쇼핑부지와 21만평의 주차장을 갖춘 더 몰(The Mall), 25,000평 부지에 초호화판 아파트 9개동이 건설되는 The Residence, 전통적인 아랍풍 고급 빌라 400가구가 들어서는 Old Town 등 4개 프로젝트 등 총 30억 달러 투입
  - 1931년 미국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102층 (381m, 엘리베이터 67개) / 1972년 세계 무역 센터 110층 417m / 1974 시카고 시어스 빌딩 110층 443m

- 1998년 말레이시아 시티센터 KLCC 88층 452m / 1998 상하이 진마이 타워 421m / 2004년 타이페이 금융센터 101층 508m
- 2010년 준공 목표인 모스크바 타워오브 러시아 125층 649m / 중국 상하이 세계금융센터 101층
- 우리나라 - 송도국제도시 인천타워 151층 610m (53,000평 부지 연면적 23만 5,000평, 호텔, 사무실, 컨벤션 센터, 쇼핑 : 미국 포트만 홀딩스, 현대건설, 삼성물산 공동 추진) / 부산 롯데 그룹은 부산시청 자리에 부산 제2롯데월드 (107층 494m) / 부산 솔로몬 그룹은 벅스코 내 부산 월드 비즈니스 센터 (110층 500m)



〈그림 5〉 버즈 두바이 타워

② 버즈 알 아랍 (Burj Al Arab) - 아랍의 탑

- 두바이 세계 관광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셰이크 모하메드의 첫 작품 /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진이 찍힌 전략적 호텔
- 두바이 남쪽 15Km 지점의 주 메이라 해변에서 280m 다리 연결
- 28층 321m : 로비에서 천장까지 탁 트인 빈 공간, 2층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옆 수족관, 2층 로비 분수쇼, 호텔 내부 장식 24K, 황금 기둥 장관
- 객실은 모두 복층 구조, 객실 유형 7가지, 가장 싼 객실인 51평 투숙 150만원 / 로열 스위트 235평 1,000만원 (1,500~7,332달러) / 최소 투숙율 60% 유지



〈그림 6〉 버즈 알 아랍 호텔 전경

③ 팜 아일랜드

- 해변 최대 접근을 위해 야자수 모양의 인공 섬 3개를 조성하고, 섬 위에 주거 및 위락 시설 갖춘 종합관광 레저 타운 건설

- 고급 호텔, 해상 주거단지, 아파트 마리나, 워터 테마 파크, 쇼핑몰, 스파, 스포츠 센터 등 2008년까지 완공 예정
- 정부주도로 신속히 사업이 추진되며 친투자 환경정책으로 민간분양 100% 달성
- 인접 육지는 경제자유구역, 미디어 시티, 워터 파크 등을 개발하여 관광, 레저, 비즈니스가 통합된 중동 최대의 휴양 비즈니스 메카로 육성



〈그림 7〉 버즈 두바이 타워

■ 팜 주메이라 (palm jumeira) : 중앙에 입지

- 2004년 분양 후 현 입주 중인 최초의 인공 섬으로 규모가 가장 작음 (25Km<sup>2</sup>-약750만평), 지름 5.5Km<sup>2</sup>인 줄기와 17개의 야자 잎 (모든 집이 자신만의 비치룰 갖도록 설계)
- 초승달 모양의 방파제와 고급 빌라, 데이비드 베컴과 마돈나가 빌라를 구입 / 35개 특급호텔, 고급 빌라 아파트, 고급 쇼핑, 요트장

■ 팜 제벨 알리 (palm jebel ali) : 남단에 위치

- 지름 7.5Km, 면적 52.5Km<sup>2</sup>, 줄기와 17개 야자 잎
- 섬 복판 고층 빌딩 중심(도널드 트럼프 타워 예정)

■ 팜 데이라 (Palm Deira) : 북쪽에 위치, 2014년 완공 예정

- 지름 14.5Km, 면적 200Km<sup>2</sup>, 줄기와 41개 야자 잎
- 총 8,000개의 2층짜리 타운 하우스, 뉴욕 맨해튼보다 큰 초대형 사업이나 정부의 강력한 추진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음

④ 더 월드 (The World)

- 두바이 해변 8Km 떨어진 해양 (팜 주메이라와 팜 데이라 사이)에 가로 9Km 세로 6Km 면적 50Km<sup>2</sup>에 300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세계지도를 만들어 각국 고유의 고급주택, 호텔, 쇼핑몰 건설
- 섬의 모양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북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6대주 6대륙 국가를 본뜨고 아메리카, 중국 등 큰 나라는 여러 조각으로 나눔



〈그림 8〉 더 월드 (The World)

- 총 4억 달러 투자로 2008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5년 현재 30개 섬 분양 (9,000평, 약 2,400만 달러 소요)

### ⑤ 두바이 랜드 (Dubai Land)

- 두바이에서 아부다비 쪽 사막에 건설 : 총 4,271만평으로 미국 디즈니랜드의 6배, 두바이정부가 2018년까지 관광객 1억 명 유치 달성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 대형 유리 돔 안에 인공으로 열대우림 및 스키 슬로프, 박물관 등 건립, 영국의 할크 로우사가 총 설계 담당, 2018년까지 모든 프로젝트 완료 (6개 테마지역에 총 사업비 50억 달러 소요)



〈그림 9〉 두바이 랜드 위치

- 첫째, Attraction & Experience World 프로젝트는 우주과학박물관, 실내 인공스키장, 실내 초대형 인공파도 풀장, 스포츠 아웃도어 월드, 자동차 경주장, 폴로 경기장, 18홀 골프코스
- 둘째, Eco-tourism World는 동물원 공룡월드 모래언덕 호텔, 사막 사파리 등 12개 자연 체험장
- 셋째, 기적의 펠콘 시티(Falcon city of Wonders)는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바빌론 공중정원, 알렉산드리아 등대, 중국의 만리장성, 프랑스의 에펠탑,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 7대 불가사이를 실물 크기로 재현
- 두바이 랜드가 완공되면 하루 평균 20만 명, 연간 7,280만 명 관광객 유치 가능

### ⑥ 스키 두바이 (Ski Dubai)

- 세계 최대 쇼핑센터인 “Mall of the Emirates” 내 건설 : 높이 62m, 길이 400m, 면적 3,000m<sup>2</sup>로 세계 3위 규모 (2005. 10월 완공)
- 10억 달러 투입 인공 슬로프 5개, 최대 1,500명 수용 / 천장에는 제설기가 눈을 평평 쏟아내고, 고드름, 여름 동굴, 겨울 폭풍 재현 (스키장에는 50m 두께의 눈 6,000톤 적설)
- 실내 온도 영하 6도, 외부는 60도로 온도차 유지 위한 특수벽 제작 (추위적응 시설 보유)

### ⑦ 하이드로 폴리스(hydro-polis)

- 주매이라 해변 200m 떨어진 해저에 세계 최초 해저호텔 건설
- 총 5억 5천만 달러 투입, 버즈 알 아랍 호텔과 팜 아일랜드 연계 대규모 해양 파크 건설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두각
- 객실 220개 초호화 특급 호텔로 스파, 컨벤션, 해저 빌라 등 부대시설, 육지와 호텔을 잇는 300m 해저 터널, 잠수함 선착장 등
- 18cm의 투명 유리, 3층 철근 콘크리트, 플렉시 그라스라는 비행기 창문용 유리 사용
- 폐쇄적 공포감 해소를 위해 인공으로 낮과 밤을 연출하는 시스템 구축

### ⑧ 에미리트 골프클럽

- 1988년 개정, 두바이와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사막 오아시스 골프장 / 미국 골프장 디자이너인 '칼 리튼'이 참여하여 건설, 미국 골프 다이제스트가 선정한 세계 100대 골프장
- 1989년부터 유럽골프투어 두바이 데저트 클래식 유치 "타이거 우즈, 어니 엘스" 등 초청 유명세
- 골프장 관리를 위해 땅속에 30.5Km 파이프라인 매설, 700개의 스프링쿨러를 작동시켜 석유보다 비싼 물을 하루에 1,000만 리터 공급  
(골프장은 비록 적자이나 세계적 관광명소 전략에 큰 기여한다는 평가)

### ⑨ 시티 (city)

- 지식경제시대 대응을 위한 "두바이 테크놀로지-미디어 프리존" 조성 (Dubai Technology-Media Free Zone)
  - 자유지역의 핵심은 인터넷 시티, 미디어시티 및 지식마을 등이다.

#### ■ 인터넷 시티 (2000년) : e-business와 정보통신기술산업의 허브 건설 지향

-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컴팩, HP, IBM, 마스터카드, 캐논, 아라비아콤 등 700개 회사가 입주하여 약 14,000명의 인력 근무 중
- IT 강국 인도가 지척에 있어 신기술 노하우, 값싼 고급 인력 기반 풍부

#### ■ 미디어 시티 (media city, 2001년) : 창조하는 자유, 성인물 시청 허용 등

- BBC, CNN, CNBC, Sony, EMI, 로이터, 맥그로힐, MBC 등 850개 업체 15,000여명 근무

#### ■ 지식마을 (knowledge village) : 인터넷 시티, 미디어 시티의 전문 인력 공급을 위한 대학촌

- 현재 영국 미들섹스대학, 호주 서던 퀸스랜드 대학, 미국 피닉스대학교, 인도 마하트마 간디 대학 등 20여개 대학 학생 10,000 명 (유학생 약 30%)

■ 헬스케어 시티 (health care city, 2010년 완공)

- 하버드 및 존스 홉킨스대학과 연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연간 750억 달러의 중동 의료시장 진출 및 세계적 의료 허브 구상
- 11만평 부지에 종합병원, 생명과학 연구소, 의과대학, 간호대학, 스포츠센터가 들어서고 최고급 호텔과 레스토랑, 쇼핑몰 입주

※ 시티는 free zone으로 사업인가 후 50년간 법인세는 물론 소득세와 관세가 모두 면제. 공장과 사무실 등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인정, 본국 송금 무제한 허용, 아랍제국의 스폰서 제도에는 적용되지 않음



〈그림 10〉 지식마을 전경 및 조감도

### 3. 셰이크 모하메드로부터 배우는 리더십 10계명



1. 불가능이란 단어는 사전에 없다.
2.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는다.
3. 시인의 마음으로 국가를 경영한다.
4. 최고의 브레인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는다.
5. 환경에 맞추어 목표를 세우지 않고 목표설정 뒤 환경을 바꾼다.
6. 역 발상을 높이 평가한다.
7. 주변 강대국을 최대한 활용한다.
8. 자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한 정책을 강구한다.
9. 전광석화처럼 강력하게 추진한다.
10.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다.

자료 : 최홍섭, 두바이 기적의 리더십, W 미디어, 56-7, 2006.





## Part 3.

실용과 첨단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서유럽 공중화장실

권영현 \_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Part 3.

### 실용과 첨단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서유럽 공중화장실

권영현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1. 연수 개요

### 1. 연수 일정

#### 1) 연수 일정

- 연수지역 :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등 서유럽 5개국의 수도 중심
- 연수일정 : 2008년 4월 24(목) ~ 5월 3일(토)

#### 2) 연수 목적

- 여성 등 수요자 중심의 고품격 문화가 살아있는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선진유럽의 관리 시스템 벤치마킹
-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및 여성, 장애인 등 복지 공간 마련에 관한 전문지식 습득과 이와 관련된 자료 수집
- 공중화장실 실무자의 사기양양과 국제적 안목 배양 및 파트너십 구축

#### 3) 참가자

- 충청남도 수질관리과장 김원배(단장), 충남발전연구원 산업디자인팀장 권영현(자문위원) 등 총16명

## II. 연수 리포트

### 1. 실용성이 담긴 영국 공중화장실

#### 1) 답사대상

- BTA (British Toilet Association)의 협회 활동 브리핑
- 웨스트민스트구의 시범 공중화장실, 보편적인 공중화장실, 건물 내 공중화장실, 히드로 공항 화장실, 호텔 내 개방화장실, 박물관 내 공중화장실 등

#### 2) BTA (British Toilet Association)

- BTA(British Toilet Association) 디렉터 마이크 본(Mike Bone), 의장 리차드 치즈넬(Richard Chisnell) 및 구청 담당자 참석함
- 1847년 런던에 대형 하수도 시설이 완성되자 시민들에게 모든 분노를 하수시설에 방류해야 한다는 법령을 발표하면서 현대식 화장실이 정착되는 계기가 됨
- 1850년 런던에 첫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었을 정도로 현대식 화장실 역사가 깊음
- 범죄, 취객소동 등 관리상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화장실 표시를 없애 다중이용을 막게 되면서 해당 상점, 음식점 등의 고객만이 개별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음
  - 10년 전에 비해 공중화장실 수가 절반으로 감소하고 있음
- 관광객 등 이용객이 집중되는 장소에 공중화장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공중화장실의 확대·보급에 앞장서는 단체인 영국화장실협회(BTA, British Toilet Association)가 등장하게 됨
- 1987년부터 활동해오다 1999년 자선적, 스폰서 격으로 세워졌으며, 현재는 60개의 지방정부와 38개의 상업회사를 포함한 150개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협회의 주요 기능은
  - ① 화장실 관리실태 조사 및 평가
  - ② 화장실 설치 관리 기업체 자문 제공
  - ③ 화장실 개선 캠페인 전개
    - 영국에는 화장실 설치규정이 따로 없으며, 오히려 공중화장실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협회는 각종 매체와 방안을 동원한 캠페인을 통해 깨끗하고 격조있는 시설의 화장실 문화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방정부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권고하고 관련 기업에게도 자문역할과 코칭
- 웨스트민스터 시(우리의 구)는 런던에서도 가장 화장실 보급에 적극적인 지방정부임
  - 25개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며, 연간 1,400만 명 이용하고 있음
  - Loo of the year 발표에서도 높은 순위로 선정되고 있음
- 화장실 관리예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70억 원 정도이며, 이중 50%는 청소회사 위탁비로, 50%는 화장실시설 유지 관리비로 소요됨

-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화장실 당 2명의 관리자가 매일 파손수리 및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첨단 현대식 시설과 장애인·여성·노약자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음
- “올해의 화장실”(Loo of the year) 선정
  - 1987년 호텔과 레스토랑 부문 시작, 2008년 60개의 다른 부문 참가
  - BTA에 의해 운영
  - 2007년 1,500개 단체 참가, 시상식장에 600명 이상 내빈 방문
  - 선정 화장실은 별 3, 4, 5개로 등급화 함
  - 전국 부문은 접근성, 베이비체인지, 남녀용품 등 개인 항목 다름
  - 2008년 새로운 시상식은 기저귀나 생리대 등 교환설비, 가족에 적합한 설비, 노인층에 적합한 설비 등을 다름
  - 12개 트로피 수상 (9개 올해의 화장실, 3개 참가상)
  - 영국 내 3,500개 매체를 통한 주 런칭 및 결과 내용의 캠페인 (인터넷, 잡지, TV매체 등을 통한 활발한 홍보 활동)

### 3) 구조 및 기능적인 면

#### (1) 입지 및 건물 유형

- 기존의 공중화장실 외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대형 건물 등의 화장실의 개방적인 활용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공중화장실의 부족으로 업소명이 기입된 유도사인을 부착함
- 독특한 형태나 재질의 사용이 아닌 공공디자인 차원에서 주위의 건축물과 조화된 건축 형태를 보여주고 있음
  - 증축시에도 기존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시공하고 있음
-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합성물인 가공재료의 사용이 아닌 목재 등 자연 재료의 사용이 두드러졌음

#### (2) 시설 및 용품

- 부스의 내부구조를 살펴보면 장식적인 요소가 배제된 실용적인 간략한 구조로 되어 있음
- 소변기의 유형은 전부 벽걸이형으로 되어 있으며 배수 구조나 변기의 형태에서 다양한 종류가 사용되고 있음
- 부스문의 잠금장치는 견고하면서도 단순한 구조가 일반적이었음
- 세면기의 설치 수나 유형에서 독특한 실용성을 보임
  - 세면기의 설치수가 변기와 대비하여 많이 설치되어 있음
  - 박물관 등 규모가 큰 화장실의 경우에는 내부 중앙에 집중 설치하여 동선의 유도차원을 넘어서 화장실 구조의 중심을 이룸
  - 액체비누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비누 공급 방식은 별도로 설치된 외장형, 세면기와 일체형 또는 벽면에 내장된 유형 등 일률적이지 않음

- 손 세척, 비누칠, 건조과정이 한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세면 설비가 있어 동선이동이 절약됨으로 사용 시간을 줄일 수 있음
- 부스 안에 설치된 전용휴지통은 뚜껑 밀폐구조로 악취를 줄이며 좁은 공간 활용에 적합한 직사각형 구조이며 내부나 다른 설비의 색상과 조화를 이루는 색상으로 제작되었음

### (3) 규모 및 설치 위치

- 영국인의 신체에 비해 동양인이 사용해도 좁아 보이는 컴팩트한 크기가 일반적임 (작지만 사용상 불편함이 없는 구조)
- 소변기는 벽걸이형으로 작고, 설치 위치도 낮게 설치되었음
  - 컴팩트한 크기로 인해 이용자가 접근하기 수월하고, 조심성을 유발하여 큰 규격보다 오히려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세면기의 크기 역시 작은 유형이 일반적임
  - 작은 크기와 보울 내부로 향한 살수 방향, 적절하게 낮은 수압 등으로 물이 튀지 않아 청결이 유지되고 있음
  - 세면 등 동작이 큰 용도가 아닌 간단한 손을 씻는 용도에 적합함
  - 부스내부의 배수 레버를 변기 몸체가 아닌 변기 뒷편 벽면에 부착하여 위치 파악이 용이하며 용무를 마친 후 뒤돌아서서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음

## 4) 정보전달 면

- 픽토그램 (그림문자) 사용이 보편화, 문자 사용 최소화

### (1) 외부 유도 기능

- 공중화장실의 외부 유도 사인은 소극적일 정도로 작은 규격임 (도로 표지판 등 다른 사인 역시 크지 않은 편이 일반적)
- 상가 등 건물 내 공공 화장실의 유도사인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2) 시설 안내 기능

- 등이 매립된 픽토그램 유형의 사인이 일반적이며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 백색 바탕에 검정색상의 그림 또는 문자로 표시하고 있음 (교통 표지판 등도 조명 설치가 일반적임)

### (3) 내부 상세 기능

- 이용방법, 화장실 유형, 사용 표시창 등 표시물은 부착하지 않음
- 부스의 사용표시는 외부측 손잡이 부에 내부에서의 사용(잠금) 여부를 색상으로 표시하고 있음 (별도의 문자 없이 사용중이면 적색, 비어있으면 청색)

## 5) 사회적 약자 배려 방안

### (1)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 소변기, 세면기, 설치물 등의 설치 높이가 동양인이 사용하기에도 적합할 정도로 낮게 설치하고 있음

## (2) 장애인 시설

- 시범 공중화장실의 경우 경장애용은 일반 화장실 부스보다 조금 여유 있는 공간, 양측 벽면에 가이드 바를 설치했으며, 일반 장애인 화장실외에 중증 장애인을 위한 이동 리프트, 베드, 커튼 등이 갖추어진 시설도 있었음 (픽토그램은 옷걸이 형태의 리프트로 표현)
- 실질적인 관리와 설비가 이루어짐
  - 장애인 화장실은 상시 개방이 아니고 호출 버튼을 누르면 관리인이 도움을 줌
  - 화장지의 사용이 원활하게 가이드 바와 근접하여 디스펜서를 설치
  - 벽에 부착된 비상버튼 외에 위급한 자세에서 적색 손잡이를 당길 수 있는 비상호출 로프를 함께 설치했음  
(벽면의 호출 버튼은 팔과 손 동작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로프식은 팔이나 손에 닿기 용이하고, 바닥에 넘어진 상황에도 이용할 수 있음)
  - 단순한 파이프 형태의 가이드 바를 넘어서 메카니즘의 완성도가 있는 가이드 바의 설치가 대부분임 (고무 재질로 표면 처리)

## (3) 여성 우대 기능

- 설치 번기수는 남성과 동일함 (여성의 외부 활동 최근 증가 추세)
- 남성 비교면 에서는 우리나라 여건보다 미진한 면이 있음
- 터미널, 박물관 등 여성 이용객이 많은 장소에서는 사용이 지체되어 줄서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음
- 남녀 화장실이 격리된 경우에는 기저귀 교환대가 여성화장실에만 설치되고 입구 표지판에 양성 모두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였음

## 6) 관리적인 면

### (1) 관리 인력

-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1명, 규모가 큰 경우 남녀 각 1명씩 배치되어 있음
  -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관리인이 반드시 상주하여 도움
  - 관리인이 상주하기 때문에 사용시간을 입구에 표시함
  - 사용자 외에 노숙자 등이 다른 용도의 사용을 제지하고 있음
  - 유료화장실이 보편적임

### (2) 구조 및 기능

- 소변기, 대변기, 세면기 등 배관을 벽면에 매립하지 않고, 공간을 두고 패널 설치하여 배관의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게 하고 있음  
(배관의 요석이나 트랩의 이물질 제거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
- 안전 관리를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제한되기도 함

- 부스문의 하단부가 내부가 보일 수 있게 개방되어 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함
- 화장실 입구 및 내부에 CC카메라를 설치하여 안전관리하고 있음
- 변기색상과 대조를 이루는 검정색 계통의 타일을 배경으로 하여 변기 위치나 크기의 명확성을 주어 사용자가 신중하게 사용 하도록 유도함 (대상에 집중하게 하여 청결히 사용)

### (3) 자원 절약

- 일반 주택양식과 동일한 건물로서 인공조명에 의존함 (기후의 특성상 입구 사인부터 전기의 사용이 이루어짐)
- 실질적인 물 절약
  - 변기가 작기 때문에 물 사용이 적은 절수형 필터식 소변기가 있음
  - 물 절약형 대변기는 볼 수 없었으며, 배수레버(버튼)는 소변과 대변을 구분할 수 있게 된 장소가 많았음
  - 세면기의 수압은 손 씻기에 적합하여 물 절약은 물론 용이한 관리로 이어짐

## 2. 도시와의 조화, 프랑스 공중화장실

### 1) 답사 대상

- JCDECAUX (파리 오토매틱화장실 설치 관리 업체)의 현장 설명
- 파리 구시가지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공중화장실, 궁전 등 관광지 공중화장실, 상가 내 화장실, 박물관 공중화장실 등

### 2) JCDECAUX사의 오토매틱 화장실

- 1964년 창립, 오토매틱 화장실, 버스쉘터, 옥외광고물 관리
- 3대 정신 : 1. 청결, 2. 디자인, 3. 리노베이션 (개발 혁신)
- 개보수나 신축이 어려운 파리지 건축물이나, 도시 구조 여건상 화장실의 신축이 어려움 (지하 화장실, 소형 화장실)
- 공중화장실이나 도시시설물의 설치가 제한적임 (가능한 설치하지 않으며, 행정당국의 승인 절차도 까다로움)
- 도로중앙분리대나 버스정류장 부근에 주로 설치함
- 현재 설치 사용중인 모델은 1981년 개발된 구형으로 다중이용에 따른 견고, 청결, 안전의 제작 개념이 담겨 있음
- 1인 사용 미니 화장실로 사용 버튼을 누르면 ▶슬라이딩 문 개방 ▶사용자 입장 ▶문이 닫힘 ▶ 사용 후 ▶퇴장 ▶자동세척 (변기 커버에서 바닥까지 3차례 물 세척 후 송풍 건조, 30-40초 소요), 본래 유료(동전)였으나 무료로 전환 (시에서 부담)
  - 화장지, 세면, 실내 향수까지 자동 공급되는 오토매틱 화장실

- 200~250명 사용/대당, 1일
- 자동시스템인 만큼 안전을 고려 (25kg 미만의 아동 사용시 문이 자동 닫힘이 안 되며, 사용 후 15분이 지나면 개방, 5분 전 예고 및 5분 후 완전 개방되어 실내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응)
- 주재료는 시멘트(외벽), 금속(도어 등), 석재, 도기 등 견고한 재질을 사용하고 색상은 도시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는 색상을 채택
- 이용 장애 발생시 관리자의 휴대폰으로 자동 연결되어 신속 대처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
- 무장애 개념의 부재를 제외하면 완벽한 시스템임
- 2009년 새롭게 보완된 신형으로 대체할 예정임 (400개소 설치)
  - 실내 디자이너인 패트리 주앙에 의해 디자인 됨
  - 개선 포인트, 장애인의 사용이 용이하게 공간을 넓고, 휠체어로 사용이 가능한 무장애 (Barrier Free) 화장실, EU의 기준안 준수

### 3) 구조 및 기능적인 면

#### (1) 입지 및 건물 유형

- 보존 대상인 전통 건축물이 대부분인 파리의 여건상 독립된 구조의 공중화장실 신축은 불가능하며, 건축물의 내부 역시 화장실로의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지하에 위치한 공중 화장실이 대부분임
- 런던의 실상과 마찬가지로 공중화장실의 수가 적으며,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도 볼 수 있음
  - 현재 파리시의 공중화장실은 공원 100개소, 박물관 134개소, 문화재 시설 200개소가 있음

#### (2) 시설 및 용품

- 화장실 내부나 내부구조에 단순한 기능적 설비만 설치되어 있음
- 소변기의 단순함은 기본적인 보울만 보이고 센서 등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디자인이 간략 단순하게 전개되고 있음
- 이용자의 수가 많은 장소에서는 세면기의 벽면 설치보다는 중앙에 집중하여 설치하고 있음
- 타일색상과 대조가 되는 검정색상의 고무재질이 코팅된 가이드 바를 사용 대상의 명확성과 감각적 만족감을 주고 있음
- 고속도로 휴게소
  - 장애인화장실시설 보다는 영유아시설에 비중을 두고 있었으며, 캠핑카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위해 화장실에 샤워시설을 갖춘 점이 특색 있었음
  - 영유아실의 설비 및 구조는 고급자재의 사용과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기저귀갈이대 개념에서 벗어나 1회용 침대시트, 세정시설, 간단한 목욕용품 등을 비치하여 보호자 및 유아들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음

- 액체비누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음(세제 향수류의 독보적 국가)
- 부스내부에 설치 된 화장지 디스펜서나 휴지통의 구조 및 색상이 내부 공간과 조화를 이루게 디자인되었음

### (3) 규모 및 설치 위치

- 영국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규모로 사용상 불편함이 없는 구조임
- 소변기는 벽걸이형이 전부로 낮게 설치되었음
  - 컴팩트한 크기로 인해 이용자의 접근성이 좋고, 조심성을 유발하여 오히려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세면기의 크기는 작은 편이며 가랑이가 중앙이 아닌 우측에 부착되어 물방향이 왼편으로 향하는 좁은 가로형 세면기가 있는 등 세면기의 소형화는 일반적인 추세임
- 한 대변기 부스 내부에 변기, 소형 세면기, 거울 등 일체 설비가 갖추어진 토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사례도 있음

## 4) 정보전달 면

- 픽토그램(그림문자)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특히 다국민들이 방문하는 박물관 등에서는 픽토그램 만으로 표시하고 있음

### (1) 외부 유도 기능

- 픽토그램, 또는 WC 등으로 표시

### (2) 시설 안내 기능

- 작고 단순하며 단색을 사용하고 있음. 실내 설치된 사인은 등 매립 또는 광섬유 소재의 판을 사용하여 격조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냄
- 가능한 문자로 설명은 하지 않음

## 5) 사회적 약자 배려 방안

### (1)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 소변기, 세면기, 설치물 등의 설치 높이가 동양인이 사용하기에도 적합하게 낮게 설치되어 있음

### (2) 장애인 시설

- EU의 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도움 요청시 지원을 할 수 있게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었음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된 경우)
- 장애시설 보다는 영유아실에 대한 비중이 높아 보임(고속도로 휴게실의 별도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경장애용만 설치)

### (3)여성 우대 기능

- 궁전 등 관광시설에서 여성 이용 수요에 대한 대응이 없어 길게 줄 선 모습을 볼 수 있음
- 여성용에 대한 배려나 시설의 차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6) 관리적인 면

### (1) 관리 인력

-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음
  - 영유아실의 경우 2시간 간격으로 관리카드에 기재하고 있음 (실질적인 관리)
  -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은 무료, 일정한 요금 없이 봉사료를 받는 경우와 유료화장실로 다양한 요금체계를 보이고 있음.

### (2) 구조 및 기능

- 다중이용 장소의 경우 벽체나 핸드드라이어 같은 설비품의 외관 소재가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 가혹한 조건에서 적합함

### (3) 자원 절약

- 파리는 일찍부터 중수도를 사용 (화장실용에 이용)
- 실질적인 물 절약이 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었음
  - 물 절약형 대변기는 볼 수 없었으며, 배수레버(버튼)는 소변과 대변을 구분할 수 있게 된 장소가 많았음
  - 세면기의 수압은 손 씻기에 적합하여 물 절약은 물론 용이한 관리로 이어짐

## 3. 네덜란드 축제장의 간이 화장실

### 1) 답사 대상

- 여왕의 날 축제를 맞은 암스테르담 시내의 간이 화장실의 유형과 실태를 조사
- 중앙역, 잔센스칸스 민속마을 등 관광지 내 공중화장실, 호텔 공중화장실

### 2) 여왕의 날 (Koninginnedag, Queen's Day)

- 4월 30일은 네덜란드의 주요 축제일인 “여왕의 날”로 현 여왕 베아트릭(Beatrix) 여왕의 모친 줄리아나(Juliana)전 여왕의 생일임
- 온 국민이 오렌지색으로 장식하고, 거리로 나와 즐기는 대규모의 축제일임 (왕실인 Orange가의 상징색을 오렌지로 하였음)
- 암스테르담은 전차나 자동차가 다니지 않고 시내 전체가 노점. 마시고 노래 부르는 사람의 물결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축제의 장으로 변함

### 3) 이동형 화장실의 유형

#### (1) 노출형 (남성용 소변기)

-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형태의 간이 소변기로 사각 기둥뿔 형태의 4면에 약간의 가림막만 주어 노상에 설치하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일체형 소변 화장실 (회색, 청색, 적색)

- 4개 소변대 중 1개는 어린이용으로 낮게 제작됨
- 축제 기간 중 시내 곳곳에 설치되며 주로 젊은이들이 이용함
- 프라이버시 문제로 우리 정서와는 다른 면이 있지만 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하고 운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별도의 용기 없이 속이 비어 있는 구조라 내용물이 채워짐
- Port-o-let 사에서 운영함. [www.portolet.nl](http://www.portolet.nl)

## (2) 기업홍보형

- 축제 기간 중 기업에서 비용을 들여 설치되는 이동화장실로 무료로 시민에게 제공
- 이동식이지만 수세식, 남녀구분, 세면시설 등 설비가 간결하게 설치된 일체형 구조
- 기업 홍보를 위해 배너 설치, 홍보물 증정 등의 행사가 병행

## (3) 단독부스형

- 우리나라의 부스 단독 부스형 화장실로 남녀 구분이 있으며, 적십자사 등에서 무료로 운영

## (4) 컨테이너형

- 차량으로 연결하여 이송하는 컨테이너 구조로 대여회사에서 운영하며 벽면에는 광고물을 부착하지 않고 설치

## 4) 형태 및 시설

- 특이한 형상의 건축물이 아닌 일반 건축물 유형 채택(민속마을에 서는 민속 가옥형태로 다른 건축물과 구분하기 어려움)
- 호텔 화장실을 제외하고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첨단시설의 설치는 적은 편임
- 이전 사용한 변기 시트를 닦을 수 있는 시트 크리너액이 분출되는 용기가 설치되어 있어 위생면에서 향상된 이미지를 줌

## 5) 정보전달 면

- 입구 사인은 문자 위주로 Toiletten, 또는 Toilet으로 표기함
- 문자에 의한 설명은 적고, 그림 등 도해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음

## 6) 사회적 약자 배려 방안

### (1)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 네덜란드인은 북유럽인종(Nordic)으로 다른 유럽인종에 비해서도 장신이기 때문에 일반 상가 업소의 화장실 설치 위치가 높음
- 어린이와 성인의 신체 차이로 어린이 전용 화장실을 설치함

### (2) 장애인 시설

- 일반 업소 화장실에서는 별도의 장애인 화장실이 미설치된 경우도 많음

- 장애인용 변기 설치는 좌우 공간의 여유를 두고 설치하고 있음
  - 변기가 벽면과 멀어 화장지 디스펜서를 벽에 설치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이드 바에 다지점 설치하여 실질적인 편의를 도모함
- 단순한 파이프 형태의 가이드 바를 넘어서 메카니즘의 완성도가 있는 가이드 바가 설치되고 있음
-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2시간 간격으로 점검하여 기록함

## 7) 관리적인 면

-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으며, 유료화장실이 보편적임
- 이동화장실 대행사에 의해 운영함

## 4. 독일의 첨단화장실 시스템

### 1) 답사 대상

-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시스템 SANIFAIR 및 프랑크푸르트 시내 FES시스템 견학
- 쾰른, 프랑크푸르트, 하이델베르크 관광지 화장실

### 2) SANIFAIR

- SANIFAIR는 독일 내 고속도로(Autoban) 휴게소에 설치된 참신함을 주는 색다른 화장실 시스템
- 현대 감각의 디자인과 첨단설비, 청결한 서비스가 골자인 신개념 화장실로 Baden-Wurttemberg, Bayern, Brandenburg, Hessen, Nordrhein-Westfalen, Rheinland-Pfalz, Schleswig-Holstein, Niedersachsen 등 지역에 300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SANIFAIR의 특징은 설비 현대화와 사용 영수증의 활용에 있음
- 첨단인 고품질 첨단 설비품을 사용하며 그중 자동 시트 세척 장치는 획기적인 설비품이라 할 수 있음
  - 대변기의 사용이 끝나면, 시트 후방부 상단으로 세척면이 달린 크린 패드가 턴테이블 위의 아암처럼 자동으로 내려앉게 되고, 시트는 스스로 회전을 하면서 세척을 마친 후 패드가 다시 원위치 되는 자동 시트 세척 장치임
- SANIFAIR 가맹 화장실 이용시 0.5€를 지불하면서 받게 되는 영수증을 지정된 장소(대개 지역 휴게소 내 상점)에서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음
  - 본래 소수 유색 인종이 관리하며 사용료를 받는 유료화장실이었으나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해당 업소에서 일정 부분 비용의 부담이 이루어짐
  - 업소에서는 비용을 부담하는 측면은 있지만 0.5€ 짜리 영수증으로 다른 판매를 촉진하는 기능을 하게 됨으로 화장실이라는 기피 시설이 지역 상권과 커뮤니티를 향상시켜 주는 촉매제가 됨

- 도심지역에서는 첨단 화장실인 FES시스템이 운영되며 설비는 동일하나 영수증 이용이 다름
- 프랑크푸르트 시내의 FES화장실은 지하에 33㎡ 규모로 설치하는데 15억 원이 소요되었음
  - 광장 지하에 설치하여 외관을 보호하고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화재를 대비한 비상구 마련
- 시설관리공단에서 50%, 시에서 50%를 지원하여 관리비도 50:50으로 유니폼을 착용한 관리인 2명이 상주하여 근무함
- 안내데스크를 두고 소변 및 여자화장실은 무료이고 남성 대변만 0.5€를 받고 있음

### 3) 구조 및 기능적인 면

#### (1) 입지 및 건물 유형

- 시설이 낙후되고 관리가 소홀한 국도변 무료화장실에서 최첨단 화장실까지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음
- 도심권에서는 파리와 같이 지하 설치가 일반화되고 있음

#### (2) 시설 및 용품

- 이용자의 동작을 최소화하는 구조 설계로 되어 있음
  - (두드러진 형태나 색상을 채택하지 않음)
  - 간략하고 단순한 디자인의 벽걸이 소변기
  - 세면기의 소형 (싱크대 형식의 탈피하여 단독형과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게 닿는 면의 곡선화, 하단 배수파이프를 벽쪽으로 이동 설계)
  - 별도의 가랑이 없이 세면기 보울에서 직접 급수되는 구조와 적절한 수압으로 청결한 사용을 유도
- 소변기의 유형은 전부 벽걸이형이며, 최근 설치된 SANIFAIR, FES의 대변기 역시 벽걸이로 설치되고 있음
- 부스문의 잠금장치는 견고하면서도 단순한 구조가 일반적임
- 완전 자동 센서배수 구조에서 이용자 터치식으로 전환되고 있음
  - 완전 자동센서의 경우 이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초래 (사용자에 따라 배수 습관이 다름)
  -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으며 간단한 터치로 작동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음 (사용자의 의지를 중시)
- FES의 경우 고급 분위기의 안내 데스크, 유리 소재를 사용함
- 탄창식 다단화장지 디스펜서로 내부 비품의 깔끔하게 정리됨

#### (3) 규모 및 설치 위치

- 설치되는 설비의 이용 높이는 물론 사인 등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의 시선 및 활동력을 감안하여 설치하고 있음

- 세면기의 크기 역시 작은 유형이 일반적임
  - 작은 규격과 보울 내부로 향한 살수 방향이나 보울 내부 상단에서의 살수, 적절하게 낮은 수압 등으로 쓴 씻는 용도에는 적합하며 청결이 유지되고 있음
  - 대변기 배수 레버의 위치가 뒷면에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함

#### 4) 정보전달 면

- 픽토그램의 사용이 보편화, 고속도로 휴게실 입구의 시설 안내도 픽토그램을 활용하고 있음

#### 5) 사회적 약자 배려 방안

##### (1)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 소변기, 세면기, 설치물 등의 설치 높이가 동양인이 사용하기에도 적합하도록 낮게 설치되어 있음
- 아랍권 이민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동양식 변기를 설치하고 있음

##### (2) 장애인 시설

- 거울의 경사 각도를 조절한다든지, 비상벨의 설치 위치 역시 하단 2곳에 설치 실질적인 구조가 되게 배려하고 있음.

##### (3) 여성 우대 기능

- 여성을 위한 설비나 구조상의 배려는 없었음
- 최근 설치되는 FES등 첨단화장실에서는 어린이나 여성을 배려하는 수준 높은 시설이 설치되며, 여성의 화장실이용은 무료임

#### 6) 관리적인 면

##### (1) 관리 인력

- 오물처리 비용, 물 값이 비싼 이유로 화장실의 유료화가 보편적임
- FES화장실의 경우 시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절반씩 인건비 부담

##### (2) 자원 절약

- 빗물을 이용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
- 실질적인 물 절약 (변기의 레버 구분, 세면대의 소형화)
- 학교 등에서 물없는 소변기의 보급 (기존 개념이 아닌 필터에 의해 수분만 배수하고 소변 구성 물질은 정제, 방향제 처리 등)

### Ⅲ. 시사점 및 정책 제안

우리나라의 공중화장실 수준은 괄목할 만한 변화와 외적 성장을 가져왔으나 너무 외관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고 법률이나 조례에 의한 일률적인 조성으로 다양한 사용층, 특히 여성층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 시설 등에서는 설치 기준에 따르는 형식적인 면만 보여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현재의 수준을 넘어서 명품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규격 및 표준을 뛰어 넘는 복합적인 체계와 유연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특히 사후관리를 고려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을 절실히 느꼈으며 이를 위하여 연수에서 보고 느낀 점 가운데 충남도가 주목해야 될 사안에 대하여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함

#### 1) 외관의 간결화

- 지역특색화 및 지역명소로서의 공중화장실 조성 분위기가 팽배하여 외관 위주의 공중 화장실이 양산됨 (내실적인 고급화 미흡)
  - 절제된 형상, 색상, 격조있는 재료의 사용(자연 소재)
  - 조악한 장식보다는 간결하고 사용 위주의 실용성 및 향후관리의 효율성을 지향하여야 함 (광고, 액세서리 등의 최소화)
- 충남도가 '08. 7월부터 도입할 예정인 첨단 이동식 화장실의 외관 등은 도입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시·군 홍보 면으로 활용하다 보면 격조가 낮게 될 우려가 있음)
- 도심인 경우 지역, 도시경관과의 조화 유지를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현재 까지는 지상만 고집하다보니 부지문제 등으로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음)
- 보존 건축물을 보유한 문화재 경관 지구 등에서는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이동 가능한 충남 고유의 화장실 유형 개발이 요구됨

#### 2) 안내 표지판의 표준화

- 외부에서 화장실을 인지하고 유도할 수 있는 표시 기능(유도간판)이 미흡하고 일관된 형태를 사용함(기호화가 될 경우 큰 규격이 불필요함)
  - 도 단위의 픽토그램을 비롯한 사인체계의 마련이 요구됨 (일정한 정보체계를 의미하며 사용자의 편의와 품격화로 이어짐)
  - 남녀노소 내·외국인 등이 모두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화장실 표시의 표준화와 통일화 필요 (남녀화장실, 다목적화장실, 개방화장실, 간이화장실 등)
  - 화장실 이용과 관련된 정보는 공간의 여유나 이용자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입구에 표시하고, 내부에는 문안 등 표시를 최소화
  - 부스의 사용표시는 시각적으로 빨간색은 '사용중', 파란색은 '비어있음' 을 나타내도록 표시를 단순화

### 3) 구조 및 설비의 단순화

#### (1) 작고 편리한 구조

- 여유 공간이 필요한 지점과 컴팩트한 공간이 적합한 지점이 있음에도 획일적으로 넓은 공간의 확보에는 향후 관리 등에 어려움이 따름  
(넓은 공간 확보에 따른 자재비용, 온·난방비 등 유지비용 증가로 고품격 화장실의 실현은 멀어지게 됨)
- 특히 부스의 공간은 이용자의 사용에 적합한 공간 규모와 설비품 설치에 대한 산출이 도출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동작(활동범위) 최소화 하기위하고차원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설비의 소형화, 이용 단계별 설치, 색상에 의해 설비품의 주목)
- 다중이용 장소의 화장실 문 크기 등의 소형화

#### (2) 변기설치 및 사용의 효율성 제고

- 소변기의 배관이 벽체에 매립 마감되고 있어 보수가 번거로움  
(원활하고 실질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반증)
  - 배관이 내부에 있어 수시로 개폐가 용이한 패널형 구조의 채택
  - 소변기 몸체에 장착(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벽걸이형)
  - 컴팩트한 벽걸이형을 채택하여 재료비 절감 및 청소, 물 절약 등 향후관리가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함 (연수 5개국 전체가 컴팩트한 벽걸이형 소변기 채택)
- 최근 남성용 소변기 등에 자동센서 방식의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 사용자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작동이 되므로 문제됨 (사용 전에 배수하거나 재차 배수할 필요가 있을 때 작동이 번거로움)
  - 수동버튼식 → 자동센서식 → 원터치 방식으로의 진보가 바람직함 (사람 중심/이용자의 의지대로 작동되어야 함)
- 고품격 화장실의 대명사인 비데는 중장애인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첨단화장실에서도 설치하지 않고 있음 (남부 유럽에서는 아랍권 문화에 속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비데를 사용하고 있음)
  - 청결하게 관리할 수 없는 여건으로 오히려 더 비위생적인 요인이 되는 국내 공중화장실의 비데 설치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 (관리인이 상주하고 이용자가 내부인 위주인 건물 내의 공중화장실을 제외하고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4) 손 씻는 시설의 다양화

- 현재 국내 공중화장실에 설치되고 있는 세면대의 유형은 개별 세면기를 기피하고 인조 대리석(FRP와 석분의 혼합) 소재의 싱크대 식 세면대 일색으로 설치되는 추세임 (이 유형은 시설 당시에는 고급스럽다는 장점으로 채택되고 있지만 인공소재로서의 한계와 면적을 과다하게 차지하며 이용객이 가까이 다가서기 불편하므로 손을 닦을 때 물이 튼으로써 항상 지저분하고, 밀폐된 하단 공간에는 세균과 악취발생 공간이 되고 있는 등 단점을 지니고 있음)

- 장소의 특성에 따라 고급형부터 간이형까지 신개발이 필요함
- 특히 좁은 공간에 설치하여 손 씻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소형제품 싱크 대형이 아닌 손 씻는 시설(수전)이 필요함<크기에 맞는 수전(가랑이)의 동시 개발>
- 적정 수압의 유지도 필수적임 (제품상 또는 관리상의 문제)
- 역 등 이용객이 많은 장소에서는 소형 또는 중형의 세면기를 벽 쪽이 아닌 중앙에 설치하는 방식이 필요함 (이용객의 이용 특성)

#### ○ 윈스톱 세면기 설치

- 센서에 의해 물 분사▶물비누 분사▶공기 건조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매립형 소형 손 세척 장치로 공간이 작고 회전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수요가 집중되는 장소에 매우 적합함 (healthmatic 브랜드 제품)

### 5) 여성을 배려한 시설

연수 대상지의 여성화장실의 사용수요에 대한 용량은 부족 했으며 특히 관광지나 역 등의 다중 집합장소에서의 줄서기는 일상화된 느낌을 받았음. 여성용 화장실은 수요 대응과 품격 향상을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음

#### (1) 이용자의 유형에 따라 변기수 조절

- 단순히 변기 대수의 비율을 1:1.5로 하는 계량적 방안만으로 해소가 어려우며 내부의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사용 및 동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함
- 이용자 유형 및 장소에 따라 1:1, 1:1.5, 1:2 중 선택할 수 있게 함

< 이용자의 유형 >

- ① 단순히 소변 등의 용무만 마치고 신속히 퇴장하는 형
- ② 대변 용무 등 어느 정도 지체하는 형
- ③ 유아 기저귀, 수유, 화장고침 등 장시간 지체하는 형
- ④ 노인층의 이용에 따른 시간을 지체하는 형

#### (2) 여성 소변실 개발설치

- 현재 국내에서 시범적으로 선보이는 여성 소변기 설치의 우리나라 정서와 이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발상으로 현장 접목이 어려움 (남성과 동일 시 하는 오류, 개인별 변기에 앉았을 때 미치는 하중 등을 무시)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여성 소변실 시범설치  
대변실 부스보다 좁으며, 문은 중간 부분, 잠금장치는 없어도 무방함  
시트 위 뚜껑 불필요, 변기의 크기 및 배수량(물 사용량) 등의 소형화가 가능함 (부분 노출로 이용 순환 시간을 단축)

#### (3) 토털 부스 보급

- 부스안에 변기를 비롯한 소형세면기, 거울, 비누(물비누), 또는 윈스톱 세면기 등 모든 설비품이 구비된 여성용 고급 화장실을 개발 여성 소변실과 병행하여 설치하여야 함

· 유아와 함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토털부스 설치

#### (4) 다목적 화장실의 여성기능을 확대

- 장애인을 위한 다목적 화장실은 실제 활용이 지극히 저조하여 본래 용도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용이 빈번한 유아실 등의 다목적 기능을 토대로 다양하게 제공하여야 함
- 장애인 시설과 함께 유아를 위한 (수유, 기저귀 갈이대, 어린이의 민감한 피부를 고려한 1회용 시트사용 어린이 침대 등 다양한 시설 비치 등) 휴식 공간 조성
  - ※ 변기의 다원화에 따른 사용상 복잡 및 혼란의 문제는 다목적 화장실을 활성화함으로써 단순화가 가능함

#### (5) 세면기 다수 설치 및 2원화

- 여성용 화장실의 수요 대응과 품격 향상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는 세면기 다수 설치 및 2원화(간이형과 고급형)를 들 수 있음
- 현재의 수량을 상회하는 세면기를 설치하되 통로를 벗어난 여유 공간에 고급형 세면 시설을, 퇴로 동선에 간이형 소형 세면기의 설치가 현실적임
  - ※ 세면기수는 변기수에 비례하여 설치토록 유도

#### (6) 자원 절약형 시설설치

- 국내에서는 근본적인 수자원의 확충(빗물 이용, 중수도 등)보다는 물 절약 변기 개발 및 설치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임
  - 사용수량을 줄이는 방안은 구조(메카니즘)에 의존하기 때문에 원활한 유지 보수가 어려우며, 개개인 특성상 적은 물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경우에 따라 2번 배수하면 물 절약이라는 본래 목적은 아무 의미가 없음)
- 소변기 및 세면대의 소형화와 적정한 수압으로 물 절약 (실제 세면대의 수압이 적정한 화장실은 찾아보기 힘들)

#### (7) 여성화장실 내 자동판매기 설치

- 생리대, 물티슈, 치약, 칫솔, 껌 등 편의용품 비치

### 6) 장애인 및 노인 등을 배려한 다목적 화장실의 효율적 운영

우리나라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화장실을 설치(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설치)하고 있으나 이용객이 극히 적다 보니 관리가 되지 않고 공간만 차지한 채 방치되고 있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실제 장애인 등이 이용할 경우 매우 불편한 것이 현실이며, 장애인(다목적) 화장실의 설비는 스테인리스 스틸 등의 가이드 바와 비상호출 벨이 전부이며 실제 휠체어의 통행이 어려운 공간이 있음에도 관련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음

- 실질적인 구조와 관련 제품의 전문 고급화가 이루어져야 함.

- 단순히 가이드 바만 설치하면 장애인용이라는 소극적 대응을 넘어 보다 기능적인 전용 용품(기능 가이드 바, 전용 변기 등)의 개발 등 실질적인 비품 설치가 이루어져야 함
- 남성용, 여성용의 구분 설치는 면적과 설치비용 등이 과다하게 투입되고 이용자가 적음으로써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음
  - 시트 크린 시스템 등을 장착하여 남녀 장애인과 유아 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고급화(남녀 사용의 불편감 해소)
- 중장애인 화장실 운영
  - 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 바닥에 넘어지는 등 응급시 호출버튼을 누를 수 없기 때문에 줄을 잡아당겨서 호출이 가능하도록 함
  -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커튼 설치
  - 진입로의 턱과 계단 없애기 (지하의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
  - 유명 관광지 등에 중증장애인(1~3급)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 시설에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필요한 시설 설치(비데, 리프트, 매트, 비상호출 시스템 등) 하고 관리인이 상주하여 근무하고,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화 하거나 공중화장실 지도를 작성하여 이용안내
- 경 장애인 화장실 운영
 

현재 국내에서도 스스로 보행, 목발 사용하는 경장애용 부스가 설치되고 있지만 경장애와 중장애용의 수요발생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기준 마련과 설치가 이루어져야 함

  - 노인 사용층을 위한 간이 가이드 바의 설치가 일상화되어야 함
  - 경 장애인 시설에 노인, 어린이 등이 함께 사용토록 설치
    - 일반화장실 부스내에 간단한 안전바 등을 여러 곳에 설치
-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다목적화장실은 시설이나 용품, 출입문의 여닫기 정도 등 세밀한 분야에서까지 각 계층이 사용이 편리하도록 제반여건을 충족해 줘야함

## 7) 위생을 고려한 공중화장실

- 다중이 사용하는 서양식 대변기의 경우 사용 시 마다 시트의 청결 방식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해결 방식이 도출되고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방식이 시트지 자동 교체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고가인 유지비용과 잦은 고장으로 이미 설치한 곳에서도 작동을 중단한 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음 (경제성과 견고성이 떨어짐)
  - 우선 해결 방안은 시트 크린액 등의 부스 내 장착으로 사용자가 직접 세척 할 수 있는 자동세척 기능방식 채택 (수동식은 사용자가 번거로움, 비용이 다소 소요 되더라도 자동세척 및 소독이 가능한 변기 설치가 바람직함)
    - ※ 변기 시트자동교환기는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오히려 더 비위생적이므로 설치를 지양해야 함

- 휴지통 제거 및 편의시설 비치
  - 부스 내 휴지통을 없애서 악취와 불결함을 해소하여야 하고, 여성 화장실의 경우 부득이 휴지통을 비치할 경우 뚜껑 밀폐형으로 내부의 다른 설비(시설)와 조화를 이루는 색상을 채택하여야 함
  - 연수국가의 대부분 휴지통을 비치하고 있지 않음
  - 고체 비누는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지양하고 액체 비누를 비치 사용토록 하며 세면기와 일체형을 권장함
- 위생해충 발생, 번식 등 방지를 위한 청소 및 소독
  - 시간대별로 청소 및 시설관리를 한 후 점검표 기록

## 8) 안전한 관리운영 시스템

- 관리인 상주 근무시스템 도입 검토
  - 공중화장실의 등급화 설치 장소나 수요층의 요구에 따라 정형화된 장애인 화장실 등이 구비된 화장실을 1등급으로 하여 관리인이 상주하게, 그 외는 관리인이 수시 관리, 관리인이 없는 화장실 등으로 관리인력에 따라 화장실의 이용 및 설치 수준이 다원화되어야 함 (우수화장실 등급제 도입 및 다목적화장실과 연계)
    - ※ 1등급의 경우 공중화장실내 관리인이 상주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실 등 설치
  -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지자체별로 노인 등을 활용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
- 다중이용 장소의 화장실 문 크기 등의 소형화가 바람직
- 도심외곽 및 관광지역의 화장실에는 기물파손,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CCTV 설치를 권장함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충돌이 되나 출입구 설치는 가능하다 사료됨)
- 재래시장, 축제시장 등에 설치되는 공중화장실의 경우 쿠폰을 활용한 유료화를 시범적으로 도입, 관리 운영에 지역 상인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공중화장실을 민간주도로 설치·관리 및 민간단체 및 개인이 효율적으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및 지침마련 활성화 필요함

## 9) 우수화장실 등급제 관리

- 충남도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수준향상과 관리자, 소유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매년 시설이 우수하고 관리가 탁월한 화장실을 엄선하여 미소방으로 선정하고 인증마크를 부착해주고 있음
- 화장실의 유형이 복합화 됨에 따라 단순한 평가 기준으로는 엄정한 평가 및 선정이 어려움
  - 규모나 설치 시기, 투입 비용에 따라 유형이 복잡하게 구분되며 단순히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과 같은 카테고리를 넘어 복합적인 참가 부문으로 세분화하여야 함
- 선정 이후의 관리나 수준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음
  - 영국과 같은 별 숫자와 같은 등급을 차등하여 매년 지속적인 관리와 수준유지가 이루어지도록 장려하여야 함 (전년도 수상작에 대한 별도의 참가 부문이나 당연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

※ 기 선정된 화장실도 매년 재심사하여 높은 수준의 시설유지

- 선정 공고나 선정 결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
  - 우수한 화장실로 선정된 곳은 인터넷, TV, 잡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와 함께 일정기간 운영비 등 인센티브 부여

## 10) 대형 축제장 남성전용 간이화장실 설치

- 일시에 많은 인파가 모이는 축제장에 컨테이너 형이나 차량형 이동 화장실을 설치 할 수 없는 장소(도심축제 등)에 소형 남성전용 간이 화장실을 설치 (백제문화제 및 대백제전 등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적은 비용과 적은 면적으로 남성용 변기를 설치함으로써 이를 대체하여 여성용 화장실 설치, 여성의 편익증진 및 비용 절감

## 11) 국도변 휴게소 독일의 SANIFAIR제 적용 검토

- 현재 국도변 휴게소의 경우 이용객 감소와 경영난 등으로 화장실의 시설이 낙후되고 유지 관리가 가장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 SANIFAIR제 : 일정액의 화장실 이용료를 부과한 후 그 영수액 만큼 휴게소 내에서 무료로 사용함으로써 동일 영업장의 매출액 증가 유도
  - 도내 국도변의 대형 휴게소를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

## 12) 법률 및 조례 등 제도적 지원

- 일률적인 설치 기준으로는 실제 이용자에게 만족을 줄 수 없으며 오히려 명품화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
  - 공중화장실의 면적 및 변기수 등을 법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 내지는 삭제가 바람직함
- 이용자의 이용행태, 성별, 관광지 등 지역, 관리의 용이한 정도에 따라 다단계 구분하여 특성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도 단위에는 도농간의 시군세의 차이가 심하며 농업 지역이나 산간, 도서지역의 경우 제대로 갖추어진 공중화장실 보다는 소규모의 화장실 보급으로 전체수준 향상이 절실한 형편임
- 특히 장애인이 사용하는 다목적 화장실은 관리인이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고급화 및 실제 사용이 빈번히 이루어지도록 기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설치 및 운영이 유연하도록 하여야 함
  - 공중화장실을 민간주도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조례 개정 및 지침마련 필요함



## Part 4.

농어촌 뉴타운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일본 사례 연구

유 학 열 \_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Part 4.

## 농어촌 뉴타운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일본 사례 연구

유 학 열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1. 개 요

#### 1. 조사 개요

##### 1) 목 적

- 새정부 농정 5대 미래전략과제로 검토 중인 “농어촌 뉴타운 조성” 과제의 해외 모범사례 연구를 통한 사업계획 기본방안 설정
- 농어촌에 젊은 인력을 유치하여 지역 농산업의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일본의 도시민 유치 정책, 귀농자 지원 정책 등을 조사

##### 2) 개 요

- 출장기간 : 2008. 5. 20(화) ~ 5. 24(토)
- 방문국가 : 1개국 (일본)
  - 일 본 : 오까야마현, 효고현, 히로시마현 일원
- 방문기관 : 오까야마현 귀농상담센터, 오까야마현 주택공급공사, 효고현청, 히로시마현 다까미야정
- 출장자 : 유 학 열 \_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고 학 수 \_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과장
  - 정 아 름 \_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과 사무관
  - 박 영 근 \_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 사무관
  - 성 주 인 \_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 박 미 란 \_ 한국농촌공사 도농교류팀 차장

## 2. 조사 내용

- 오까야마현의 신규 귀농자 지원 시책
- 오까야마현의 농촌 전원형 정주공간 조성 사업 내용
- 효고현의 다자연거주(多自然居住)사업 내용
- 농어촌 인구 유입을 위한 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 내용

### 1) 방문지역

지 역	특징 및 방문 목적
오까야마현 기비공원도시	○ 농촌 전원형 신도시 개발 지역 ○ 신도시 계획 면적, 주요 시설, 추진 경과 등을 조사
효 고 현 다 까 정	○ 체재형 시민농원의 선진사례 지역 ○ 시민농원의 개요, 시설 현황, 운영·관리 조사
히로시마현 다끼미야정	○ 농촌형 임대주택 사업 추진 현황 조사

### 2) 방문기관

기 관 명	방 문 목 적
오까야마현 귀농상담센터	○ 귀농상담센터 조직 구성 및 사업내용 조사 ○ 귀농자 지원 프로그램 및 지원책 관련 자료 입수
오까야마현 주택공급공사	○ 주택공급공사의 조직 구성 및 사업내용 조사 ○ 농촌지역 임대주택 사업 현황 조사 ○ 농촌지역 임대주택 사업 현장 방문
효 고 현 청	○ 효고현이 추진하고 있는 다자연거주사업에 대한 설명 청취 ○ 다자연거주사업 현장 방문

## II. 방문지 주요조사 및 활동결과

### 1. 오까야마현 신규 취농상담센터

#### 1) 오까야마현 신규 취농상담센터 조직 활동 내용

- 신규취농상담센터는 신규 농업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 상담원이 배치되어,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실시

- 농업기술 취득을 위한 연수원 소개, 농지정보, 영농교육, 자금계획, 귀농 후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 방법 등 전반에 대한 지원

## 2) 신규 취농 희망자 지원 절차

- ① 희망하는 영농 방향 구상 → ② 취농 상담 → ③ 영농·생활계획의 구상 → ④ 취농후보 시정촌 조사 및 현지관찰 → ⑤ 후보 시정촌 선정 → ⑥ 영농·생활계획의 재검토 → ⑦ 취농계획 작성 및 신청 → ⑧ 취농 계획 인정 → ⑨ 주거 확보 및 취농지역 정주 → ⑩ 구체적 영농·생활계획 작성 → ⑪ 영농기반 확보 (농지, 시설·기계 확보 및 자금 차입) → ⑫ 신규 취농

## 3) 신규 취농자 유치 실적 및 특징

- 신규 취농 연수 프로그램 지원 실적을 1993년부터 집계한 결과 2007년까지 총 262명이 체험연수에 참가했으며, 162명이 실무연수를 받음. 실무연수 수료자 중 오가야마현에서 최종적으로 취농하여 정착한 경우는 115명임. 대부분 가족 단위로 정착함
- 연수 참여자의 특징
  - 연령별로는 전업농 육성에 목적을 둔 지원 프로그램인 까닭에 교육 이수자 중 20~30대 젊은 층이 약 77%를 차지함

## 2. 오가야마현 농촌 전원형 정주공간 조성

### 1) 기비고원도시 조성 사업

- 사업 방식 : 지역 진흥 정비 공단 사업 (지방도시 개발 정비 사업)
- 계획 인구 : 30,000명 (유동인구 포함)
- 계획 면적 : 1,912ha (前期계획 구역 432ha, 後期계획 구역 880ha)
- 기반 정비비 : 전기 사업비 - 195억 엔, 후기 A존 사업비 - 154억 엔
- 단지 내 주요 시설
  - 기비플라자 : 정사무소 / 추고쿠 은행 / 케이코 미용실 / 킨치센터 / 향토 요리점 / 리조트 호텔 / 슈퍼 / 약국
  - 보건복지시설 : 기비고원 종합 사회 복지 요법 센터 / 길비의 마을
  - 자연교육시설 : 국립 기비 소년 자연의 집 / 근로자 야외활동시설 「하루미의 언덕」 / 기비고원 신 과학관 / 21세기 숲
  - 연구교육시설 : 고등학교 / 생물과학 종합 연구소 / 초등학교
  - 입지 기업 : 기비마츠시타(주) / (주) 기비NC능력개발 센터 / (주) 오닉 / (주) 하야시바루 생물 과학 연구소기비제약 공장
- 추진 경과
  - '74 ~ '81년 : 건설추진협의회 결성하여 기본계획,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인가
  - '82 ~ '86년 : 야외활동시설, 21세기 산림 개원, 吉備高原보건복지시설, (주)길비NC 능력개발센터유치 등 기간산업 업무개시

- '87년 : 주택단지분양개시, (주)임원생물화학연구소길비제약공장 완성
- '88 ~ '96년 : 후기사업계획수립 및 후기 A-ZONE 기반조성



〈그림 1〉 기비고원도시 주택단지 전경

## 2) 오치아이단지

### ○ 단지 개요

- 위치 : 岡山縣 眞庭市 上市瀬地内
- 택지구모 : 129구획
- 택지면적 : 184.13㎡ ~ 424.57㎡
- 택지분양가격 : 3,903천 엔 ~ 9,105천 엔

※ 기비고원도시단지과 유사하나 129구획 규모로 8년 내 건축하는 체계임

### ○ 조사내용

- '92년 시작하여 '96년 완료
- 129구획 택지만 조성하여 현재 24필지 분양 (분양률 18.6%)
- 지자체에서 주택단지 공급을 요청하여 주택공급공사가 사업을 시행하였지만 10년 동안 129구획 중 24필지 분양하여 분양률 18.6%로 사업성고가 저조한 상황임



〈그림 2〉 오치아이단지 전경

### 3. 효고현의 다자연거주 사업

#### 1) 낙농센터 운영

- 농촌·농업체험을 위한 시민농원 정비 확충
  - 2003년 약 3만 6백 구획인 시민농원을 2015년까지 4만 6천 5백 구획까지 확충할 계획임
- 낙농생활센터 운영
  - 농업활동을 희망하는 정년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조인 제공, 기술지도 등이 목적
- 낙농생활 관련 주체 양성 목표 수립
  - 2010년에 1,250명, 2015년에는 2,500명까지 귀농자 유치 목표



〈그림 3〉 낙농생활센터 거점시설지구의 전경



〈그림 4〉 자산지소 방식의 레스토랑(좌)과 주민이 운영하는 직판장(우)

#### 2) 다카정의 체재형 시민농원 운영

- 다카정의 체재형 시민농원 개요
  - 체재형 시민농원은 농촌에 지속적으로 정주하려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며, 주말 체재가 중심이 된 2지역거주형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시설임
- 주요 시설 현황
  - 체재형 시민농원은 공통적으로 주거용 건물과 텃밭, 주차장 같은 개별 시설과 관리동이나 교류시설 등을 갖추고 있음

- 후로이텐 야치요의 경우 동당 부지 면적은 310㎡이며, 건물은 30㎡임
- 건물은 목조 2층으로서 목욕탕, 화장실, 부엌, 다락방 등을 갖추고 있고 개별 텃밭과 별도로 공동이용 농원도 있음
- 시설은 지자체(町)에서 농림성 등 여러 농촌개발 관련 사업을 활용하여 조성함
- 사업비는 후로이텐 야치요는 약 6억 엔, 블라이벤 오야는 약 2억5천 엔임 (국비 1/2, 정 1/2)
- 시설 조성에는 평균적으로 2년 가량 소요되었음
- 시설의 임대와 관리 : 인근 마을의 주민 조직체에서 전체적인 농원시설의 관리 업무를 담당함



〈그림 5〉 텃밭이 달린 후로이텐 야치요 전경

#### 4. 다카미야정 농촌형 임대주택 현황

##### 1) 기비고원도시 조성 사업

- 위치 : 히로시마현 安芸高田市 가와네 무라
- '99년 가와네 지역에 젊은이 유치를 목적으로 정영주택계획제안
- 입주자격대상
  - 중학생이하의 자녀가 있고 20년 동안 지역에서 살며, 지역자치활동에 적극 참여
- 총 정영주택호수 : 23호
- 공급 주택
  - 호당 규모 : 300㎡ 부지, 100㎡ 주택 공급
  - 임대료 : 월 3만 엔(20년 후 100만 엔을 내면 입주자에게 불하)
- 주요재원
  -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에 의한 지방채 발행하여 정영주택의 토지 취득 및 건설 공사비 조달
  - 토지 취득 및 주택 공사비 : 동당 1,300만 엔
- 입주자들의 경향
  - 가족의 구성은 자녀 2인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됨
  - 현 입주자들의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고 있음

### Ⅲ. 시사점 및 정책제언

#### 1. 귀농 정책

- 단계적이며 장기적인 접근
  - 신규 취농 희망자가 관련 정보 탐색과 상담, 교육 및 연수를 거쳐 귀농에 이르기까지는 최소 1~2년 소요
  - 농촌 체험 프로그램 참여에서 출발하여 본격적인 귀농과 취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농촌 체험 위주의 기초적인 교육 프로그램부터 시행하고 있음
- 귀농자의 초기 정착을 위한 지원제도의 도입
  - 농업활동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까지 실무적인 교육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교육생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일정한 지원금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 귀농인력 지원 사업 대상자
  - 도시민의 신규 취농 성공을 위해서는 지원제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자금력이 바탕이 되어야 함
- 오카야마현 신규취농자 지원 시책의 특징
  - 오카야마현의 신규취농 지원 사업은 중장기적인 농업 부문 육성계획에 바탕을 둔 인력 양성 목표 하에 추진되고 있음
  - 따라서 타 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은퇴가구 유치와는 별도로 젊은 전업농 양성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개발하고 있는 점이 특징
  - 이러한 맥락에서 중앙정부의 귀농 알선시책과는 별도로 현 독자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다른 현에도 오카야마현과 같은 귀농상담센터가 있지만, 이와 같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음. 예컨대 연수비(15만 엔) 지원도 오카야마현에서 최초로 시도된 것임. 선진농가에 연수를 받을 경우 농림수산성 프로그램에 의해 월 15만 엔의 대부가 가능하지만, 오카야마현의 경우 자체적으로 연수비 15만 엔을 보조하고 있음. 따라서 오카야마현의 신규 취농 희망자는 농림수산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현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농업체험연수와 농업실무연수를 구분한 단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취농 및 초지 정착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친 지원책이 진행됨

#### 2. 도시민유치를 위한 정주공간 조성

- 정영 임대주택의 사례에서 보듯 일본의 농촌형 주거단지는 대체로 대단위 구획으로 조성되지는 않고 있음
- 히로시마현 다카미야정 가와네지구의 정영주택이 23호 규모
- 충분한 수요에 기반하지 않고 대단위 단지 조성을 할 경우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게 됨

- 대규모단지(前期 430구획)를 조성한 길비고원도시의 경우도 상업·서비스 기능이나 직장 등 근린생활을 위한 기초적 조건이 불충분함
- 길비고원도시의 경우 기반시설, 산업 및 교육시설, 커뮤니티시설과 택지 등 복합화된 단지 구성하였으나, 입주자의 대부분은 도시출퇴근자로 지역 농촌과 밀착화되지 못함
- 농촌형 임대주택은 주택건설재원의 대부분이 국고와 지방채로 보조지원되어 낮은 임대료의 농촌형 임대주택 공급
- 농어촌 뉴타운 조성과 관련한 시사점
  - 오까야마현에서는 신규 취농자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지원시책을 시행해왔지만, 실적 자체가 단시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음
  - 취미농업이 아니라 전업적인 규모로 농사를 짓고자 하는 귀농자들은 교육과 연수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주거와 농지 확보를 위해서도 긴 탐색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임
  - 특히 이들은 주거 선택 시에 대체로 신규 단지보다는 농지가 인접해 있는 기존 마을 인근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임. 따라서 오까야마현에서는 전업적인 신규 취농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인위적인 단지 조성을 하지 않고 개개인이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택하여 주거지와 농지를 확보하도록 현에서는 정보 제공이나 자금 지원만 하고 있음
  - 결국 장기간에 걸친 노력으로 점진적으로 귀농인력 유치 성과를 내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오까야마현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시사점임
  - 도시민이 신규 취농에 성공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자금력이 바탕이 되어야 함. 따라서 오까야마현과 같은 공식적인 교육 및 지원제도의 대상은 경제적인 기반을 갖춘 일부 계층에 한정될 수밖에 없음
  - 성공적인 귀농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신규 취농 인력 육성사업의 수혜 대상을 어느 정도 범위로 설정할 것인지가 농어촌 뉴타운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름

## 부록. 주요국 조사일정

일 시	방 문 지	일 정
5월20일(화)	오카야마현(岡山縣)	오카야마현(岡山縣) 귀농상담센터 방문
5월21일(수)	오카야마현	오카야마현 주택공급공사 방문 ① 吉備高原都市団地 (농촌지역 뉴타운) ② しらうめ落合団地 (농촌지역 뉴타운)
5월22일(목)	효고현(兵庫縣) 히메지시(姫路市)	효고현청(兵庫縣廳) 방문, 마찌쓰꾸리국 도시정책과, 종합농정과 ① 락농(樂農) 생활센터 방문 ② 多可町 체재형 시민농원 시찰
5월23일(금)	히로시마현 다카미야정(高宮町)	히로시마현 다카미야정(高宮町) 다카미야정 정영주택 시찰 다카미야정 에코뮤지엄 견학
5월24일(토)		인천국제공항 도착

## 참·고·문·헌

1. 충남발전연구원, 2008, "일본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정책 사례집".





## Part 5.

독일 공공디자인 워크숍을 다녀와서

이충훈 \_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Part 5.

## 독일 공공디자인 워크숍을 다녀와서

이충훈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1. 개 요

#### 1. 조사 개요

##### 1) 목 적

지식경제부 지원으로 진행되는 독일 공공디자인 워크숍은 역량 있는 디자인 실무자들에게 디자인 선진국에서의 워크숍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안목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디자인 정책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2) 연수개요

- 연수기간 : 2008. 8. 30(토) ~ 2008. 9. 7(일) 9일간
- 교육장소 : 베를린 국제디자인센터(IDZ)
- 강 사 진 : Luise Adrian 등 12명
- 연수참여자 : 이충훈(충남발전연구원)외 대구, 광주, 부산디자인센터, 전국대학교 디자인 혁신센터 연구원 등 관계자 16명
- 교육내용 : 공공디자인의 대표적 사례 도시로서 UNESCO에서 '디자인 도시'로 지정된 베를린시의 국제디자인센터에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현장방문을 통하여 공공 디자인 정책과 관련된 베를린시의 경험과 노하우 등을 체험하고 학습하는 과정



〈그림 1〉 베를린 국제디자인센터 전경



〈그림 2〉 워크숍 참가자(좌) 및 워크숍 진행과정(우)

### 3) 교육일정 및 내용

일 정	내 용	강 사
8. 30 (토)	출국 (인천) - 도착 (독일 베를린)	
8. 31 (일)	공공디자인 현장 방문(구 독일 철도역사) 등	
9. 1 (월)	<b>정부의 도시 개발과 전략</b> - 정부의 도시개발과 전략 : 워크숍 및 강의 - 슈타트포럼 베를린 방문 - 마우어 가이드 : 워크숍 및 강의 - 장벽기념관, 찰리 검문소 장벽박물관 방문 - 장벽 기념관 컨셉 : 워크숍 및 강의 - 마우어가이드 社 방문	Luise Adrian Florian Adler  Rainer Klemke
9. 2 (화)	<b>공공 공간을 위한 디자인</b> - 공공 공간과 도시 마케팅의 창의적 가능성 - 가로 시설물 : 워크숍 및 강의 - 공공성과 컨셉, 프로젝트로 가는 공공디자인 - 발 社 방문	Christoph Fleckenstein  Albrecht Ecke
9. 3 (수)	<b>정부와 도시의 마케팅 전략</b> - b-베를린 캠페인 : 워크숍 및 강의 - 도시 마케팅 - 베를린 비즈니스센터 방문	Jochen Placking Robert Kaltenbrunner Ronald Koch
9. 4 (목)	<b>상징문양과 공공 디자인</b> - 공공 시설을 위한 디자인 : 워크숍 - 도시 상징문양과 공공 브랜드 - 포츠담 광장 방문 - 베를린 공공 교통의 개발지원 - 독일철도(도이체반)의 기업디자인(CI)	Ryan Abdullah  Karsten Henze Karsten Henze
9. 5 (금)	<b>컨셉과 사례연구</b> - 전략적 도시계획, 도시 재개발 사례연구 등 - 'Berlin im Licht' (빛속의 베를린) 가로조명 전 시장 방문	Ursula Paravicini Klaus Klemp
9. 6(토)~ 9. 7(일)	출발 (독일 베를린) - 도착 (인천)	

## 2. 조사내용

### 1) 방문도시 - 베를린

### 2) 방문기관 - 베를린 국제디자인센터(IDZ)

### 3) 베를린 국제디자인센터 역할

- 베를린 국제디자인센터(IDZ)는 1969년 우수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베를린 업계의 요청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40년 동안 500건 이상의 행사, 전시, 국제회의, 워크숍 등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다양한 출판물을 발간함
- 디자인 경영, 품질관리, 디자인 관련 컨설팅 등 국내외 유명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수행

### 4) 주요기능

- 디자인 페어 개최 - 세대 간 디자인 프로그램 교류 추진
- 제품생산 이후 과정에 대한 연구 - 지속성있는 상품디자인 개발 소재에 대한 연구
- 디자인 비평연구, 조사 - 철학 등 인문학 분야에서 디자인 용어 도출
- 도시에 여러 문화를 융합할 수 있는 디자인 역할 모색
- 디자인 상품에 대한 재산권, 생산품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 방안

## II. 방문지 주요조사 및 활동결과

### 1. 베를린 일반현황

- 베를린은 15C 브란덴부르크 제국의 수도였으며, 이후 18C초 프로이센 왕국, 19C 후반 비스마르크의 제2독일제국의 수도였음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폐허가 된 베를린은 프랑스의 꼬르뷔지 등의 유명한 건축가에 의해 이루어져 현대적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됨
- 베를린 인구는 전쟁이전 600만 명에서 전후 350만 명으로 감소되었으나, 통일 후 20년 이내 새로 인구가 유입되어 도시를 구성하게 됨
- 20세기 독일의 중추도시로서 학문 예술의 전성기를 맞아 유럽 최대의 도시로 성장

### 2. 베를린 공공디자인 추진정책

- 독일 공공디자인 정책은 계도와 단속이 아닌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과 시민을 중심에 두고 철저한 사용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

- 전체적 관점의 통합성, 조화성, 그리고 지역정체성을 적절하게 표출함
- 독일정부는 공공공간과 공공시설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을 법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DIN(독일공업표준규격)에서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 놀이터 공간의 시설과 소재에 관한 규정, 교통시설과 보행공간에 관한 규정, 유치원시설과 사용소재에 관한 규정,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 등

### 3. 베를린 공공디자인 현황

#### 1) 공공시설물디자인

- 버스쉘터
  - 도시경관을 방해하는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여 스텐과 유리마감재를 사용하여 경관과 가로시설물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룸
  - 바우하우스의 디자인 기본이념인 기능위주의 모던하고 단순한 형태로서 대량생산을 고려한 디자인 추구
- 휴지통
  - 일반거리의 쓰레기통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배치
  - 쓰레기통이 바닥면에 있지 않고 벽체나 가로등, 안내표지판 기둥에 부착되어 쓰레기가 고이는 것을 방지함
  - 쓰레기통에 화재방지를 위한 담배꽂이를 버리는 투입구를 별도 설치
- 화장실
  - 시내 중심지역의 광장에 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지하 화장실 설치
  -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내부는 밝고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
  - 유료화장실로 내부 관리자 상주, 공공디자인 견학코스로 활용





〈그림 3〉 공공시설물 디자인(버스쉘터, 휴지통, 공중화장실 등)

## 2) 공공 공간 디자인

### ○ 공원

- 사용자 위주의 공원조성계획 수립 후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물 배치
- 최소한의 시설물만 설치하여 비움의 디자인 추구

### ○ 도로

- 차도를 따라 중앙에 녹지공간을 두고 벤치와 화단,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휴식 공간으로 활용
- 차도와 인도의 높이를 낮추고 차도에 자전거 통행로를 지정하여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계획됨

### ○ 건물색채

- 시내 건축물은 전체적으로 Gr(회색의), DI(칙칙한), Dk(어두운) 톤으로 구성되어 중후하고 오래된 느낌을 줌
- 반면 집합주택의 경우 L(밝은), Y(아이보리) 등 따뜻한 계열의 색상으로 온화하고 내추럴한 이미지를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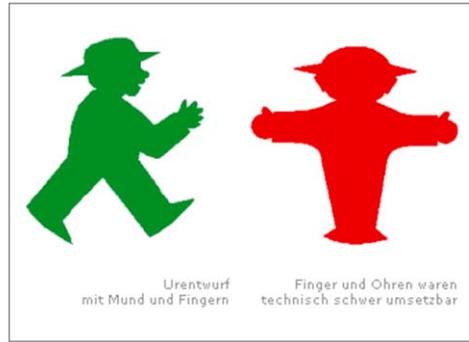
## 3) 공공정보 디자인

### ○ 광고판

- 옥외광고 전문업체가 광고판 디자인 및 제작하여 베를린 시내에 설치
- 원형 및 양면광고판 형태로 기업에 광고비를 받아 관리 운영

### ○ 신호등

- 1994년 독일정부가 게어(Geher:건고 있는 녹색신호등 맨)와 슈테어 (Steher : 서 있는 빨간 신호등 맨)로 구성된 구 동독 지역의 “신호등 맨”을 서독이 사용하는 신호등으로 교체 검토하였으나, 많은 시민들의 반대로 구 동독의 신호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 마르쿠스 헤크하우젠에 의해 구 동독 신호등 맨의 독창적 가치를 문화적 브랜드로 부활시켜 신호등 맨 캐릭터를 상품화하고, 일본에 진출하여 판매장 개설



〈그림 4〉 베를린 신호등 맨

#### 4. 베를린 도시재개발 추진 – ‘Alexander platz’ Project

##### ○ 추진 개요

- 베를린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City of Chance’ 슬로건을 목표로 베를린에서 추진 기구인 “Service in the City”를 설립하고 ‘기업을 위한 도시’ 라는 시장모델을 구축하여 시범사업으로 ‘Alexander platz’ 프로젝트를 추진함

##### ○ 추진목적

- 관광객 증가 및 경제수익 기대
  - 베를린 방문객은 2007년 1,730만 명으로 관광수익 8,411만 유로, 고용유발효과 255,000명

##### ○ 프로젝트 내용

- 베를린의 쾌적한 문화 환경 조성, 친절한 서비스 제공
- 관광객을 위한 언어지원 서비스 - 영어, 독일 등 다양한 언어제공 계획
- 우울한 도시이미지를 친절한 도시이미지로 개선 - 도시마케팅 추진, 서비스 개선
- 베를린 시민과 방문객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방안 - 정보공유

#### 쾌적한 문화환경 구축을 위한 ‘Service in the City’의 3가지 추진전략

##### 1) Project 1 – 쾌적한 환경조성

- 베를린 TV방송국 지역 - 방송국 조성전에 쓰레기 하치 장소에 TV방송 수신타워를 건립하고 새로운 플라츠로 조성
- ‘Alexander’ 지역은 베를린의 관문으로서 가로환경 문제점 파악 개선
- 휴지통 : 디자인 분산, 관리상태 불결 - 새로운 디자인으로 통일하고, 관리가 양호한 상태로 개선
- 가로등 : 도로변 설치된 조명 파손, 범죄유발 - TV수신타워 주변에 새로운 가로등 설치, 쓰레기 투척 및 범죄예방 효과

- 녹지공간 조성 : 시민 및 방문객에게 쉼터 및 휴식공간기능 부여



〈그림 5〉 알렉산더 플라츠

## 2) Project 2- 친절한 서비스 제공 (도시마케팅 활동 전개)

### ○ 도시마케팅 추진 목적

- 세계적 경제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이미지를 새롭게 정립하고, 투자자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함

### ○ 도시마케팅 현황분석

- 1차 마케팅 타겟층은 베를린 시민에서, 주변지역 주민 그리고 독일이라는 국가, 더 나아가 외국방문객까지 확대

### • 베를린의 경쟁도시 분석

뉴욕 - “I love new york”, 침체된 뉴욕경제의 새로운 도시발전 동력제공, 세계적 파워브랜드 50에 선정, 관광 진흥, 시민통합 기여

홍콩 - “Asia's World City” Hong Kong,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허브도시 지향, 첨단국제비즈니스 도시로 전환

싱가포르 - “Uniquely Singapore”, 외국자본과 관광지로써 “세상에서 가장 유일하다”는 도시 이미지 확산

### ○ 베를린시의 SWOT 분석

|강점 : 개혁 능력

|약점 : Identity 부족

|기회 : 국제적 도시로 발전가능성

|위험 : 이미지 손상, 전쟁, 낙후성

○ 베를린의 문제해결 방안

• 베를린의 성향

항쟁, 용감함, 문화, 개성, 직설적, 아인슈타인, 흘 볼트 대학(학문), 문화예술 등을 꼽을 수 있으며, 베를린은 사업가의 활동보장과 유학생을 우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이동이 있는 도시로서 안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모색하는 도시임



〈그림 6〉 베를린의 성향

• 베를린의 특성

베를린의 성향들이 하나씩 중심개념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되어 새로운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음

• 변화의 이미지

사람이 도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영웅이며, 개인의 영향력이 시장을 경영하는데 필요하다는 사실과 베를린시는 변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변화의 전략

- 첫째, 시민들의 변화 - 변화의 주역이며, 기회와 인식을 공유
- 둘째, 베를린시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며
- 셋째, 시의 통합된 아이덴티티를 필요로 하고
- 넷째, 변화는 강력한 도시로의 발전의 원동력이 됨



〈그림 7〉 변화의 이미지

○ 추진전략

- GmbH 마케팅전문기관에서 베를린시에 4개 프로젝트 건의
  - 문화, 보건, 학문, 사회개발부문 등 모든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정기적인 시장조사 및 토론행사, 정보교환과, 시민을 위한 캠페인 개최 계획 수립 등
- 캠페인 전략으로는 공모를 통한 브랜드 슬로건 “Be Berlin”을 확정하고, 캠페인 포스터 제작과 슬로건 로고는 시와 동일하게 인식하도록 함
- 다양한 계층의 시민을 활용한 브랜드 슬로건 홍보캠페인을 전개



〈그림 8〉 베를린 도시브랜드 슬로건



〈그림 9〉 브랜드 슬로건 캠페인 광고

- 베를린 공공기관 종사자(경찰, 청소원, 지하철운행자, 공항근무자, 철도청근무자 등) 들을 베를린을 돕는 사람으로 지정 - 공공장소에서 가장 식별이 용이하고, 베를린의 첫 인상을 주기 때문
- 유니폼, 패치 착용, 안내서비스 역할 - 베를린의 지식, 정보 공유
- 자원봉사자 : 모든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역할 수행토록 함  
(베를린 영화제, 베를린 마라톤 등 국제행사에 베를린 정보 제공)
-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활용한 도시마케팅 활동 전개 - “Be Berlin”(베를린다운~)



〈그림 10〉 베를린 캠페인 슬로건

### 3) Project 3 – 국제 온라인 아카데미

- 각 기관 지원을 받아 언어와 정보를 온라인에서 서비스 제공
- 베를린 상인연합회에서 온라인 아카데미 지원
- 시 관련부서 및 기관에서 온라인 아카데미 파트너로 참여
- 공공정보 디자인
  - 정보를 위한 디자인은 정보내용과 환경을 고려하고, 정보의 주소지를 시각화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며, 통일된 Information 안내 사인시스템이 필요
  - 안내 사인시스템 – 리플렛, 지도 Information, 컬러, 픽토그램, 서체 등



〈그림 11〉 WALL사의 Blue Spot 단말기

- 정보를 담기위한 원칙
  - 처음 방문자가 도착하는 위치점을 상징하는 깃발 또는 배너를 이용하여 표시
  - 교차로 위치점 – 픽토그램 설치 (건물벽), 3D지도 설치 (시멘트, 브론즈, 장애인용 점자, 어린이용입체)



〈그림 12〉 안내지도, 픽토그램, 그리고 입체지도

- 목적을 위한 위치점 – 역사정보제공, 상점, Cafe-콘서트 등 문화예술정보, 상점정보를 위한 배너 설치
-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어두운 터널, 공간에서는 조명을 이용한 안내사인 적용

○ 정보안내지도 시스템 서비스

- 베를린 장벽을 따라서 역사적 장소 및 유적에 대한 지리정보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우어 가이드를 이용한 지원을 시행
- GPS를 활용하여 지도 및 역사적 사진을 입력하고 찾아가는 지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정보의 사회적 기능 수행과 공공사인 역할 담당
- 분단의 상징물인 찰리검문소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지역으로 변화됨



〈그림 13〉 마 우어 가이드 안내지역 및 찰리검문소(우)

○ 도시마케팅 활동 - 박물관, 미술관

- 베를린 시내 슈프레(Spree)강 삼각주지점에 위치한 알 테 갤러리, 알 테스 뮤지엄, 노이에 뮤지엄, 페라가몬 뮤지엄, 보데 뮤지엄 등이 문화터미널(문화 공간 집 적지) 역할을 수행함
- 미술관 및 박물관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가로환경디자인 개선을 통해 방문객 증가 대비와 도시 활성화 기대



〈그림 14〉 보데 뮤지엄, 알 테 갤러리(좌), 페라 가몬 뮤지엄, 알 테스 뮤지엄(우)

○ 'City of Chance'를 위한 베를린시의 방안

## 베를린 파트너

- 베를린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를 지닌 공간으로서 변화를 추진함
  - 첫째, 시장(market)은 서로의 감정을 거래할 수 있는 공간
  - 둘째, 시장(market)은 경쟁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공간
  - 셋째, 시장(market)은 경쟁을 통해서 교류할 수 있는 공간
- “베를린 파트너”는 통독 이후 베를린이 지닌 특성을 파악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진화를 위하여 시·정·경 모두의 협력을 얻기 위해 신설된 유한회사로서 베를린을 ‘방문객(외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 베를린은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장점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분야를 총괄, 운영할 수 있는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대응과 도시 마케팅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함
- 사업 이미지 확대를 위한 각종 서비스 시설 및 문화 시설, 업체 등과 같은 베를린 파트너와 회사가 연결되어 있으며, 베를린은 상품으로서, 주변도시는 주변거래 상대로 인식하며, 나아가 독일이라는 국가를 하나의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담당



〈그림 15〉 베를린파트너와 연결된 기업



〈그림 16〉 베를린 비즈니스센터 브리핑 광경

## 5. 공공 공간디자인 개선사례

### 1) 후렌츠 라우베어 주거지역

- 후렌츠 라우베어 주거지역은 1920년대 버려진 지역에서 잘 정돈된 주거지역으로 변화된 사례로서 1928년~1930년 건축가 브르너에 의해 설계됨
- 건축물의 특징
  - 자연환경과 조화, 공간공원이 거주자의 휴식공간으로 환원되도록 하였으며,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형태인 “호프양식”으로 구성됨
  - 1900년대 베를린 도시건축 이슈는 면적으로 작은 면적 안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시에서 새로운 주거형태를 변화시키려고 시도
  - 경제적 측면에서 창문에 컬러를 적용하여 변화를 유도하고 창문개조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노렸으며, “ㄷ”자 형태의 건축물 공간 안에 공원을 공동 사용케 함으로써 빈부의 격차를 느끼지 못하게 배려



〈그림 17〉 후렌츠 라우베어 주거지역

- 1920년대 건축양식이 장식적 형태에서 단순한 형태로 변화되었으며, 바우하우스의 월터 그로피우스 등 건축가들과 연계하여 건축이 이루어짐
- 후렌츠 라우베어 주거지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사회적 문화를 담당하는 지역으로 인식

## 2) 쿨 투어 브라우어라이 (Kultur Brauerei)

### ○ 현황

- 1887년 베를린에서 가장 오래된 '슐트 하이스' 양조장 설립
- 19세기 중반 맥주제조에 알맞은 지하 암반수 발견
- 1967년 맥주공장 폐쇄, 주변아파트 주거지역과 함께 함께 황폐화
- 1998년 리모델링을 거쳐 2001년 문화양조장으로 재구성되어 연간 2,000건의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 ○ 재생프로그램 내용

- 건물의 외벽을 보존하고 공연장 명칭도 과거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
- 케셀하우스(보일러실), 기계실(MaschinHaus), 마굿간(Futterbodn) 등
- 8개의 영상관으로 구성된 극장, 음악, 연극 퍼포먼스가 열리는 다목적 공연장, 키노 갤러리, 장애인전용극장 등 문화공간과 부대시설로 여행사, 슈퍼마켓, 카페 등이 있으며, 전체 4만 평방미터 중 1만3천 평방미터만 문화 예술 공간으로 활용됨
- 복합 문화 예술 공간으로 바뀌면서 젊은이들이 꿈꾸는 도시로 변화



〈그림 18〉 초창기 쿨 투어 브라우어라이 맥주공장내부



〈그림 19〉 복합문화공간과 부대시설들이 들어선 쿨 투어 브라우어라이 전경

## 3) 프리드리히 베아더 위에 있는 2개의 공원

### ○ 공공공간디자인 - 프리드리히 베 아더 공원의 조성방향

- 철저한 이용자 중심의 디자인 설계
- 비움의 디자인, 설치시설물의 최소화
- 주민, 학생참여를 유도하는 공간디자인 추구

## ○ 공원의 특징

- 높지대로서 지반을 높이고 터를 다져 공원을 조성한 지역으로 사무실 건물과 주거 지역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키 작은 나무를 공원주변에 심어 울타리 역할을 하고 쉽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함
- 공원구성소재는 오래된 분수를 새로운 공원의 주요 요소로 활용하고, 벤치는 폭을 넓혀 다목적으로 이용하도록 계획하고, 이어진 석재 벤치는 쉼터기능, 경계선 기능, 주차장과 공원의 분리 기능을 함
- 놀이터의 컨셉은 차가운 느낌을 벗어나 어린이 취향의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였으며 기동형식의 놀이기구는 어린이들 직접참여로 공유의식 부여하기 위하여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동물무늬 패턴, 빨강, 분홍 등 선호하는 색채를 적용함
- 공원 디자인 개선시 기존의 공터를 많이 변형시키지 않고 최소한의 기능과 역할만을 강조하였으며, 시민과 이용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음
- 설계 및 조성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이며, 비용은 85만 유로가 소요



〈그림 20〉 프리드리히 베아더 공원

## 4) 올라프(ULAP) 공원

- 교통수단 전시장으로 사용되었던 올라프 공원에 대한 조성방안을 찾기 위해 2005년 베를린에서 공원 설계공모를 실시
- 주변에 베를린 중앙역사가 인접한 자투리 공간으로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을 고려하여 공원화 계획 수립

- 비행기 등 교통수단 전시공간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개선한 사례로서 예전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바닥에 자갈, 모래를 시공하여 특성을 살림
- 공원 안쪽으로 나무벤치를 배치하여 이용자를 안쪽으로 유도하고 야간조명 설치
- 이전 나무계단과 새로 설치한 계단을 조화롭게 배치하고 보행은 새로 설치한 계단으로 이용하도록 함



〈그림 21〉 올라프(ULAP) 공원

## 6. 공공정보디자인 개선사례

### 1) 독일철도 안내사인 시스템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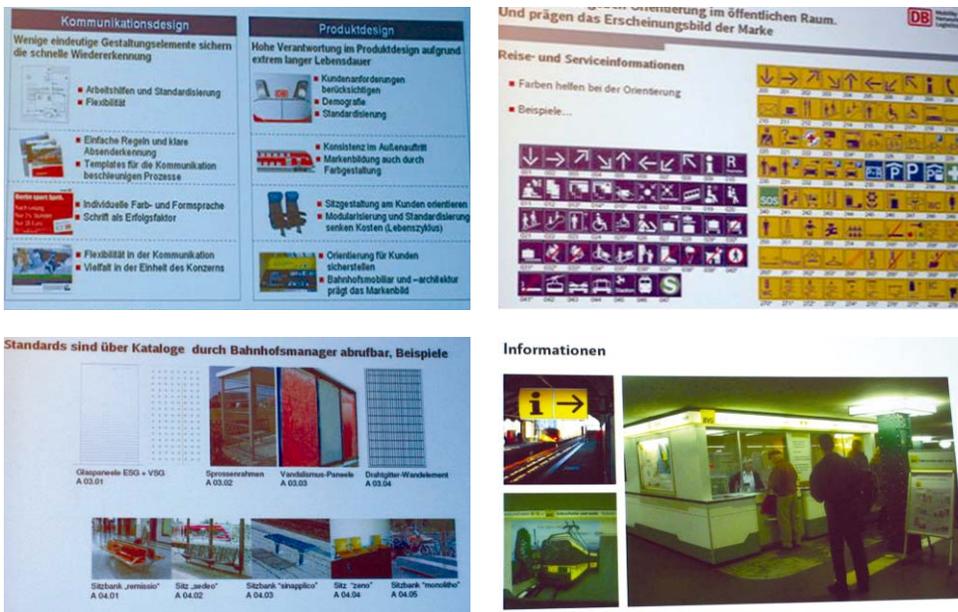
#### ○ 개발목적

- 고객과의 소통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안내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며, 디자인을 통해 회사이미지 개선함

#### ○ 픽토그램 개발 내용

- 언어, 국경초월 말하고자 하는 내용 전달
- 색상 구분으로 내용전달
- 청 색 - 기차역내 시설물 안내 픽토그램
- 노란색 - 서비스 관련 픽토그램
- 시각장애인용 - 점자 픽토그램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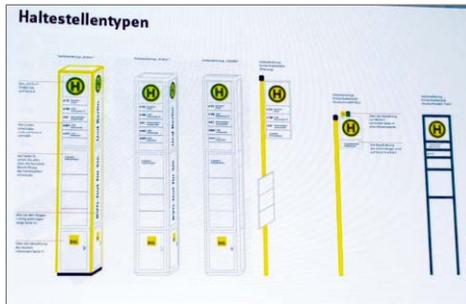
- 기차표 판매구역 개선
  - 기차역의 또 다른 이미지 구성
  - 이용객의 수, 동선파악
  - 디자인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 전달



〈그림 22〉 독일철도 정보전달 디자인 및 시설물 디자인

## 2) 대중교통수단 CI 개선 (BVG)

- BVG는 독일 최대 도시교통수단으로서 버스, 지하철의 색채 및 안내시스템, 픽토그램에 대한 디자인 개선을 통해 아이덴티티 정립
- 개선목적
  - Basic Element에서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로고와, 상단에 베를린 상징인 곰을 적용하고, 안전성을 고려한 디자인, 경제성을 추구하는 디자인, 이용자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디자인을 목적으로 함
- 배리어프리 디자인개념 적용
  - 가시성을 고려하여 주색상을 노란색으로 활용하며, 안전성을 고려하여 출입구에 조명을 설치하고, 지하철 객차 내부연결 통로를 넓게 하여 다른 칸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여 범죈로부터 안전하도록 설계됨
  - 내부 손잡이 부분은 노란색으로 처리, 시각적 가시성과 일체감 조성



〈그림 23〉 BVG 교통시스템 디자인

○ 개선효과

- 버스내부 디자인 개선을 통하여 매년 25만 유로 절감효과를 이룸

### III. 시사점 및 정책제언

- 많은 유럽 도시들이 탈산업도시, 문화도시로 이미지 변화하는 과정에서, 문화를 모티브로 한 공공디자인을 주요한 도시 활성화의 도구로 이용
  - 베를린은 철저한 사용자 중심의 공공디자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문화 예술을 활용한 도시재생전략을 추진
- 해외도시브랜드 슬로건 마케팅의 성공사례에 비해 국내 도시의 브랜드 마케팅은 시작단계로서 우리나라 도시들의 유·무형적 자산에 대한 객관적 조사, 평가를 바탕으로 도시가 지향해야 할 미래적 가치를 설정하여 브랜드 슬로건의 구축을 추진해야 함

## 부록. 워크숍 강사진

강사명	약력
루 이제 아드리안 (Luise Adrian)	○ 슈타트 포럼 베를린, 기획사무국 ○ 과정운영 담당
플로리안 아들러 (Florian Adler)	○ 아들러 & 슈미트社 시각 그래픽 디자이너
라이너 클렘케 (Rainer Klemke)	○ 상원의회 문화국, 과장
크리스토프 플렉켄슈타인 (Christoph Fleckenstein)	○ ION 디자인 베를린, 디자이너
알브레히트 엑케 (Albrecht Ecke)	○ 엑케디자인社 설립자 및 매니저, 디자이너
요헨 플락킹 교수 (Prof. Jochen Placking)	○ IDZ 이사 ○ 시장조사, 브랜드 컨설팅, 전략기획 담당
로버트 칼텐브루너 박사 (Dr. Robert Kaltenbrunner)	○ 바우베센 & 라우몰트농社 ○ 건물, 주거, 구조물과장
로날드 코흐 (Ronald Koch)	○ 베를린 비즈니스 개발청 선임매니저
리얀 압둘라 교수 (Prof. Rayan Abdullah)	○ 라이프치히 그래픽북아트 아카데미 교수 ○ 시각 그래픽 디자이너
칼스텐 헨제 (Karsten Henze)	○ IDZ 이사회 회장 ○ 독일철도 (도이체 반, Deutsche Bahn AG) CI 제작 매니저
울슬라 파라비치니 교수 (Prof. Dr. Ursula Paravicini)	○ 건축가 ○ 유럽의 민주적 공공디자인의 개발과 디자인에 있어서 국제적 실험 조사 프로젝트 수행
클라우스 클렘프 박사 (Dr. Klaus Klemp)	○ 1988년부터 프랑크푸르트市 문화과장 및 시립갤러리 관장, 디자인 이론 및 공공디자인 부교수 역임





## Part 6.

### 일본 지역재생사업 실태조사

유 학 열 \_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Part 6.

### 일본 지역재생사업 실태조사

유 학 열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1. 개 요

### 1. 조사 개요

#### 1) 목 적

- 일본 지방소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재생사업의 프로세스, 주체간의 역할, 재생기법 등의 심층 조사
- 내각부(內閣府) 내의 지역재생본부와 지역재생사업의 추진되고 있는 지역과의 연대 및 지원시스템 등을 파악

#### 2) 개 요

- 출장기간 : 2008. 8. 25(월) ~ 8. 30(토)
- 방문국가 : 일본
  - 구마모토현 아라오시,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오이타현 분고다카타시
- 방문기관 : 아라오시 시청, 분고다카타시 시청
- 출장자 : 유학열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2. 조사 내용

- 구마모토현 아라오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재생사업의 실태 및 특징
- 오이타현 분고다카타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재생사업의 실태 및 특징



## 1) 방문지역

지 역	특징 및 방문 목적
구마모토현 아라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마모토현 북서쪽에 위치한 지방소도시</li> <li>○ 지역자원을 활용한 內發的 지역발전 추구</li> <li>○ 지역재생사업의 현장 방문 및 관련 공무원과 인터뷰</li> </ul>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마모토현의 중핵도시(현청소재지)</li> <li>○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의 선진사례 지역</li> <li>○ 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의 현장 견학</li> </ul>
오이타현 분고다카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약 25,000명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지방소도시</li> <li>○ 전통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재생 성공사례</li> <li>○ 지역재생사업의 현장 방문 및 관련 공무원과 인터뷰</li> </ul>

## 2) 방문기관

기 관 명	방 문 목 적
아라오시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라오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재생사업의 내용 및 특징 등을 조사, 관련자료 수집</li> <li>○ 지역재생사업의 현장 견학 및 담당자와의 인터뷰</li> </ul>
분고다카타시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고다카타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재생사업의 추진과정, 사업 내용, 지원책 등에 대해 조사</li> <li>○ 지역재생사업의 현장 견학 및 지역 상인들과 인터뷰</li> </ul>

## II. 방문지 주요조사 및 활동결과

### 1. 구마모토현 아라오시

#### 1) 일반 현황

- 아라오시는 일본 큐슈(九州) 지방의 구마모토현 북서쪽에 위치한 전형적인 지방소도시. 2007년 12월 현재 인구는 약 5만 6천명, 시 전체 면적은 57.1km<sup>2</sup>이다. 상공업, 농수산업이 주요 산업, 재정력지수는 0.44

#### 2) 재생사업의 추진 배경 및 경위

- 아라오시는 예부터 일본 유수의 탄광지역으로 광대한 구릉지에 탄광촌이 형성돼 있었다.

그러나 1997년부터 제법 규모가 큰 탄광들이 폐광됨에 따라 탄광촌이 쇠퇴하면서 새로운 택지개발이 이루어졌으나 산업의 정체가 계속되는 등 지역 전체의 활기가 없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산업 부활을 목표로 '食'을 중심으로 한 지역재생을 추진하고자 2002년에 시의 산업진흥부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팀을 결성하여 지역자원조사, 관계단체 인터뷰조사, 선진지 시찰 등을 통해 지역의 정보, 인재, 기술, 자금을 총 결집하여 內發형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구상하게 이르렀다.

그 후 2004년 6월(1차 인정), 2005년 7월(2차 인정)에 내각부로부터 지역재생계획을 인정 받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지역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현재 아라오시의 지역재생 담당은 건설경제부 농촌수산과에서 맡고 있다(직원 3명, 2008년 8월 현재).

### 3) 재생사업의 추진 목적

아라오시의 지역재생사업의 목적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생산품의 직매 및 지역특산물 개발 등을 통해 지역 내 자금(구매력) 순환 시스템 즉, 內發형 지역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상점가의 빈 점포를 활용하여 '産學住協働'의 공간을 창출, ② 연대 조직(기업조합)을 설립하여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 ③ 지속적인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④ 큰 자본이 필요치 않으며 누구라도 가능한 커뮤니티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있다.

### 4) 재생사업의 추진 내용

#### (1) 지역공생형 연대거점 구축

지역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조직이 중심이 되어 농산물직판장 기능을 겸한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는 거점시설을 아라오시 내 3곳에 개설하였다. 이러한 지역공생형 거점시설을 '거리의 연구실'이라 불리고 있다. 판매 수익의 일부는 지역재생사업에 쓰이고 있다.

#### 【'거리의 연구실' 1호 : 靑研 (아오켄)】

아라오시 중앙상점가의 빈 점포를 활용한 거점시설로 지역 농가에서 출하한 농산물을 판매 하는 농산물직판장 기능을 하며 최근에는 시설 내에 와인양조실(winery)을 설치하여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이 점포로부터 약 1Km 부근에 입지한 대형 쇼핑센터의 영향으로 생선(生鮮)식품 가게들이 거의 대부분 문을 닫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자동차를 운전하기 어려운 고령자나 노약자들의 생선식품 구입이 쉽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徒歩圏 점포를 구상하게 되었던 것이다.

○ 운영주체 : 기업조합「中央靑研企劃」

○ 조합원수 : 5명

○ 설립일 : 2005년 11월

○ 자본금 : 50만 엔 (약 500만원)

○ 사업내용 : 농산물직판장 운영, 과실주 제조 판매, 지역 활성화 기획

○ 1일 매출액 : 약 10만 엔 (약 100만원)



〈그림 1〉 거리의 연구실

【‘거리의 연구실’ 2호 : ありあけの里 (아리아케노사토)】

사용되고 있지 않았던 농협의 쌀 보관 창고를 활용한 거점시설로서, 농산물 및 해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조합원의 평균연령이 71세로 고령자의 고용 창출 및 커뮤니티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운영주체 : ありあけの里조합
- 조합원수 : 35명
- 설립 일 : 2006년 3월
- 사업내용 : 농수산물직판장 운영, 고령자 교류 이벤트
- 1일 매출액 : 약 10만 엔 (약 100만원)

【‘거리의 연구실’ 3호 : にんじん畑(닌진바타케)】

아라오역 부근 상점가의 빈 점포를 활용한 거점시설로서, 특히 고령자의 취향에 맞는 가공 식품(반찬류, 도시락)을 제조, 판매하며 계절에 따라 다양한 이벤트도 기획, 추진하고 있다.

- 운영주체 : 기업조합「にんじん畑」
- 조합원수 : 5명
- 설립 일 : 2006년 5월
- 사업내용 : 농수산물직판장 운영, 가공식품 제조 판매

(2) 커뮤니티레스토랑 조성

약 200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민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시설인 커뮤니티 레스토랑을 2007년 4월에 개설하였다. 운영은 지역 주민(주부) 4명이 하고 있으며 지역 내 농가에서 재배 된 제철야채를 주재료로 사용하면서 향토요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설은 수익성 보다는 지역주민간의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 1일 평균 약 35,000엔(약 350,000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200백만 엔으로 아라오시와 지역주민이 각각 100백만 엔씩 부담하였다.



〈그림 2〉 커뮤니티 레스토랑

### (3) 지역재생 프로젝트 상품 개발

후생노동성이 지원하는 지역고용창조촉진 사업을 활용하여 다양한 연구회를 발족 지역 특산품을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다. 대표적인 특산품으로서는 지역브랜드 소주, 포도주, 주스, 김 등이 있으며 이러한 상품들은 지역 주민, 행정공무원, 지역농가, 전문고등학교 학생, 지역매니저 등 다양한 지역주체의 협력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림 3〉 지역재생 프로젝트 상품

## 5) 재생사업을 위한 지원책

### (1) 지역재생매니저사업

지역재생매니저사업이란 외부의 지역개발(계획) 전문가를 3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로 고용된 전문가는 실제로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주민, 공무원 등과 함께 지역재생(활성화)에 관한 활동을 한다.

- 지원내용 : 전문가(지역재생매니저) 인건비, 연구활동비 등 지급
- 연간 1,500만 엔(국고 2/3, 시비 1/3), 3년간 보조

### (2) 지역고용창조촉진사업

고용기회가 적은 지역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자발고용창조지역)이 제안한 고용대책사업 가운데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것을 선정한 후 사업을 위탁하는 제도임

자발고용창조지역이란 ① 고용기회가 적은 지역 (과거 3년간 또는 과거 1년간 유효구인배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② 자발적으로 지역의 고용창출에 노력하는 지역을 말함

- 연간 2,000만 엔(국고 100%), 3년간 보조
- 보조금은 지역 특산품 개발(소주, 포도주, 주스 등)을 위한 인건비 및 연구회 운영·관리비로 충당

## 6) 성과

- 새로운 지역고용기회의 창출
  - 20여개의 점포가 새롭게 창업
  - 200여명 신규 고용 창출
  - 특히 노인일자리 창출
- 지역커뮤니티활성화에 큰 도움
- 고령자 및 노약자를 배려한 생활편의 시설 구축
- 새롭고 다양한 지역 특산품 개발에 따른 지역 지명도 향상
- 농수산물직판장 및 지역특산품 판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 연간 판매 수익 : 5,800만 엔 (약 6억 원)

## 2. 오이타현 분고다카다시

### 1) 일반 현황

분고다카다시는 일본 규슈지방 오이타현의 북동부에 위치하며 총면적 207km<sup>2</sup>, 인구 약 25,000명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일본의 지방소도시이다. 2005년 3월 주변의 1市 2町이 합병하여 현재의 분고다카다시가 탄생되었다.

### 2) 재생사업의 추진 배경 및 경위

2008년 현재 분고다카다시의 인구는 약 2만 6천 명으로 지방 소도시에 불과하지만 에도(江戸)시대에서부터 메이지(明治), 다이쇼(大正), 쇼와(昭和)30년대까지는 주변지역의 상권을 장악할 정도로 오이타현 북부지역 중심상업도시로서 번성하였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고도경제성장기 이후 교통사정의 변화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 및 교외에 대형 상점이 입지하고, 또한 기존 상점주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인접한 우사시(宇佐市), 나카쓰시(中津市)로 상업 集積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원인으로 근년 분고다카다시의 기존 상점가는 쇠퇴해지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들이 태어나고 자라 온 고향이기도 한 중심시가지의 상점가를 어떻게든 다시 살리고 싶다' 라는 지역주민들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상점가, 상공회의소, 지역유지 등이 중심이 되어 상점가의 부흥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부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기존의 중심상점가가 가지고 있던 옛 정취 및 개성을 보존하고 되살리는데 두었다. 즉, 전국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이 지역만의 個性(얼굴)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역사 및 전통이라는 것은 아주 오랜 옛날에만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날을 기준으로 볼 때 바로 전 과거라 할 수 있는 30~40년 전의 시대에도 역시 역사와 전통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깨달아 “쇼와(昭和) 시대<sup>1)</sup>”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지역은 과거 상업도시로서 번영하였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역사를 계승해 온 상인들이 오늘날도 상점가에 살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의 역사를 재음미 하면서 계승해 내려온 쇼와의 상인기질도 재생하고자 하는 의미에서도 본 재생사업의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가장 그리워하며 애뜻한 향수를 간직하고 있는 시대 즉, 상점가가 번성하였던 마지막 시대인 “쇼와 30년대”를 지역재생의 테마로서 가장 어울릴 것이라는 지역주민들의 뜻과 의지가 분고다카다시 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되었다.

분고다카다시의 재생사업은 2005년 7월 지역재생계획과 2007년 5월 중심시가지 활성화 계획이 내각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 3) 재생사업의 추진 목적

이 시의 재생사업은 쇼와(昭和) 30년대(1950년대) 시대의 거리, 시설, 역사 및 경관을 정비, 복원하는 즉, 「쇼와의 거리 만들기(昭和の町づくり)」가 근본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쇼와의 거리 만들기(昭和の町づくり)」란 침체되고 쇠퇴된 옛 중심상점가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1950년대의 풍취를 테마로 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본 재생을 설정하였다.

- ① 쇼와의 建築재생 : 쇼와의 정취를 가진 가로 경관 만들기
- ② 쇼와의 歴史재생 : 마을과 점포의 옛 이야기 만들기
- ③ 쇼와의 商品재생 : 점포의 독자적인 상품 및 특산품 만들기
- ④ 쇼와의 商人재생 : 방문객과의 상인들과의 정감 있는 교류 만들기

이러한 「쇼와의 거리 만들기(昭和の町づくり)」사업은 새로운 관광지로서의 매력 있는 상점가를 창조하여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상점가로서의 기능도 충실히 하여 지역주민들도 찾아오게끔 하는 전략도 숨어 있다. 즉 상업과 관광, 두 가지 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의 재생을 도모하고자 한다. 2004년에 이 지역을 찾아온 관광객 수는 약 110만 명이었으나 이 재생사업을 통해 2014년에는 2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며 관광객의 소비액도 2004년의 약 18억 엔에서 2014년에는 64억 엔을 목표로 설정해 놓고 있다.

1) 쇼와시대는 일본의 시대 구분의 하나이며, 쇼와 천황의 재위 기간인 1926년 12월 25일부터 1989년 1월 7일 까지를 말함

#### 4) 재생사업의 내용

##### (1) 쇼와의 거리 정비 사업

###### ○ 쇼와의 건축재생

- 사업명 : 「오이타현지역상업매력향상종합지원사업, 「오이타현빛나는지역창출사업 (명소육성사업)」
- 실시주체 : 분고다카다시
- 실시기간 : 2001년 ~ 2005년
- 실시대상 : 재래시장 내 34점포
- 사업내용 : 전통적 건축양식 복원, 간판 정비 등



〈그림 4〉 쇼와시대 風으로 간판 정비

###### ○ 쇼와의 역사재생

- 사업명 : 「분고다카다시점포전시시설정비사업」
- 실시주체 : 분고다카다시상공회의소
- 실시기간 : 2001년 ~ 2005년
- 실시대상 : 재래시장 내 26점포
- 사업내용 : 옛 도구 및 옛 생활용품 등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 정비



〈그림 5〉 쇼와시대 생활상 전시

## ○ 쇼와의 상품재생

- 실시주체 : 재래시장 내 각 점포
- 실시기간 : 2001년 ~ 현재
- 사업내용 : 각각의 점포의 독자적인 상품 및 특산품 만들기



〈그림 6〉 쇼와시대의 상품 전시

## ○ 쇼와의 상인재생

- 실시주체 : 재래시장 내 각 점포
- 실시기간 : 2001년 ~ 현재
- 사업내용 : 방문객과 상안들과의 정감 있는 교류 형성

## (2) 쇼와의 거점시설 활용 및 정비

오늘날 다행히도 분고다카다시의 중심상점가(재래시장)에는 1950, 60년대의 전통적인 건축물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이러한 건축물들은 분고다카타시의 지역재생사업의 핵심인 쇼와의 거리를 창출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큰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집객시설, 교류시설로서의 정비, 활용을 검토하게 되었다.



〈그림 7〉 쇼와로망장

그 가운데 중심상점가에 인접해 있는 비교적 규모가 큰 개인소유의 농업창고를 '쇼와로망장 (昭和ロマン蔵)' 으로 정비하여 그 내부에 '장난감 박물관', '쇼와의 그림동화책 미술관' 을

개설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지역의 食材만을 사용하는 ‘향토레스토랑’ 및 ‘쇼와의 생활 체험관’ 등을 개설하는 등 쇼와의 거점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중심상점가에 남아 있는 옛 은행 건축물도 정비, 활용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런 건축물의 소유가 민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정비 수법에 있어서는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하고자 다음에 설명하는 ‘분고다카타시 관광지역 만들기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 (3) 쇼와의 거리 주변 환경 정비

쇼와의 거리를 더욱 더 매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전통적인 건축물, 거리의 재현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환경정비도 빼 놓을 수 없다는 인식하에 주차장, 공중화장실, 안내판 등도 쇼와의 거리 이미지에 맞게끔 정비하였다.

또한 중심상점가를 둘러싸고 흐르는 하천도 정비하여 한층 더 쇼와의 거리 매력을 향상 시켰다.

## 5) 재생사업 성과

분고다카타시의 지역재생사업의 성과로서는 우선 중심상점가(쇼와의 거리)에 찾아오는 방문객(관광객, 지역주민)이 급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업 당초의 목표치를 보면 2014년에 연간 200만 명을 설정해 놓았지만 그 목표는 이미 2007년에 달성하였다 (약 360만 명).

또한 2004년에 분고다카타시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심상점가의 연간판매액이 2004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2001년부터 시작된 지역재생사업이 실제적으로 지역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 중심상점가 연간판매액 : 521백만 엔(2002년) ⇒ 615백만 엔(2004년)

게다가 중심상점가의 점포수도 요식업을 중심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 더불어 종업원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중심상점가 점포수 : 132점포(2002년) ⇒ 136점포(2004년)

○ 중심상점가 종업원수 : 587명(2002년) ⇒ 598명(2004년)

## III. 시사점 및 정책제언

### 1. 구마모토현 아라오시에서 얻은 시사점

○ 지역매니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시사

- 기본적으로 지역매니저는 그 지역에 상주하면서 지역주민, 행정 등의 다양한 지역주체들의 의견을 수렴

- 지역에서 꼭 필요로 하고 실천 가능한 사업을 도출
- 지역매니저는 외부자로서 지역 내 주체들이 인식하지 못한 지역의 가치, 개성, 자원 등을 발견할 수 있음
- 사업 주체가 재정적, 인적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점포 등을 창업함으로써 실패의 확률을 낮춤
- 시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보조율이 높은 지원책 및 규제완화조치에 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결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 ‘産學住協働’에 의한 협동형 지역재생(활성화) 추진
- 대규모 시설 및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지역에 잠재하고 있던 자원들을 활용하면서 지역 밀착형 사회적 기업 및 커뮤니티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를 창출

## 2. 오이타현 분고다카다시에서 얻은 시사점

- 다양한 세대가 향유할 수 있는 역사와 문화에 특화시킨 지역재생
  - 현 시대의 3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근대의 역사와 문화의 보전, 재현에 착목하였다는 점에서 가족단위의 방문객(관광객)을 자연스럽게 유치
- 최근 일본의 전국적인 붐의 하나인 ‘쇼와의 붐<sup>2)</sup>’ 과 시대적 일치
- 지역의 역사, 문화, 전통적 건축물 및 가로 등 지역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하여 새로운 지역 가치와 개성을 창출
- 단순한 관광시설의 조성이 아닌, 지역주민의 생활문화를 철저히 반영시킨 ‘생기 넘치는 상점가’ 복원
- 지역주민, 상공회의소, 행정기관 및 외부전문가와와의 긴밀한 협동체제 下의 ‘協同형 지역 만들기’ 구현
- 市 독자적인 보조금제도 창설 등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 지역금융기관(신용금고)의 지원
  - 지역재생사업에 참여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무담보 융자 실시

2) ‘쇼와의 붐’이란 쇼와시대의 전반기(1930대~60년)의 문화와 생활양식, 전통 등에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의미

## 부록. 주요 조사일정

월 일	시 간	세 부 내 용	참 고
8월 25일	09:55 12:10 15:00	인천공항 출발 일본 아키타공항 도착 아키타현립대학 방문, 전문가와 의견교환	KE 769편
8월 26일	09:30 14:00 19:00	아키타현청 방문, 지역재생 관련자료 입수 아키타현다이센시, 지역재생 자료 입수 연구협력자(센가 유타로 교수) 면담	소도시 재생
8월 27일	07:15 10:50 16:00	아키타공항 출발 ⇒ 동경 하네다공항 동경 하네다공항 ⇒ 후쿠오카공항 도착 구마모토시 중심시가지 현지 견학	항공편 항공편 중심시가지
8월 28일	09:30 15:00	구마모토현 아라오시 현지 조사 -담당 : 우에조노, 0968-63-1204 구마모토현 구로가와 현지 조사 -담당 : 구로가와 협동조합, 0967-44-0076	소도시 재생 농촌마을 재생
8월 29일	09:30 15:00	오이타현 분고다카다시 현지 조사 -담당 : 후지시게, 0978-22-3100 오이타현 유후인정 현지 견학	소도시 재생 소도시 재생
8월 30일	오전 15:30 16:55	후쿠오카 중심시가지 현지 견학 후쿠오카공항 출발 인천공항 도착	중심시가지 KE790

## 참·고·문·헌

1. 권오혁·서충원, 2002, 「중소도시의 부동산 개발과 도심지 재생 전략 - 일본 나가하마시의 쿠로가베 사업을 중심으로 - 『도시연구』 제8호 한국도시연구소
2. 김승희, 2008, 「일본의 지방재생전략」 강원발전연구원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생제도 도입 방안 연구」
4. 박종철·이혁주·김항집, 2001, 「일본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유형에 관한 연구 - 355개 시정촌의 중심시가지활성화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한국지리개발학회지 제13권 제2호
5. 地方都市研究會, 2004, 「中心市街地再生と持続可能なまちづくり」, 學芸出版社
6. 内閣府地域再生事業推進室, 2007, 「地域再生のために」
7. 内閣府構造改革特區推進室, 地域再生推進室, 2007, 「特區・地域再生成果事例集」
8. 森野美德, 2007, 「都市再生の到達点と今後の課題」, SHINTOSHI Vol.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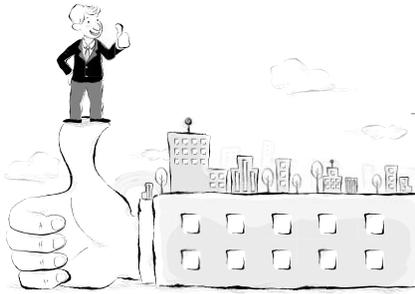


## Part 7.

지역개발사업 통합추진을 위한 사례연구

┌ 김 용 응 \_ 충남발전연구원장 ─┐





# Part 7.

## 지역개발사업 통합추진을 위한 사례 연구

김 용 용 | 충남발전연구원장

### 출 장 개 요

1. 목 적 : 일본 지역개발정책 및 추진체계 변화와 동향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제도 및 사례  
기타 지역개발선진사례 조사 및 답사
2. 기 간 : 2008. 9. 16 ~ 9. 23 (7박 8일)
3. 방문도시 : 동경도, 구마모토 현 구마모토 시, 아마도마찌, 북해도 삿포로시
4. 방문기관 : 5개 기관 및 1개 현장사례 (면담자 16명)
5. 출 장 자 : 충남발전연구원장, 국토연구원 연구진 2명 등 총 3명
6. 주 관 처 : 국토연구원 지역개발사업통합모형 연구팀

## 1. 주요 방문기관 및 주요면담내용

### 1. 내각관방 지역활성화통합본부 / 지역활성화통합사무국 지역재생사업추진실(東京都千代田區永田町1-11-39合同廳舎)

- 1) 면담자 : Deputy Director Toshiki Wani  
主査 關口岳志  
안상경 일본동양대 (Toyo University) 지역개발학과 교수

### 2) 주요면담내용 : 내각부 지역활성화 통합사무국의 구성과 주요역할

#### (1) 조직구성 배경

2007년 10월 도시재생본부(2001), 구조개혁특구본부(2002), 지역재생본부(2003), 중심  
시가지 활성화본부(2006) 4개 본부를 지역활성화 통합사무국(2007)으로 통합

## (2) 인적구성

총 107명 (국가공무원 67명, 지방공무원 30명, 민간(일본산업은행) 10명)

## (3) 조직구성

- (본부) 구조개혁특구담당관/지역재생사업추진본부 담당관/지역 활성화 추진담당관 (성청횡단/시책횡단지원)
- 8개 부력 지방연락실 설치 : 지역담당(지방원기 재생사업 착수 2008)
- 성별로 지방간사국 담당(北海道, 東北圏, 首都圏, 北陸圏, 中部圏, 近畿圏, 中國圏, 四國圏, 九州圏, 오사카현)

## (4) 기관의 역할

- 법률에 의거 도시재생, 구조개혁특구, 지역재생 및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무 실시
- 8개 부력의 지역 담당을 실시하여 지역에 대한 정책 상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및 one-stop 서비스 제공 (단 개별시책은 각 성별로 별도 추진함))

## (5) 지역재생사업

2008년 지방 원기 재생사업의 창설

- 지역주체사업, 지역발의 사업에 지원은 주로 소프트사업에 치중
- 도시와 생활의 발전 플랜 (총사업비 25억 엔) : 지원원기 재생사업은 1개 사업 2,000만 엔 한도 (시코쿠, 우야지마 진주가공, 농산물 특화(대학 연계 명품화 사업), 지역특산품, 기념품 개발, 종자사업(전국공모 4~5월, 전국 아이디어 공모 120건)
- 환경모델도시의 선정 및 지원 : 저탄소사회 전환, 국제적 선도 도시 지향 (공모)

## (6) 지역재생사업의 특성

- 첫째, 지역단위 주도 사업으로 특징이 있고 정부는 지원역할에 한정한다. 대부분 시·정·촌에서는 지역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시발전기본계획이나 정비계획과는 법률과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계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지역재생은 대부분 소프트분야에 치중된다. 그러나 두 계획은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지역단위 재생계획은 사업위주의 매우 간결한 실무적 계획이기 때문에 대부분 전문 용역회사 등에 의뢰하지 않고 공무원이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직접 작성한다.
- 둘째,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반드시 시민단체, NPO, 공공기관, 사업주체, 투자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자율적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 셋째, 지역재생계획이 제출되면 지역 활성화 본부에서는 지방연락관의 주관으로 각성과 협의하여 승인하게 되고 승인된 경우, 지방재생교부금이 배정되어 지출항목의 변경, 예산이월 등 일정한도의 통합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 (7) 기타 논의 사항

- 금융기관은 저리융자 제공하고 정부가 일부 이자를 보조하는 형식 취한다. 그동안 일본

- 개발은행이 저리용자지원을 담당했는데 현재는 내각부가 담당한다.
- 지역의 재생계획의 승인을 위한 평가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다. 그동안에는 특별히 미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했다. 도시재생승인은 1,788개 시정촌 중 1,063개가 승인됐다.
  - 구조개혁특구는 규제완화로 지역반응이 좋다. 건설업은 주식회사로서 농업에 직접참여가 불가능 했으나 구조개혁 특구제도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 (8) 수집자료 명단

- ① 都市再生戦略 (도시재생전략)
- ② 地域再生のために (지역재생을 위하여)
- ③ 構造改革特區 (구조개혁특구)
- ④ 構造改革特區 (구조개혁특구 팜프렛)
- ⑤ 地方再生戰略關連平成20年度政府予算案の概要  
(지방재생전략 관련 2008년도 정부 예산안의 개요)

### < 정책적 함의 >

일본의 정부일체의 지역 활성화정책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정부부처가 지역발전시책과 사업에 대한 연계, 조정, 통합 메카니즘으로서의 성격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발전전략으로서 성격이다. 일본은 지역발전의 동인을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산업육성보다는 지역사회의 복원과 소프트 측면의 지역기능의 활성화, 또는 재생에 두어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은 이미 인프라 투자가 상당부분 이루어졌고, 재정적자의 증대로 지역에 대한 투자 잠재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지역 활성화 정책은 예산규모나 사업범위가 극히 한정되어 있어 아직은 일본의 지역 경제 및 지역발전의 주도적 정책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극히 미미한 역할만을 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선 사업내용과 규모는 우리나라의 신활력 사업 및 새마을사업의 확대개념에 해당하고 지역발전정책 추진 차원에서는 참여정부시대의 지역혁신5개년계획과 유사하다. 지역혁신5개년계획도 국가균형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했으나 전체 지역발전예산의 10%에도 미치지 못하여 지역적 파급 효과가 크지 못했기 때문이다.

## 2. 구마모토현(熊本縣) 구마모토시 도시건설국 도시정책부 도심활성추진課

### 1) 면담자 : 과 장 西島徹郎

主幹 兼 主査 Nagamoto Toshihiro

技術參事 上野勝治

技師 後藤聰

## 2) 주요면담내용 : 구마모토시의 도심지 활성화 추진배경, 추진사업유형 및 방식

### (1) 도심활성화 추진배경

- 첫째, 5년 후 신간선 연장되는 경우 구마모토市는 지역중심거점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견되어 이에 대비한 도시계획 및 정비가 필요한 실정
- 둘째, 최근 주변 정촌과 통합하여 발전을 도모하여 정령시 지정을 받아 도청보다는 중앙 정부와 직거래 위치 확보 추구
- 셋째, 도심기능의 쇠퇴화가 심화되고 있다. 인구감소와 함께 고령인구비율이 20.7%로 도시전체 18.7%보다 높고, 상점수와 사업소수가 감소(중심시가지 사업소 비중 24.6% → 21.1%), 도심 내 주요 관광시설의 입장객수가 감소하면서 도시재생 필요성 증대 (주부 대상 앙케트 조사결과 필요하다 75.1%, 하지 않다 9.0%, 시가지 안 간다 11.2%, 모른다 4.7%)

### (2) 도심 활성화 계획의 개요 (구마모토 도심활성화 계획 자료 참조)

- 총 면적 415ha(도심구역경계는 강, 큰 도로, 성곽, 철도)
- 도심활성화 거점지대 : 아케이드 중심상가, 역사문화 주거지대, 역주변지대 등
- 계획기간 : 2007. 5 (평성 19년) ~ 2012. 3 (평성 24년)
- 총 사업수 47개 사업 : 관주도사업 - 파란색, 국가 합동청사 및 하천정비 등 3+ 나머지 현과 시 사업/ 노란색, 공공과 민간 공동사업/ 갈색, 민간부문 사업 (구마모토도심활성화 기본계획 개요판 참조)
- 사업유형사례 : 구마모토 역 주변 마찌꾸구리 사업 - 도로정비, 이미지 및 디자인 사업, 역사 리모델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 구마모토시 도시활성화계획서 : 공무원이 협의회와 협의 후 직접 작성

### (3) 도심활성화 추진방식

- 추진방식 : 국가사업은 국토청지방정비국에서 직접시행하고, 사업유형별로 국가 교부금이 배정되나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데 대략 40% 정도임
- 교부금, 예산 배분방식 : 구마모토현 도시재생사업계획수립 → 국토청 지방정비국 제출 → 내각부 승인요청 → 각성과 협의 승인 → 각성에서 예산배정
- 예산 활용방식 : 지역재생사업은 동일유형 사업내에서는 전용 가능

### (4) 구마모토 도심 활성화 협의회와 주식회사 마찌꾸구리 구마모토

- 구마모토 활성화 협의회 : 구마모토시+상업·교통 사업자 + 마찌꾸구리 주식회사 + 상공회의소 + NPO + 대학 + 마찌꾸구리 단체
- 마찌꾸구리 주식회사 : 계획승인의 필수 조건으로 설립, 아직까지 구체적 역할 없음. 출자는 구마모토시 + 상공회의소 + 상업 및 교통사업자 (백화점과 JR)

- 마찌꾸꾸리 주식회사는 형식요건만 갖추고 있고, 현재 사장과 간부는 주로 백화점 사장 등이 맡고 있다. 앞으로 간판사업, 주차장 사업 등

**(5) 기타 지역개발사업**

- 도심 내 아케이드 정비 사업이 매우 인상적이다. 기존 가로에 아케이드 가로 천정을 설치하고 바닥은 보도형으로 개조하고 주변 골목형 시가지를 아케이드와 연결하여 보도 중심, 간헐적 차량 통행 허용
- 아케이드 내 상점가 및 가로, 골목형태의 가로와 상점은 대부분 리모델링하고 깔끔한 디자인 고품격 실내 장식을 갖추도록 했다
- 아케이드 사업은 가장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인데, 이들 사업은 상점가 협회회의 주도로 오랫동안 추진되어 왔고, 현재 부분적 추진중임

**(6) 수집자료 명단**

- ① 熊本市中心市街地活性化基本計 書概要版  
(구마모토시 중심시가지활성화 기본계획 개요판)
- ② 熊本市中心市街地活性化基本計 書  
(구마모토시 중심시가지활성화 기본계획)

**< 정책적 함의 >**

구마모토시 도심 활성화 계획은 개량형 도시재생(on site improvement)의 형태를 띠고 있다. 기존 개량형 도시재생과의 차이는 소프트 측면이 강조되고 지역사회의 능동적 참여, 추진 방식에 있어 파트너십이 강조되는 점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오래전부터 추진되던 것을 최근에는 내각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성청 간 조정과 시책과 사업 간 조정, 통합, 예산의 자율성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사업들이 대부분 소규모적이고 기존 시설과 기능의 활용 측면이 강하여 지역 발전의 획기적이고 새로운 동인을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구마모토현(熊本縣) 야마도마치(山都町) 기획진흥課**

- 1) 면담자 : 主事 藤川秀一 (후지카와), 村上敬治術 (무라카미)
- 2) 주요면담내용 : 야마도마치의 지역발전현황과 마찌꾸꾸리 사업
  - (1) 야마도마치의 일반현황
    - 야마도마치는 구주의 중앙부 3개 마찌(町) 및 무라(村)가 통합하여 새롭게 탄생 (쇼요마치 + 야베 + 세와무라) / 군청은 가장 큰 쇼요마찌에 위치

- 인구는 17,531명 (세대수 6,198세대) / 면적은 544.83Km<sup>2</sup>
- 농업중심 지역이고 차, 고원, 야채, 버섯, 쌀, 블루베리가 특산품이며, 清和文樂 인형극이 전통문화로 유명

## (2) 아마도마씨의 예산현황

- 일반회계(세입) 123억 엔 (재정자립도 19%)
  - 지방교부금 48% (59억 엔)
  - 町債 10억 8천만 엔
- 특별회계 : 노인복지 26억 엔 / 개호보험 21억 엔
- 일반회계(세출)
  - 인건비 22.7%, 보조비 4.6%, 공채비 18.8% (의무적 경비 46.1%, 경상적 경비 29.3%)
  - 투자적 경비 17.9% / 민생비 21.4%

## (3) 일반회계 주요사업

- 첫째, 자립심을 키우는 사업 : 자치진흥구 조성금 / 지역쓰꾸리 조성금 / 커뮤니티 조성금 / 노인구락부 활동조성금 / 지역 / 청사건축 / 광고 / 세대 간 교류사업 등
- 둘째, 지역자랑거리 지원 사업 : 농업, 임업, 축산업 특화사업 / 이벤트개최사업 / 외국 청소년 유치사업 등
- 셋째, 친자연/친환경사업 : 도로 / 상점가 보조
- 넷째, 100세까지 살기 사업
- 다섯째, 과거와 미래 연결사업 : 문화재 및 경관보전 / 촌사 / 도서관 지원 등

## (4) 아마도마씨의 마찌꾸꾸리 사업

- 기 조 : 축축하고(水), 文樂, 서늘한 바람을 기본으로 한 지역재생계획

### ① 마찌꾸꾸리 주요사업 내용

- 커뮤니티 활동 구축
- 농축산물 가공 및 농촌 후계자 육성
- 20분 이내 이동접근 확대 (전도로망 5%)
- 도로망연계 제휴 (읍도로, 임도망 연계)
- 생활권 고령자중심 복지 증진
- 장애인 관계없는 인격, 개성 존중사업
-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사업 등 총 16억 엔

### ② 道整備交付金 : 목적별 교부금

- 도로교부금 : 도로사업간 융통성 발휘 (임도사업 가능)
- 폐교활용 : 민간구입 지역 활성화 이용 / 노인보양 및 지역 커뮤니티 촉진
- 녹 색 : 국가교부금 사업

- 마찌꾸꾸리 사업은 내각대신의 승인을 받고 예산 활용범위가 자유롭다는 차원에서 일반예산과 차이가 있다.

#### (5) 마찌꾸꾸리 수립 및 추진절차

- 시민참여계획의 일환으로 수립하며 반드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다.
- 외주계획은 매우 드물고 대부분 내각부 지도, 타 지역 사례 등을 참고하여 공무원이 직접 작성한다.
- 마찌꾸꾸리 사업계획은 내각에 직접 신청하여 추진하며 전체 사업의 70%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임도 사업 등 전체 사업의 20~30%는 현(縣)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현을 통하여 내각부에 사업을 신청한다.

#### (6) 마찌꾸꾸리 사업의 평가

- 마찌꾸꾸리 5년 계획이 2009년 완료되면 내각부의 평가를 받고 향후 추진여부 결정(50%를 받으면 여유 있게 예산 사용 용이함)

### 3) 나카시마(中島) 초등학교 폐교 “고꼬루” (夢工房) 방문

- 면 담 자 : 이사장 佐藤豊 (사토후), NPO 법인 : volunteer 법인
- 폐교활용사례 : 정부보조금으로 폐교 리모델링, 노인 복지시설로 활용
  - 현재 25명 수용 (12명 통소, 3명 장기 거주 요양)
- 지역밀착형 소규모 다기능 居宅介護據點 “고꼬루”
  - 교실동 2층 800m<sup>2</sup> : 다목적실, 지역교류실, 프론티어실, 레크레이션실
  - 급식동 (활동상황 : 고꼬루 통신 제1호)
- 총 사업비 : 3000만 엔

### 4) 수집자료 명단

- ① 熊本縣山都町概要 (구마모토헌 야마토정의 개요)
- ② 熊本縣山都町 2008년도 예산
- ③ 熊本縣山都町の地域再生計畵 (구마모토헌 야마토정의 지역재생계획)
- ④ 熊本縣山都町 지역재생기반강화 교부금 자료

#### < 정책적 함의 >

일본 농촌형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예산규모, 마찌꾸꾸리 사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공동체 복원과 노인복지 등 복지 지향적 사업, 생활편익사업 그리고 기존 시설의 활용 극대화를 위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밖에 농가 소득증대에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산업 및 고용 구조의 개편이나 새로운 기획의 창출을 위한 사업은 거의 발견되지 않아 우리의 농촌 진흥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 4. 홋카이도(北海道)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 (통합청사 방문)

- 1) 면담자 : 국제협력실 실장 山田 賢 (Satoshi Yamada, Director)  
조사 전문가 飯田修司 (Shuji Lida, Research officer)  
국토교통 사무관 宮崎 了輔 (Ryosuke Miyazaki, Official)

#### 2) 주요면담내용 : 홋카이도 연혁, 지방정비국의 조직과 역할 및 지역 활성화 제도적 수단

##### (1) 홋카이도 개발연혁

- 1869년 메이지 시대 러시아 진출 억제 위해 적극적인 개발정책 착수
- 제1차 세계대전 후 식량난 해소를 위해 적극 개발
- 홋카이도 인구 : 560만 명 (사포로 180만 명) / 면적 8만 km<sup>2</sup> (180개 시정촌 8개 sub-region에서 관할)

##### (2) 홋카이도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 설립 배경

- 1950년 홋카이도 특정지역개발법 제정으로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 설립
- 국토교통성 본부 산하의 북해도국이 설립돼 있고, 북해도에는 실행조직인 홋카이도 지방정비국 설치됨
- 북해도 지방정비국 : 도로정비 / 하천정비 / 항구정비 / 공항정비 / 농업기반정비

##### (3) 홋카이도 지방조직의 규모 및 관리

- 홋카이도 국토교통성 인원 : 총원 6,000명  
(본부 600명, 나머지 8개 지역분국)
- 보건후생, 다양한 중앙부성 인원 : 약 12,000명 추정
- 지방조직의 지위 : 중앙부성의 국장급이 책임자
- 북해도에는 국토교통성외에도 농림수산청, 후생노동성, 환경성 및 기타 부성이 파견되어 단일건물에 입지
  - 다양한 부성과연조직 상호간에는 특별한 통합관리 기능이나 제도 미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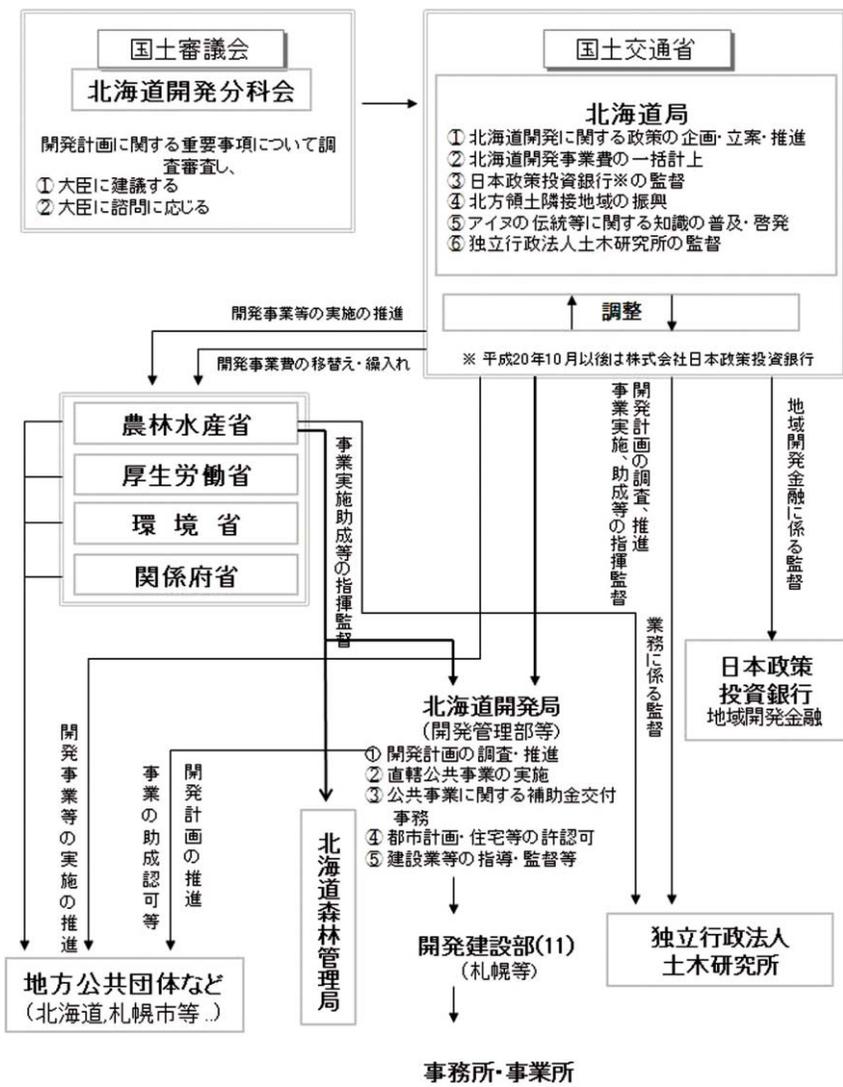
##### (4) 홋카이도 지방조직과 부성본부와의 역할관계

- 2000년까지 중앙성청에서 관리하던 건설업면허, 도시계획인가, 보조금 결정은 2001년부터 지방조직이 담당
- 부록별 예산의 일괄배정 후 구체적 개별사업은 지방조직이 결정
  - 사업유형별 예산배정 : 도로예산 / 하천예산 / 항구정비예산 등 일괄배정
  - 단 예산신청단계에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서 제출

##### (5) 지역 활성화 사업추진 및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

- 민간주도, 지역창의적 사업 전략적 협의 후 중앙 지역 활성화 사무국으로 연계

- 시정촌과 지역재생 위탁계약 체결 (구체적 예산문제는 내각부가 결정)
- 일본의 지역 활성화 사업을 제외하고는 부성별 보조금사업 개별 추진
  - 분할 추진되는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한 제도는 없음
  - 다만 지방분권의 진전으로 지역의 자율조정 역량이 커지고, 행정정보의 internet 정보의 확산으로 지역단위 시책 및 사업간 연계 조정의 폭이 넓어지게 됨



〈그림 1〉 北海道開発行政のしくみ

- 정책균이란 부성간 유사사업을 연계한 예산배정방식으로서 예산요구단계에서 상이한 부성의 다양한 사업을 통합하여 심의하여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임
  - 구체적 사례 : 건설업 허가신청과 경영상담 사업을 상이한 부처가 담당하나 예산을 같이 신청하여 자연스러운 조정과 연계가 이루어짐

## (6) 국토교통성 관리가 본 북해도총합개발계획의 한계와 전망

- 전국의 8대 부록계획의 하나인 북해도 총합개발계획은 국토형성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국토교통성이 광역 인프라 및 대규모 시설물 건설에 치중하는 정부주도의 광역지방계획의 성격을 지닌다.

- 총합개발계획 내용 : 국교성 (치수, 도, 항만, 지압도로 교부금사업, 기타) / 농수성 (치산, 농업농촌, 기타) / 후노성 (폐기물 처리) / 환경성 (자연공원 (교부금) 수도)

- 부록단위 계획은 중앙집권적 계획으로서 지방분권시대 지역의 자율과 참여라는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道州制를 통하여 지방분권과 자율역량이 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경우 정부주도의 부록계획은 자연적으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 (7) 수집자료 명단

- ① 北海道開發行政のしくみ (북해도개발행정의 구조)
- ② 北海道開發局事業概要2008年 (북해도개발국 사업개요 2008년)
- ③ 北海道總合開發の概要 (북해도 종합개발의 개요)
- ④ 2009年北海道開發予算等に關する要望 (2009년 북해도 개발 예산 등에 관한 요망)

### < 정책적 함의 >

첫째, 북해도는 일본의 미개발지로서 중앙정부의 직할지 비슷한 성격을 지녀왔다. 북해도 지역개발 진흥국 등 중앙부처의 행정기관은 중앙정부의 시책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 역할을 수행 및 방청을 설치·운영해 왔다. 다양한 북해도 등 8대 부록은 지역자율과 참여를 보여준다.

둘째, 북해도 등 전국의 8대 부록 또는 광역 지방계획권은 지역자율과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의 종합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광역경제권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8대 2000년대에 들어와 중앙정부 주도의 8대 지방계획권 대신에 지방분권과 자치에 기초한 9-13개의 도주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광역경제권은 일본의 8대 지방계획권을 벤치마킹하는 경우 지역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종합적인 경제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경직적 비효율적인 중앙집권적 시스템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된다.

## 5. 홋카이도 도청(北海道 道廳) 기획진흥부 지역쓰꾸리 지원국

- 1) 면담자 : 마쓰꾸꾸리 지원국 主幹 野田剛三, 主査 鈴木啓之  
총무과 主査 横田弘之, 主幹 柴田敏治, 主査 中里文美

2) 주요면담내용 : 북해도 일반현황, 지방분권화 수준과 도주제 추진 현황, 지역발의 예산제도, 지역쓰꾸리 사업, 지역재생 차렌지 교부금, 지역정책 통합보조금 등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제도와 추진실태

(1) 북해도 일반현황과 개발동향

- 북해도청과 14개 사무소 : 직원 수 17,000명
- 북해도 현황과 지역발전 비전 : 북해도는 재정취약,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북해도가 지향하는 지역발전비전은 “안정과 안전사회” 지향
- 북해도는 메이지시대 이후 지난 150년간 개발촉진을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집중적 투자와 개발방식을 채택하여 현재 인구 500만 대도시인구 180만 명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중앙정부 주도방식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지역은 그 안에서 해결하자는 지역 주권형 지역개발 요구가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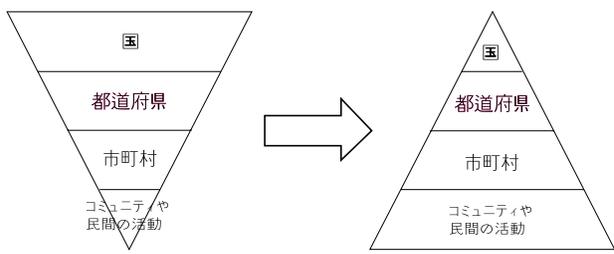
(2) 지역 및 주민선도의 지역개발과 도주제 추진

① 주민선도의 지역발전 요구 증대와 도주제의 추진

- 지역발전에 있어 주민선도, 지역자율 참여와 주도가 중시되고 주민의지와 동기부여가 주요 과제로 등장했으나 기존의 중앙집권체제하의 지방분권 추진이 이 같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 실질적인 분권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의 틀을 깰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여 도주제가 대두하게 됐다.
- 전국 47개의 도도부현을 9~13개의 道州로 나누고 자치입법, 조세 및 재정예산권을 갖도록 하는 분권국가 논의와 제도적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도주제의 추진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일부 제도 개편 등 일시적 조치보다는 장기적인 논의 구조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도주제의 실시를 위한 제도와 행정시스템의 구축 등 사전 대비책을 장기적 단계적으로 마련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② 道州制 모델과 도주제 특구 제도의 도입

- 도주제의 모델은 최상층부의 국가의 비중이 과다하게 크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지역 사회와 민간 활동 비중이 극히 취약한 기존 국가의 틀을 정점의 국가의 비중을 가장 작게 하고 도주와 시정촌 및 지역사회의 비중이 반대로 커지는 국가의 틀을 의미한다.



〈그림 2〉 道州制의 이미지

### (3) 지역발의 예산제도와 통합추진의 대표사례 (요코타 横田 主査 발표)

#### ① 북해도 예산제도의 연혁과 지역발의 예산제도

- 명치 2년 1869년 정부는 북해도의 집중개발을 위해 開拓使 설치했고, 일차세계 대전후 북해도 개발국 및 개발청으로 확대 개편됐다.
- 1985년(소화 25년) 북해도 개발법(자원개발법)이 제정되었고 법에 의거 북해도 개발계획이 수립됐다. 2017년 목표의 북해도개발계획이 2008년 7월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 북해도 개발계획에는 치수, 도로, 항만, 공항, 주택, 하수도, 농업정비, 폐기물처리, 그리고 후생노동성 및 환경성 사업 등 국가직할사업과 국가보조의 지역사업도 포함된다.
- 북해도 개발계획의 예산은 국토교통성 지방국에 의거 일괄배정을 받는데 이것을 지역발의 예산제라 한다. 지역발의 예산은 전체 지역개발예산의 60%정도를 차지한다.

#### ② 북해도 예산신청 및 예산배정 과정

- 북해도개발예산은 국토교통성 지방정비국에서 환경성, 후생노동성 등 중앙성청 조직의 예산을 취합하여 국토교통성 북해도 개발국에 제출한다.
  - 북해도 개발국은 북해도개발계획조사 및 추진, 직할공공사업의 추진, 공공사업 보조금 지급, 도시계획 및 주택건설 인허가, 건설업지도,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 지방자치단체인 북해도의 예산승인 및 배정절차를 보면 북해도청에서 북해도 지방정비국과 중앙의 각 성청에 요구서를 제출한다. 북해도 지방정비국은 국토교통성 북해도국과 각 성청에 예산요구사항을 제출하고, 국토교통성 북해도국에선 각성청과 최종협의를 통하여 북해도에 예산을 배정한다.
  - 북해도 예산은 각 성청별 예산 결정이전에 결정된다. 즉 북해도청의 예산이 결정된 후 각 성청의 예산이 결정된다.

#### ③ 일본 8대 지방계획에 대한 의견

- 현재의 중앙집권체제하에서 국토교통성의 지방정비국은 지역개발투자를 확대하는 많은 기여를 한다.
- 따라서 지방분권과 재정자율이 상당 수준 진전될 때까지는 국토교통성의 지방정비국의 존속을 희망한다.
- 그러나 국토교통성의 지방정비국과 같은 중앙성청의 지방조직은 지방분권과 자치에 역행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도주제가 확립되면 가장 먼저 폐지 폐지해야 한다.

### (4) 지역 썬꾸리 지원국의 업무 (主査 中村, 나까무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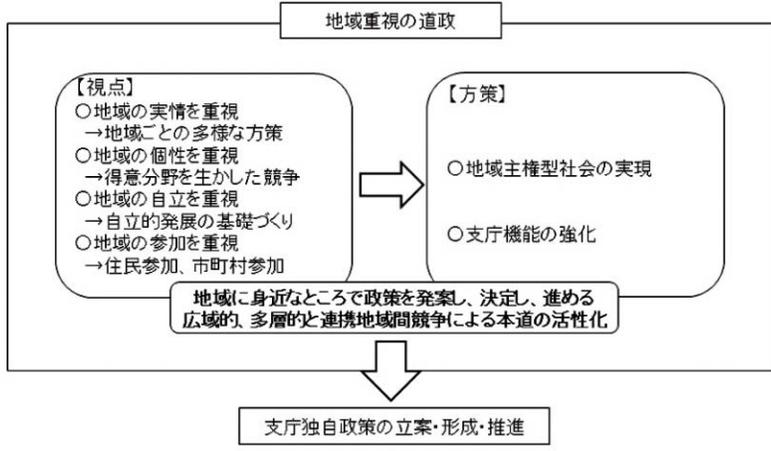
#### ① 지역 썬꾸리의 기본적 특성과 목적

- 지역썬꾸리는 지역주권형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지역개성을 살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활성화를 추구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 지역쓰꾸리 사업추진은 단계별로 주민의 의견청취가 필수적이다.

② 지역 쓰꾸리 사업의 추진 시스템

- 북해도는 도청행정차원에서 14개 sub-region으로 구분되어 하위 공간단위별 사무소(支廳)와 담당관이 배치되어 있다.
- 14개 支廳별 독자사업계획을 입안하여 산하 市町村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3〉 支廳獨自政策の推進

③ 지역 재생 차렌지 교부금 개요 (古關 主任)

- 삿포로는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격차가 증대되고 있어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공공 단체-주민-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지역재생 차렌지 교부금 설치하고, 2007년 7월 선진 모델사업 2008년 4월부터 본격 추진하게 되었음
- 지역재생 차렌지 사업은 지역 스스로의 아이디어에 의거 지역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삿포로를 제외한 지역 내 Hardware 및 Infra 사업이 아닌 소프트 사업에만 지원한다.
- 지역재생 차렌지 교부금 지원은 3년간이고, 2008년 지원액은 2억6,000만 엔, 2007년은 1억 엔에 달한다.
- 그동안 23건에 1억 8,000만 엔이 지원되었고, Project 별 상한액은 1,000만 엔에 달하나 매칭펀드의 의무는 없다. 지역재생 차렌지 교부금은 4월에 모집하며 인구 감소율 및 고령화 등 낙후도에 따라 결정된다.

④ 지역정책 통합보조금 (菅原 主任 발표)

- 시정촌 단위의 보조금 1998년부터 지급, 가장 규모가 큰 보조금 규모는 2004년 64억 엔이었고, 2008년 지원 교부금 총액은 28억 9천만 엔 (2007년 34억 엔)

- 교부금 지원내역을 보면 Hard계 사업은 최대 1억 엔, soft계 사업은 최대 500만 엔, Hard-soft 통합사업 (Hard 2억 엔, 소프트 2,000만 엔 지원)
  - Hard계 사업은 사회복지 시설 8개 사업, 대부분 시설정비 사업
  - Soft계 사업 14개 사업 : 지역복지추진사업 / 지역문화 소프트진흥사업 / 지역 정보화추진사업 / 지역국제화사업 / 지역경관형성 / 지역경관보전 / 지역창조 사업 / 지역간 교류연대 / 이주촉진사업 / 지역특산물 장려 / 임수산업진흥 / 상공관광업 / 지역고용대책 / 시정촌 광역행정 / 에너지 절감사업 등
- 구조개혁특구 및 다양한 지역 활성화 사업이 차지하는 지역발전 예산비중은 정확 하지 않지만 대략 전체 예산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면, 일본 전국의 지역 활성화 관련 예산이 7,204억 엔으로 우리나라 국가균형 특별회계 예산과 규모차원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 2006년도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예산은 5조 9천억 원이고 이중 지역혁신계정 예산은 1조 4천억 원이다. 이들 국가균형발전예산을 69조 4,262억 원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지역발전관련 예산 총액(교육·문화 및 사회보장 제외한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 일반 및 특별회계)과 비교하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총액은 지역발전 관련 예산의 8.5%이고, 지역혁신계정 예산 규모는 2%에 불과하다.

#### (5) 수집자료 명단

- ① 地域再生 차렌지 교부금 개요
- ② 平成20年度地域政策總合補助金の概要 (2008년지역정책종합보조금 개요)
- ③ 支聽獨自政策の推進`地域政策推進予定事業一覽 (지청독자정책 추진, 지역정책추진 예정사업 일람)
- ④ 地域主權型社會のモデル構想2007 (지역주권형 사회 모델 구상 2007)
- ⑤ 北海道 (북해도 간이통계)
- ⑥ 道州制 이미지, 도주제를 향한 북해도의 준비
- ⑦ 구조개혁특구와 지역재생에 관하여
- ⑧ 홋가이도 모습 및 みなさんの道聽(北海道) 여러분의 도청(북해도)

#### < 정책적 함의 >

일본은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 경향이 강하고 지역개발에 있어서도 중앙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 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북해도이다. 북해도의 주요 개발사업과 시책은 중앙정부의 특별지방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북해도 국토교통성 지방개발국은 지역 내 각 부성과 자치단체 보조금 예산을 통합하여 발의하여 승인받는 절대적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단위 복지 및 삶의 질에 관한 시책과 사업에 치중해오고 있다. 최근 중앙정부주도 및 의존적 지방발전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면서 북해도가 발의한 “도주제특구추진법”이 제정되어 보다 지역문제는 지역이 담당 하는 본격적이고 지방주권형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북해도의 사례는 새로운 지방분권 운동의 경향과 지방의 자율권 확대를 위한 재정분권과 예산제도 개편 및 주민주도적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 첫째,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의 기본 틀을 분권형으로 바꾸려는 도주제의 시범적 추진이 이루어지고, 시정촌 단위에서 상향적 분권화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 둘째, 지역 활성화 및 마찌꾸꾸리 사업은 소단위 주민참여, 소프트사업 위주로 되어 있고, 예산 규모가 매우 작은 것이 특징이다.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대규모투자, 기업유치 및 산업구조 조정과 같은 시책과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 셋째, 최근의 지방분권의 확대, 재정분권 예산제도의 개혁 및 정책권 제도 등으로 지역단위 시책과 사업간 통합적 추진가능성이 크게 확대됐으나 전체 지역개발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 매우 제한적이다

## II. 기타 지역개발사례 특성

### 1. 동경 지역개발사례 현장

#### 1) 동경 수도권 집중 및 규제시책 변화

( 안상경 교수, 동양 (Toyo) 대학 지역개발학과 교수 면담 2008. 9. 17 )

##### (1) 일본의 수도권 집중과 공간구조의 변화

- 일본은 전통적으로 동경, 오사카 및 나고야 3극 체제를 형성해 왔으나 1960~70년대 동경집중이 심화되어 일극집중구조로 변화됐다. 그러면서 수도권분산과 규제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 최고조의 버블이 깨지면서 동경 집중 부동산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다.
-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의 경지 침체가 심화되고 동경의 집중감소 및 부동산 가격 급격한 하락이 10년 이상 계속되는 상황임

##### (2) 일본 수도권 규제 완화 동향과 정책적 함의

- 일본 수도권은 버블이 깨지고 10년이 넘는 2002년 공장규제와 대학정원규제 완화 조치를 했다. 대학정원규제는 지방대학 학생감소 대응과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조치이다.
- 한국의 수도권규제 완화론자들은 동경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 수도권 규제완화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동경집중 추이와 시장 동향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 일본 수도권은 공장규제 완화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와는 시장 메카니즘과 커뮤니티 역할이 달라 수도권 내 산업투자가 증대하거나 새로운 기업의 입지가 크게 늘지 않는다.

- 첫째, 수도권은 땅 값이 비싸고, 市街化 調整區域으로 묶여 있어 산업입지 매력도가 높지 않다. 그러나 한국의 수도권은 비록 지가가 높다 하더라도 농지나 녹지를 용도 전환하는 경우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입지수요가 폭등한다.
- 둘째, 일본 수도권에는 대규모 개발이외의 개별적 공장건설은 주민의 반대 등으로 쉽지 않다. 일본 수도권에는 대형 계획적 개발이외는 더 이상 개발이 어렵다.
- 셋째, 공장입지 및 건설허가가 쉽지 않다. 삶의 질, livability 등이 주요한 사회적 이슈이고 수도권 차원에서는 세계적 leading city, 국가경쟁력이 화두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 (3) 한국의 도시 및 지역개발의 문제점

- 한국의 도시개발은 거대 자본의 논리만 지배하여 개발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소단위 지역사회가 없고 개인적 삶의 질에 대한 고려가 없다.
- 특히 지역문제 해결에 있어 주민과 지역사회의 자율과 참여의 힘을 키우는 데 소홀하여 개인의 복지 증진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
- 향후 한국의 도시 및 지역개발에 있어서도 준비가 안 된 사업이나 대규모 투자보다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제도적 역량을 키우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 자율과 창의를 살리는 데 치중해야 한다. 지역공동체의 부활, 자활적 문제 해결 역량 증대, 지역사회단위 신용협동조합, 주민발의 사업, 소단위 저축 및 금융지원 활동 등을 활성화하는 데 치중해야 한다.
  -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체인지 에이전트(Change Agents)를 육성하여 지역사회 참여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 체인지 에이전트는 지역 리더 발굴과 육성, 주민참여 촉진 및 동기부여 공동문제 해결에 대한 자문 및 지도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 역량을 키우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 2) 동경 록본기 힐즈(Tokyo Rippongi Hills) 및 동경 미드타운 도시재생 현장

### (1) Tokyo Rippongi Hills (238m, 54층)

#### ① 단지개발 개요

- 1986년 재개발유도지구로 지정 이후 400여명의 지권자들과 함께 17년에 걸쳐 추진된 일본 최대의 민간 시가지재개발 프로젝트로 2003년 4월 준공됨
- 단지 면적은 11.6ha (35,000평)으로 “문화 도심” 건설을 목표로 오피스, 주거, 상업 시설, 문화시설, 호텔, 시네마 콤플렉스, 방송국 등 “거주, 비즈니스, 유흥, 휴식, 교육, 창조”라는 다기능 수행을 지향함
- 비슷한 면적의 뉴욕의 맨하탄 거주인구는 150만 명, 주야간 인구비율은 2:1인데 비하여 도쿄 도심 4구는 인구 50만 명, 주야간 인구 비율 6:1에 불과함

## ② 현재 개발 및 이용 실태

- 도시 재생으로 건설된 도심 내 문화, 위락, 및 7개 동의 주거 건물 대형 복합 록본기 힐 건물 cluster 군이 형성되어 200여개의 사업소가 밀집한 명실상부한 콤팩트 시티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고급브랜드 140개, 70개 음식점) (록본기 힐스 오픈 한 달 간 635만 명 방문 기록)
- 주요 건물 : 록본기 힐즈 gate town(238m, 54층) / 록본기 힐즈 아레나 / 록본기 힐즈 모리타운 / keyakizaka complex / 록본기 museum core (모리미술관 / 모리아트센터, 갤러리, 동경 view) / Hollywood beauty plaza 등 11개 건물 집단

## ③ North tower (퀵 스타일 미식가 공간)

- 유명한 맛집부터 몸에 좋은 유기농 식품 등 다양한 음식료품 19개 / 패션 등
- Koots, Petit Quatorrze, Tully's Coffee, Cold Stone Creamery, Banana Republic, Lapis, Capriccsosa, Tetsugama, Sugamo Konaya, Temonia, Call Cuisin, Katsumara, Laundry Ogura, family marts,

## ④ 기타 건물 및 시설 공간

- Hollywood Plaza : 미용, 음식, 건강, 종합 floor
- 웨스트 워크 : 유행을 선도하는 개방적 공간 - 패션, 특산물, 음식, 건강 각종 Clinic
- Hill Side :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예술과 생활의 공간 (영화관 콤플렉스, 서비스 공간)
- 록본기 Keyakizaka 길 : 풍요로운 명품거리

## (2) Tokyo Midtown (도쿄 마니토쿠 아가사카, 도시재개발 현장, 248m, 54층)

## ① 개발개요

- 2000년 방위청 본청이 이전함에 따라 남겨진 대규모 부지에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컨소시엄으로 6개사가 참여하여 2005년 “도쿄 미드타운”으로 명명했다. 2007년 3월에 완공됐다.
- 개발면적은 약 24,000평(78,400m<sup>2</sup>)이고, 건물 면적은 172,400평(569,000m<sup>2</sup>)이다. 이중 오피스는 54.7%, 주택 517가구 20.6%, 호텔 248실 7.7%, 상업 12.5%, 기타 3.6% 등이다.

## ② 개발 및 이용실태

- Tokyo midtown은 넓은 녹지공간과 6개의 대형 건물로 구성된 새로운 스타일의 복합도시 공간(미드타운 이스트 25층, 미드타운 웨스트 13층, 미드타운 타워 54층 248.1m, 가든 타워 8층, 파크 레지던스 29층, 디자인 워 등)
- 숭과 레스토랑은 4층의 보이드 공간으로 구성된 갤러리아, 프라자, 가든 테라스 등의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 한 달에 약 408만 명 방문, 4월 골든 워크에는 9일간 150만 명 방문
  - 록본기 힐즈는 젊은 층 겨냥이라면 미드타워는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했다. 그래서 상업시설을 콤팩트하게 한곳으로 배치했다.

- Plaza, Garden, 28개의 Restaurant and Bars, 35개의 Food & Cafe, 23개의 뷰티, 헬스케어, 꽃집, 애완동물센터, 문구, 서점, 양국, 35개의 Fashion Stores, 19개의 Interior & Design Shops
- The Ritz Carlton Hotel, Suntory Museum of Art, Medical Center

### (3) 동경임해도시 현장

#### ① 개발계획 및 개요

- 동경 임해부도심(Tokyo Water Front Development) : 1988년 동경도, 3개 공사 및 48개 금융기관에 의하여 구성된 동경임해도시개발주식회사(ToKyo Water Front Development Inc)에 의하여 제 3섹터 방식으로 건설된 신신가지이다.
- 총면적은 488ha(약 150만평) 으로 국제 업무, 문화 및 교류기능, 주거 및 위락 기능 등 4개 특화구역으로 계획, 건설돼 왔다. 풍요로운 주거환경, 최첨단기술을 활용한 도시기반시설, 업무, 상업 위락 주거 등 이상적 복합 업무도시를 지향해 왔다.
- 동경임해도시는 4단계로 추진됐다. 1단계는 1995년까지 동경과 연결을 위한 레인 보우 브리지, 임해고속도로, 임해무인경전철, 수도 11호 고속도로, 해상운송 시스템 등 연계교통체계 완비, 도로간선망, 하수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등 도시기반시설, 3개의 대형 프론티어 빌딩, 텔레콤센터, 동경 국제전시 센터, 대형호텔 등 도시발전 선도 시설 완공하고 그다음 2단계는 2000년까지, 그리고 2000년 이후 3, 4단계를 추진해 왔다.

#### ② 현재 개발실태 및 이용 현황

- 개발과정에서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3, 4단계의 추진은 상당히 축소, 또는 지연됐으나 현재 약 2/3정도 투자가 완료되어 새로운 업무, 위락 엔터테인먼트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 현재 동경임해도시에는 주거 및 사무실 공간, 엔터테인먼트, 쇼핑 부록으로 형성되어 관광, 쇼핑 및 국제 업무의 부도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구체적 시설로는 Tokyo Decks, Weat Promenade, Center Promenade, Yumeno Bridge, Palette Town, Venus Fort, Megaweb, Odaiba Ferris Wheel (1인당 900엔, 16분 한바퀴), Telecom Center, Aqua City, Odaiba Mediage

### (4) 기타 도시 및 지역개발

#### ① 동경시내 교통

- 동경시내는 교통 혼잡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개인차량 통행이 많지 않다. 고속도로 통행료와 주차장 비용 높고, 도심 내 주차공간이 매우 제한됐기 때문이다.
- 동경시내 지하철 전철은 동경 메트로, JR 등 다양한 주체가 각자 다른 요금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교통비도 매우 높다.
- 동경시내 자전거 통행이 매우 일반화되어 있고, 시내 곳곳에 자전거 주차장시설과 주차관리원 등이 편리하게 배치돼 있다.

## ② 기타 도시 및 지역개발 동향

- 동경은 도시거리에서도 금연토록 되어 있다. 금연 구역은 도로바닥에 금연표시가 있고 관리인도 있다. 식당도 규모가 작고 혼자 식사할 수 있는 카운터형 자리가 많이 있다.
- 고령화에 대한 배려가 많이 눈에 띄며, 공중변소(백화점)에는 비상 줄이 있어 노인 위급시 대비하고 있다.
- 일본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대규모 공동주택 고층주택단지가 많지 않다. 소도읍이나 농촌은 일본풍 단독 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다.

## ③ 기타 일본 특성

- 일본의 음식값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대부분 1만원 미만이고 괜찮은 경우에도 2~3만 원 정도이다. 생선초밥의 경우에도 1~1만 5천 원 정도이다. 관광지인 구마모토의 경우에도 일반 음식점은 1만원 미만(7~8천원)이고 카페에서 말고기 및 다양한 요리를 맥주까지 포함한 저녁의 경우에도 1인당 3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
- 농촌의 식당은 매우 정결하고 특별한 쌀과 고기를 자랑하는 농가 식당은 예상외로 비싸다(점심 1인당 3~4만 원 이상). 쌀을 사가는 사람도 있다.
- 관광지의 경우 소규모시설보다는 중소규모 온천 및 여관이 발달해 있어 관광개발이 주민 소득으로 직결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 관광지의 특성은 관광시설 입장료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고층건물 옥상 도시 전망도 1인당 1,500엔, 다른 간단한 시설도 우리 돈 5,000원은 넘는다.
- 일본 동경의 경우 저녁 7시 이후에도 많은 사무실에서 회의 및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주말에도 회사에 가는 사람이 예외로 많다. 자기 일이 많으면 주말에도 근무하는 게 일반적이란 설명이다.

## III. 일본 사례의 지역 정책적 함의

### 1.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

#### 1) 지방분권 및 예산제도 개편 및 재정분권 확대

- 지역개발사업은 개별적인 법률과 상이한 조직(성청)에 의해 추진되어 일부 제도적 개편만으로는 수평적 연계와 통합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 지역단위에서 유사 지역개발시책과 사업이 수평적인 연계와 조정 및 통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향이양 확대, 보조금 축소 및 교부금 확대, 통합 보조금 도입, 및 예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 지방자율과 분권을 확대해야 한다.

## 2) 특정정책사업에 대한 성청과 시책 간 수평적 연계, 통합위한 제도 도입

- 유사중복이 심하거나 다양한 시책과 사업이 포함된 특정지역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배정단계부터 유사사업을 조정하는 정책군(政策群) 제도의 도입 및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 지역재생 및 마찌꾸꾸리 등 다양한 부처의 사업이 포함되는 특정 지역정책 프로그램의 경우는 통합관리부서를 통하여 예산을 일괄 배정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 도시재생 등 특정정책의 통합관리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해당되는 중앙 부처와 협의하여 예산을 일괄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일괄배정을 받은 예산을 통합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3) 지역단위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 체계 구축

- 지역단위에서는 특정한 지역개발정책뿐만 아니라 동일 또는 유사한 정책목적과 목표 집단(Target Group)을 지닌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수평적으로 연계, 조정,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 2. 도시 및 지역재생정책 사례

### 1) 도시재생과 지역재생의 개념

-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재생과 지역재생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상이한 개념의 개별적인 사업으로 다루고 있다.
  - 다만 내각부 산하 지역 활성화 통합본부 회합 및 지역 활성화통합사무국에서 도시재생, 구조개혁특구, 지역재생, 중심시가지 활성화사업 등을 지역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다.
- 도심재생은 민간자본이 중심이 된 도시재개발을 의미하고, 구조개혁은 지역특성에 따라 기존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여 지역 활성화를 추구하는 사업이고, 지역재생은 지역의 자주적, 독립적인 지역 주도적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심시가지 활성화는 도시기능과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의미한다.
- 2008년에는 지방재생전략을 채택하여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보다 지역주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일관되게 추진하도록 했다. 지역의 일관 활성화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지방의 원기재생사업을 착수하여 연간 25억 엔으로 지역의 자율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 2) 도시 및 지역재생 사업의 추진 실태

- 도심활성화사업은 공간범위가 도시중심부에 치중해 있고, 대부분의 사업이 국가 및 공공 분야 주도이고, 민간 참여사업도 일정비율을 차지한다. 반면 지역 마찌꾸꾸리 사업은

- 대부분이 소단위 지역사회 예산사업이고, 주민참여와 발의 사업이 주를 이룬다.
- 도심 활성화와 지역재생 마찌꾸꾸리 사업은 모두 지역주민, NPO, 지역협의회 역할을 중시하나 지역 꾸꾸리는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의 직접 참여를 특히 강조한다.

### 3) 도심 활성화 및 지역재생 사업의 역할

- 일본의 도심활성화(우리나라의 전통적 도시재개발)와 지역사회단위의 재생사업인 지역 재생사업은 대부분 소단위 개발사업, 소프트 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예산규모가 전체 도시 및 지역개발 예산의 1~2%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제한된 것으로 추정된다.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유사한 도심활성화와 지역재생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대상지역의 수나 범위를 극히 제한하지 않는 경우 대상도시나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이나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일본의 도심활성화나 지역재생사업은 중앙정부 부처 간 시책의 수평적 연계, 예산의 일괄배정을 통하여 지역단위에서 지역개발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발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어 추진방식 및 제도적 수단차원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지방분권의 진전과 도주제 추진

### 1) 지방분권의 진전과 한계

- 일본은 최근 보조금의 축소, 통합 보조금 및 교부금 확대, 지방세제 개편 등 실질적인 분권화 조치를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 그러나 이 같은 성과는 전통적으로 강한 일본의 중앙집권적 체제를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일본은 1960년부터 전국을 8대 지방권으로 나누어 중앙정부가 주요 지역개발시책과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체계를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 따라서 현재의 지방분권의 추진으로는 결코 중앙집권적 국정 운영의 틀을 개편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최근 도주제를 추진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광역경제권제도를 도입하면서 시대착오적인 일본의 8대 지방권을 벤치마킹 하고 있어 지방분권을 후퇴시키고 신 중앙집권체제의 강화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2) 도주제의 추진

- 도주제의 목적은 일본의 47개 도도부현을 9~13개의 도주로 통합하여 입법권, 조세권 등 지역문제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이양토록 하는 데 있다.
- 도주제는 경직적인 중앙집권적 국정 운영의 틀을 지방 주권형, 또는 분권형 국정 운영의 틀로 바꾸기 위한 시도이다.

- 150년도 넘는 광역 행정구역의 개편과 중앙집권체제의 개혁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매우 장기적이고 종합적 조사와 연구 및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2007년도에는 2018년을 목표로 내각부 산하에 도주제 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그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각종 건의서를 제출한 16명의 민간전문가, 6명의 국회의원 및 6명의 지방자치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지방행정조사회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 일본은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개편과 도주제의 전면적인 도입에 앞서 2006년 12월 도주제특구추진법을 제정, 도주제의 시범적 추진을 시도함
- 일본의 도주제와 관련된 지방행정구역의 개편 작업은 정치적인 합의만으로 100여년도 넘는 기존 행정구역을 사전 연구, 조사, 협의 및 대비 없이 일거에 개편하려는 우리나라의 행정구역개편에 타산지석이 되길 바란다.

### 부록 1. 방문기관 및 면담자 명단

방문 기관 (위치)	시 간	직 위	연 락 처
1. 내각관방 지역활성화통합본부사무국 지역재생사업추진실 (東京都千代田區永田町1-11-39合同 廳舎)	Toshiki Wani	Deputy Director	
	關口岳志	主査	
2. 구마모토시 도시건설국	西島徹郎	課長	
	俊藤聰	技師	
	上野勝治	技術參事	
	永本俊博	主幹兼 主査	
3. 구마모토현 야마토마찌	藤川秀一	主事	
	佐藤豊	理事長	

방문 기관 (위치)	시 간	직 위	연 락 처
4. 국토교통성 북해도개발국 개발계획과 국제실	山田 賢	室長	
	飯田修司	調査 專門官	
	宮崎 了輔	國土交通 事務官	
5. 북해도청	野田剛三	主幹	
	横田弘之	主査	
	中里文美	主査	
	鈴木啓之	主任	
	柴田敏治	主幹	

## 부록 2. 수집자료 명단

NO	제 목	분 류	참 고
1	地方再生戰略 (2008. 1) 지방재생전략 (지역활성화통합본부회합)	회의자료	내각부
2	地域再生のために 지역재생을 위하여	팸플렛	
3	構造改革特區 구조개혁특구	회의자료	
4	構造改革特區 구조개혁특구	팸플렛	
5	地方再生戰略關連平成20年度政府予算案の概要 지방재생전략 관련 2008년도 정부 예산안의 개요	회의자료	
6	熊本市中心市街地活性化基本計畫概要版 구마모토시 중심시가지활성화 기본계획 개요판	팸플렛	熊本市
7	熊本市中心市街地活性化基本計畫 구마모토시 중심시가지활성화 기본계획	팸플렛	
8	熊本縣山都町概要 구마모토현 야마토정의 개요	회의자료	山都町
9	熊本縣山都町 2008年度 豫算 구마모토현의 2008년도 예산	회의자료	
10	熊本縣山都町の地域再生計畫 구마모토현 야마토정의 지역재생계획	회의자료	
11	熊本縣山都町 地域再生基盤強化 交付金 구마모토현의 지역재생기반강화 교부금	회의자료	
12	北海道開發行政のしくみ 북해도개발행정의 구조(시스템)	회의자료	北海道 開發局
13	北海道開發局事業概要2008年 북해도개발국 사업개요 2008년	팸플렛	
14	北海道總合開發の概要 북해도 종합개발의 개요2009年	팸플렛	
15	北海道開發予算等に關する要望 2009년 북해도 개발 예산 등에 관한 요망	팸플렛	
16	北海道開發予算等に關する要望 2009년 북해도 개발 예산 등에 관한 요망	회의자료	北海道廳
17	地域再生チャレンジ交付金の概要 지역재생도전교부금의 개요	회의자료	
18	支廳獨自政策の推進`地域政策推進予定事業一覽 지청독자정책의 추진, 지역정책추진 예정사업 일람	회의자료	
19	地域主權型社會のモデル構想2007 지역주권형사회의 모델 구상 2007	팸플렛	

NO	제 목	분 류	참 고
20	北海道 북해도	팜플렛	
21	道州制のイメージ 道州制に向けた北海道の取組 도주제의 이미지, 도주제를 향한 북해도의 준비	회의자료	
22	構造改革特區と地域再生について 구조개혁특구와 지역재생에 관해	회의자료	
23	みなさんの道廳(北海道) 여러분의 도청(북해도)	팜플렛	
24	証「三位一体の改革」 검증「3위1체의 개혁」	서 적	政府 刊行物
25	道州制で日本の未來はひらけるか 도주제로 일본의 미래는 열릴 수 있을까	서 적	
26	道州制地域經濟が変わる 도주제 지역경제가 변하다	서 적	
27	廣域行政と自治体經營 광역행정과 자치체경영	서 적	
28	分權社會のデザイン 분권사회의 디자인	서 적	
29	道州制ハンドブック 도주제 핸드북	서 적	
30	北海道勢要覽2008年 북해도(홋카이도)세 요람 2008년	서 적	
31	日本型地方自治改革と道州制 일본형 지방자치개혁과 도주제	서 적	
32	地域再生と道略的協働 지역재생과 전략적 협동	서 적	
33	2008年環境・循環型社會白書 2008년 환경·순환형사회 백서	서 적	

### 부록 3. 주요 수집자료

- 1) 地方再生戰略 (지역활성화통합본부 회합, 2008. 1. 29)
- 2) 2008년도 地方再生戰略關聯 政府豫算案 概要
- 3) 熊本市中心市街地活性化基本計畫 (概要版)
- 4) 熊本縣山都町の地域再生計畫
- 5) 北海道開發行政のしくみ (북해도개발행정의 구조)
- 6) 道州制 이미지

# 2008년도 해외출장 보고서

---

- 발 행 인 김 용 웅
- 발 행 처 충남발전연구원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101번지  
전화 041)840-1114 / 팩스 041)840-1129
- 인 쇄 일 2008년 11월 17일
- 발 행 일 2008년 11월 17일
- 인 쇄 처 필성인쇄사 (T.042-252-1689)

---

© 2008. 충남발전연구원  
[www.cdi.re.kr](http://www.cdi.re.kr)

---

(비매품)